

건축사 건축 529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진료개시
☎ 031-8086-3000

KIRA 2013 05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966년 창간

컬 럼 신임 편집국장 인사
에 세 이 새봄과 더불어 신나는 직장을 만들자
발전적인 관계로 상생하기를 기원하며
음악에
기획대담 젊은 건축사들의 꿈 그리고 현실

블랙의 마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흑연의 비밀
신개념 비드법 2중 단열재 **에너지포르**



흑연 테크놀로지

에너지포르는 열을 흡수하고 보존하는 흑연을 첨가한 첨단소재로 기존 단열재에 비해 20% 이상 높은 단열성능을 발휘합니다

슬림 이노베이션

뛰어난 단열성능 덕분에 기존 단열재보다 얇게 시공할 수 있어 공간은 더 넓게, 에너지 효율은 더 높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웰빙 신소재

내부 구조가 기존 단열재보다 훨씬 미세한 기포구조로 되어있어 습기, 세균,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한 친환경 웰빙 소재입니다



블랙EPS 에너지포르 단면

건축법상 [가] 등급 단열재

에너지포르는 기존 발포폴리스티렌에 흑연을 첨가, 결정구조상 복사열 흡수기능이 적용되어 동일비중의 기존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이 최대 약 10~20%까지 향상된 신기술 제품입니다

에너지포르

www.kkp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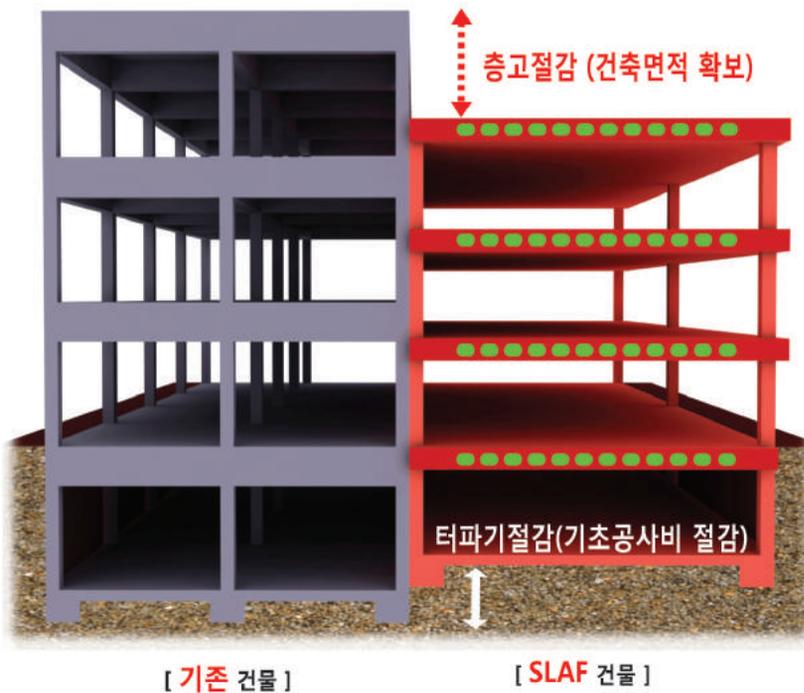
저탄소 녹색성장 공법

건축주의 고민 공사비 절감!

SLAF[®] 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 공사비 절감 / 최소 15% 이상
- 공사기간 단축 / 최소 10% 이상
- 가용 공간 증대 / 기둥 수량 10% 감소
- 소음 · 진동 · 보온 · 단열 · 내진 성능 우수
- 구조용역비 SAVE / 초기 구조 디자인 지원

건설 V.E. 공법의 NEW 패러다임



Super Light-weight Air-balled Flat plate System



SLAF 공법과 동일한 김포공항청사의 벌집구조



SLAF 공법 적용 후 전경 사진 (무량판 구조 : NO BEAM)



지상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지하층 SLAF 시공 현장사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20 삼광빌딩 2층 T. 02.3481.3885 M. 010.3745.3885
<http://www.sh911.co.kr>

콘크리트 사용량을 줄여 대기중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공법

The SLAF technology (patent pending) allows an integrated concrete slab construction for long spans without beams which is a requisite to realise an increases sustainability of the building value and at the same time save resources.



미니로타리식 주차장치의

絶·對·强·者 **창공 스카이파크**

연속시장점유율 1위 누적설치실적 1위

www.juchagi.com

전국 1544-3335



창공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스카이파크

New Trend-Successful Business Power!

구동모터 2개 로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구동력을 갖추

적용 : 중형급 16대형 / 대형급(RV 수용형) 12대형

대형(RV급 수용형) 주차기 판매실시

2010년 신개발품! 수용대수 : 5대형~12대형

일반형, 턴테이블 내장형까지

16대 수용형 및 대형(RV급 수용형)까지

절찬리 판매중!



아주 특별한 주차기 회사

주식회사 창공주차산업
CHANG GONG PARKING INDUSTRY CO.,LTD.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3길 8, 다동 TEL : 02)333-4448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2172번지 TEL : 054)973-1900
- E-mail : sky23487@hanmail.net
- FAX : 054)973-0067



CMR 기술연구원(주)
Construction Maintenance Repair & Reinforcement
www.cm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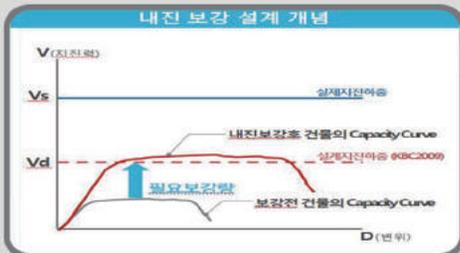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전문가 그룹

비선형정밀해석 을 통한 최적의 건축공간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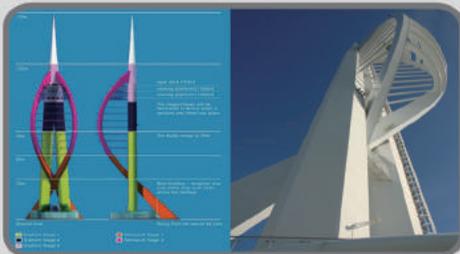
내진성능평가국내최다실적! 댐퍼시스템설계기술확보!
내진보강설계국내최다실적!
비선형해석 통한 최적 구조 시스템 제안!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 중·저층학교건물 ➡ 교과부기준
- ▶ 청사및관공서 ➡ 건교부기준

[비선형정밀해석/최적구조설계]



- ▶ PUSHOVER해석 ➡ FEMA356/MIDAS
- ▶ TIME HISTORY ➡ PERFORM3D, CANNY
ANALYSIS OPENSEES...

◎ 사업분야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진성능평가/내진보강설계
· 국내최신기준고려 · 비선형성고려한설계 3 내진/제진/면진장치연구개발
· 내진기술연구개발 · 내진설계기술개발 5 구조물안전진단
· 정기/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7 시공현장지원
· 건설현장구조지원 · 구조감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구조설계
· 신축구조설계 · 구조도면작성 4 구조관련컨설팅
· VE설계 · 최적시스템제안 6 비선형정밀해석
· 비선형정적해석
· 비선형시간이력해석 |
|--|---|

CMR기술연구원(주)
www.cmr.or.kr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33-16 영풍오피스텔 2층
Tel 02-402-3378 Fax 02-402-4378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고품격 신개념 출입구 시스템매팅

월매트



Entrance Matting System

월매트(Wilmat) 매립형 신개념 출입구 매트로서 외부의 오염물들이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며, 건물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고품격 출입구 매트 시스템
월매트는 국내생산제품이며 어떤 현장이라도 고객이 요청하시는 규격대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유지보수의 새로운 솔루션
월매트가 바로 정답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시는 현장에 맞게 주문제작 가능한 매립형 시스템출입구매트, 유럽형 신개념 출입구매트의 기능성과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월매트의 가치는 눈으로만 느끼기에도 충분합니다.
최적의 솔루션으로 귀하의 자산을 소중한게 지켜드립니다.



김해공항 국내선



인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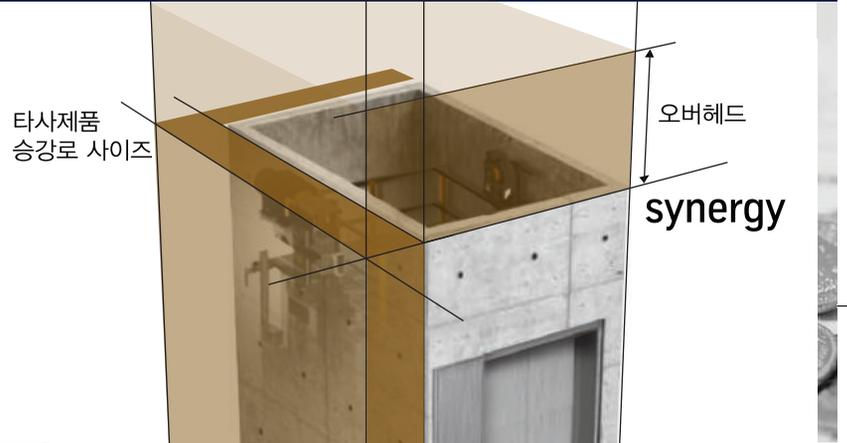
 독일에서 완성한 명품

synergy 엘리베이터로 누리는 4가지 시너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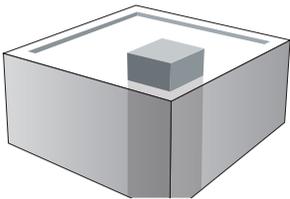
기계실이 필요없어 자유로운 설계와
건축미 표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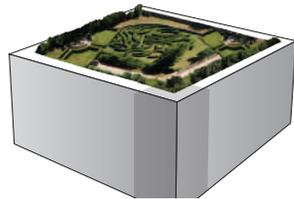
세계 최소 승강로, 오버헤드,
피트 사이즈 실현으로 건축비 절감



건물 옥상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1개층 추가 축조 가능시 건물가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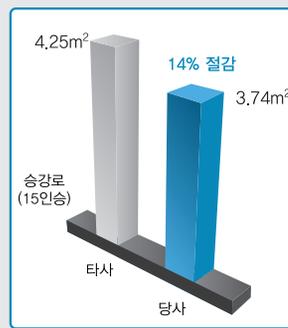


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물의 경우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건물의 경우

줄어든 승강로, 오버헤드, 피트 공간 건축비용 절감
총 3,150,000원 절감 (5층 건물, 15인승 기준)



승강로 건축비 절감액 (15인승 기준)
→ 2,850,000원

▶ 절감면적 0.19평 × 5개층 × 평당 건축비 3백만원

오버헤드 건축비 절감액 (15인승 기준)
→ 300,000원

▶ (옹벽길이1.7m×옹벽두께0.2m×절감높이0.35m×2개소) +
(옹벽길이2.0m×옹벽두께0.2m×절감높이0.35m×2개소)
= 0.238m³ + 0.28m³ = 0.518m³

7만원(㎡당 콘크리트 비용) × 0.518m³ + 철근 거푸집 등
자재비 15만원 + 인건비 = 건축비 절감액 약 30만원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의 BMW"



공간 절감에 따른 임대수익 증가

평범함을 거부하는 최고급 DESIGN



줄어든 승강로 면적을 임대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연간 임대수익 증가

20년간 17,160,000원 수익 증가 (5층 건물, 15인승 기준)

▶ 연간 임대수익 증가 효과 → 855,000원

층당 0.19평 증가 (15인승 기준) X 5개층 X 평당 월세 7만5천원(서울 비도심 기준)
X 12개월 = 855,000원

※ 1개층 확장 시 건물가치 상승효과 (총면적 50평 기준):
50평 X (평당분양가 5백만원-평당건축비 3백만원)=1억원

승강로	구분	폭 X 깊이		폭 X 깊이		고객혜택
	8인승	당사	1800X1600	VS 타사	2050X1700	0.21 평 (20%) 공간절감
15인승	당사	2200X1700	VS 타사	2300X1900	0.19 평 (14%) 공간절감	
오버헤드	당사	3450	VS 타사	3800	350mm 낮음	
피트	당사	1150	VS 타사	1500	350mm 낮음	

유러피안 스타일의 고급형 캐빈 디자인



공기청정기 기본 채용



LCD 기본 채용



터치버튼 기본 채용



천장 LED 기본 채용



수평분할 디자인



고급 Vibration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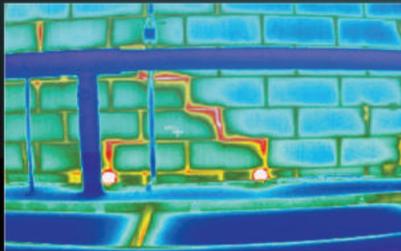
영업문의 : 02)2610-7723, 7736
www.thyssenkrupp-eleva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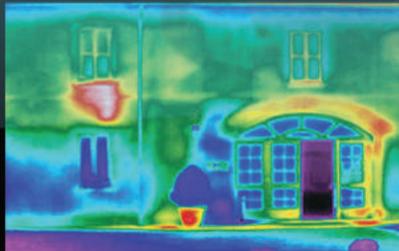
FLIR T640bx / FLIR T620bx
건물/에너지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열화상 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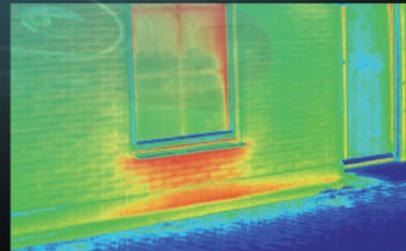
최고의 이미지 해상도
640 x 480 픽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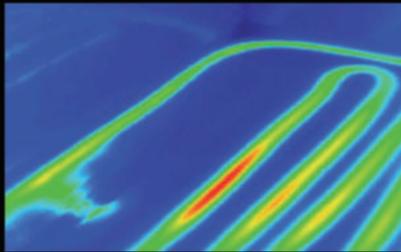
건물 구조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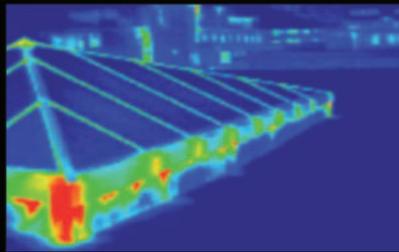
에너지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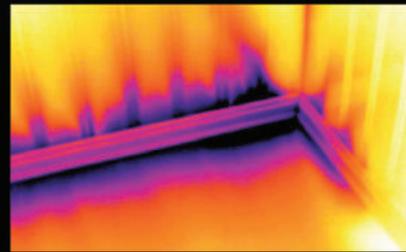
절연 손실



난방 배관 누수 탐지



외기 유입



습기 침투



www.flir.com

(주)플리어시스템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6, 6층 (삼성동, 구구빌딩) 전화: (02) 565-2714~7 팩스: (02) 565-2718 이메일: flir@flirkorea.com

Images/contents are for illustration purpose only.

▶ MPT 강봉보강공법 개요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보의 부족한 휨모멘트 및 전단력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공법으로, 보의 단부 상단 고정판과 중앙 하부 고정판을 정착하고 고강도 특수강제의 강봉을 유압 시스템으로 인장하여 구조물의 보 또는 슬라브를 보강하는 공법이다.

기존의 수동적 보강방법인 강판과 탄소섬유로 부착하여 보강 할 경우, 보강 부재가 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때 기존부재는 보강 후 적재로 인한 추가 변형으로 인해 구조체의 변형이 증가하게 됨으로 균열의 확대 또는 파손의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강판보강이나 탄소섬유보강공법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제거하거나 구조체의 변형을 강제로 회복시킨 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MPT(Metro Post Tension) 강봉보강공법은 기존부재의 변형을 회복시키면서 추가 하중을 구조체와 함께 지지하게 됨으로 구조물의 내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능동적 보강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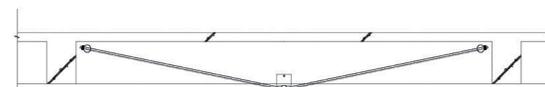


▶ 보강공법의 특징

- 1. 구조적 안정성**
고강도의 특수강봉을 유압시스템으로 정확한 인장력 계측이 가능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높다.
- 2. 내화성능**
일반보강공법에 비교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불연재인 강봉을 사용함으로 내화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 3. 친환경적**
미장제거에 따른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하지 않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다.
- 4. 경제적**
건축물의 천정마감재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비용이 절감된다.
- 5. 공기단축**
기존 보강공법에 비해 공정을 단순화시켜 공사기간이 약50% 이상 단축된다.
- 6. 시공성**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면 완료됨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주변의 각종 설비 시설등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다.
- 7. 품질관리, 내구성**
고강도 특수강봉을 공장에서 가공함으로 품질 관리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다.



〈그림 1.4.5c〉 강봉 배치형태(슬라브 V형)



〈그림 1.4.5b〉 강봉 배치형태(보 V형)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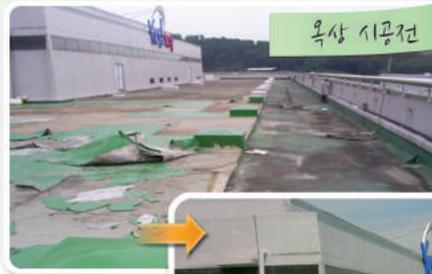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의 에너지효율 및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공사례모음



내열성능 시험결과	
시료명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열에 의해 변형이 된 길이 (200mm 기준)	0.1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 5 개량형 아스팔트시트 (출리내림길이(mm))
결과 이미지	변형이 거의 없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파단됩니다.
시험방법	가로와 세로길이가 각각 200mm가 되는 시편을 80도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열변화에 따른 길이변화와 굽모양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시험기준	KS F4917: 2007
시험기관	한국 전자재시험 연구원



방수층 개요도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공법 · 신뢰받는 회사 -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TOTAL & HIGH-TECH WATERPROOFING CO., LTD.



스마트폰으로
QRcode를
스캔해보세요

www.ipalg.co.kr
이파엘지.kr

편견을 버리면 새로워집니다.

변화의 새로움을 바라다가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로 출력시스템으로 더욱 빠르고 향상된 품질의 프린팅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18ipm (흑백/컬러)의 초고속 인쇄
- 초대용량 잉크카트리지로 유지비 절감
- 클라우드서비스 지원
- 유무선 네트워크
- 자동양면인쇄
- 3.7" 슬라이드 터치 LCD 디스플레이

MFC-J2510 InkBenefit

인쇄 속도	고속 모드: 최대 흑백 35ppm, 컬러 27ppm 레이저 대비: 최대 흑백 20ppm, 컬러 18ppm
복사 속도	흑백 12ppm, 컬러 9ppm
팩스 모델 속도	33.6kbps
스캔 해상도	최대 2,400 x 2,400dpi(광학), 18,200x18,200dpi(확장)



MFC-J2510 InkBenefit

iF 디자인 어워드 2013 금상 수상기념!

1+5FREE

브라더 가로출력 복합기 1대 사면
산돌팬시폰트 5개가 무료!

9,900원
잉크 LC565 C M Y 1,200매

13,200원
잉크 LC567 K 1,200매

MFC-J2510 InkBenefit 정품잉크 EVENT

MFC-J2510 InkBenefit + 정품잉크 + 산돌 유료 서체 이용권 + 무상A/S 1년 추가 연장

산돌 서체 EVENT



산돌서체 6개월 무료



산돌서체 3개월 무료
(첫번째 구매)



산돌서체 3개월 추가(무료)
(두번째 구매)



총 1년 산돌서체 이용권
(6개월 + 3개월 + 3개월)

무상 A/S 추가 EVENT



A/S추가 1년
(4개월 + 4개월 + 4개월)



무상 A/S 4개월 추가
(다섯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네번째 구매)



무상 A/S 4개월 추가
(세번째 구매)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방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건축물 외장재 신개념 PANEL

EURO-ZINC PANEL

다양한 외관창출과 징크패널의 업그레이드 제품 신소재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의 시스템패널

기존 패널의 단조로운 색상과 형상에서 벗어난 샌드위치패널의 최종 집대성 된 패널입니다. 준 불연 단열재 프로폴보드를 사용하여 현존하는 샌드위치 패널의 장점만을 극대화 한 21세기형 최첨단 친환경 패널입니다. 지붕과 벽을 혼용할 수 있는 파형으로 다양한 디자인으로 연출할수 있습니다.

[유로징크 특징/장점]

- 1.저렴한 비용으로 고품격 디자인 창출
- 2.비용 절감.공사기간 단축
- 3.줄눈의 색상 및 간격 조절이 자유로워 깔끔한 외관 창출
- 4.중,형 시공에 의한 깔끔한 마감 처리시공
- 5.다양한 맞춤형 코너 마감으로 건축물의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한 제품

특허출원번호-2011-0053998

디자인등록 제30-0658085호



FREE-METAL PANEL

서진공영의 프리메탈패널은 **준불연재**이며 고품격 디자인을 바탕으로 **비용절감**과 코너마감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시공상의 우수성과 강도로 반영구적인 제품으로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으로 서진공영만의 프리메탈패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FREE-METAL PANEL POINT]

1. 난연성이 우수하여 화재사고에 안전하며 유독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2.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3. 단열성이 뛰어나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며 경제적입니다.
4. 방수,방습성이 우수하여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단열성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5. 강도와 내구성이 우수하여 취급이 간편합니다.
6. 발포폴리스티렌(EPS)이 적용될수 있는 모든 부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발포폴리스티렌(EPS)의 간편한 시공법과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특허증 특허 제10-1219639 샌드위치 패널용 외판 제조방법



서진공영주식회사
Seojin Gongyoung Co.,Ltd.

본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203-1번지
TEL. 032-563-0020 FAX. 032-563-8813
www.i-seojin.co.kr / www.i-seojin.kr

공장 :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32-1번지

JUNGWOO safedoor

특허 신제품



정우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

정우 스텐레스 단열 세이프(강화)도어/정우 세이프(강화)도어
견고한 제작,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 냉, 난방비 대폭 절감!

(주) 정우산업만의 노·하우로 제작되는
전 제품은 보이지 않는 곳 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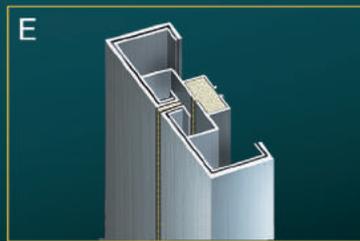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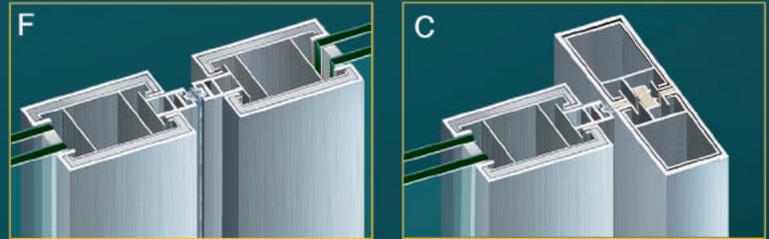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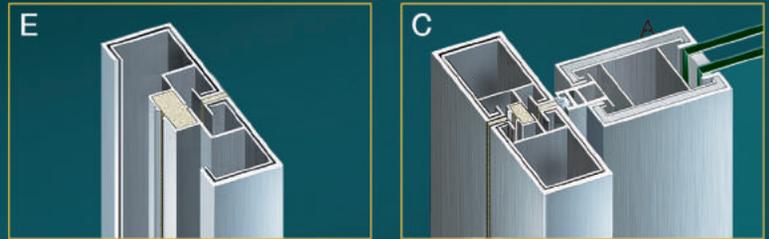
스텐레스 단열바 프레임의 장점

- 아존을 충전하여 내, 외부의 온도를 차단하여 줍니다.
- 완벽한 밀폐에 의한 방음, 방풍으로 냉, 난방비를 대폭 절감해 줍니다.
- 스텐레스 내부 보강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연결부 틈새에 결로 또는 부식에 의한 녹물 흐름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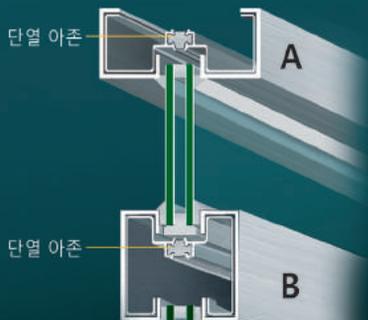
색상선택이 자유롭 습니다.

- 스텐 • 골드 • 브론즈 • 헤어라인 • 밀러 • 갈바 불소코팅

단면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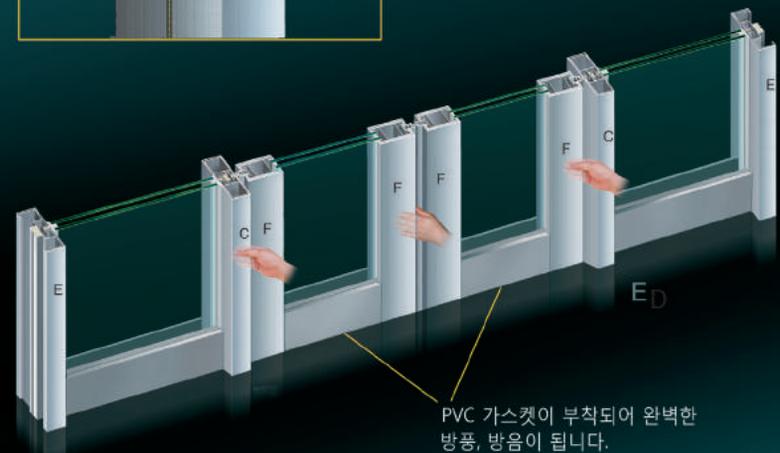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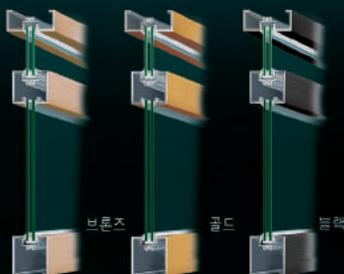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재질/한국산업규격

- K.S D 6759, 6063, 알루미늄 합금재
- K.S D 3098 스텐레스
- K.S L 2002 강화유리



▶ 가격표 :
월간 물가 자료집 586p 참조
(2011년 10월 부터)



여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
(주) 정우 산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30-8
TEL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 전국 영업망 구축 •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 서비스!

조립식 패널 전문 설계팀의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난 신개념 메탈패널

CUBE METAL

큐브 메탈패널은 서로 다른특징을 가진 4종의 타입이
기능적인 조인트 설계로 상호 조합되어 건물의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 **줄눈디자인**
다양한 너비와 깊이
독특한 경사형 디자인
자유로운 세로줄눈 간격

- **기능성**
타입별, 두께별 상호결합
다양한 단열재
누수방지 결합구조

A-Type

B-Type

D-Type

C-Type

- PIR
- GLASSWOOL
- ROCKWOOL

※ 특허 : 제 10-2011-0139926 호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발전용 패널

SOLAR Roof

솔라루프는 태양광 발전 모듈을 패널에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개발되어 부자재가 필요
없는 지붕일체형 태양광 발전용 패널입니다.

- **누수방지**
볼트리스타입으로 모세관현상 방지 및
깔끔한 외관
- **시공성**
기존 태양광 모듈 설치의 중복공사 감소로
인한 자재비 절감효과
- **경제성**
뛰어난 단열 및 전력생산의 경제적 효과
- **확장성**
일반지붕형 외에 경사형, 외벽형의
다양한 설치 시스템

• PIR / PUR

※ 특허 : 제 10-1175115 호



설계영업부(기술지원) : 031) 226-4226, 031) 226-2978

본 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1121-4 리치타워 7층 Tel, 031) 222-4028~9 / Fax, 031) 221-5458
 인주공장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갈매리 1037 Tel, 041) 534-8484~5 / Fax, 041) 534-8487
 논산공장 :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강청리 226-3 Tel, 041) 742-8486~7 / Fax, 041) 742-8483



전통의 30년,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메트로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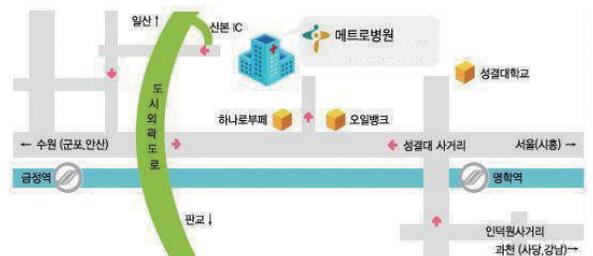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온 30년이었습니다.
이제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태어나는 재창립의 마음으로
안양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30

1983 ~ 2013

메트로병원 : 031) 467 - 900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42-105



COVER STORY



표지사진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정현화, 임영수, 박종성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작품 중

발행인 김영수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수
 취재·편집 최락청, 손석원, 문지은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137-877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전화 대표 02_3415_6800
 팩시밀리 02_3415_6850
 인터넷 www.kira.or.kr
 디자인 (주)랜스에디팅 02_2273_8576
 인쇄 (주)미래엔 031_730_3800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02_3415_6862~4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Kim, Hyung-soo
 Reporter Choi, Rak-chung / Sohn, Suk-won / Moon, Ji-eun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 1-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77
 Tel (02)3415-6800
 Fax (02)3415-6850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021 칼럼 COLUMN

신임 편집국장 인사

Greetings from new executive editor
_김형수

022 에세이 ESSAY

새봄과 더불어 신나는 직장을 만들자

Let's make our office fun with the breeze of spring
_김득수

023 에세이 ESSAY

발전적인 관계로 상생하기를 기원하며

Hope to stand together with expansive relationship
_엄익준

025 에세이 ESSAY

음악에

An die Musik

_김희진

026 시가 있는 여울목 POEM

_안상학 / 해설_강희동

027 만평 CARTOON

_김진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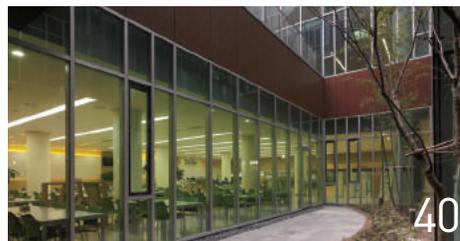
028 기획대담 시리즈 I DISCUSSION

젊은 건축사들의 꿈과 애환

Young architect's dream and life



28



40

Contents 529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13년 5월호

036 회원작품 WORKS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_정현화, 임영수, 박종성_KIRA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남원스위트 호텔

NAMWON SWEET HOTEL

_한중률_KIRA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판교 U-HAUS 579-3

PANGYO U-HAUS 579-3

_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i-SMART 창업보육센터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I-SMART BUSINESS INCUBATOR

_이만수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아쿠아플라넷 제주

AQUAPLANET JEJU

_김태집, 한기영_KIRA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072 설계경기 COMPETITION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내 유스호스텔

ULSAN MUNSU WORLDCUP STADIUM YOUTH HOSTEL

이노비즈센터

INNOBIZ CENTER

080 포트 CONTE

금니빨

Gold Tooth

_김현탁

082 건축과 법률이야기 THE STORY OF ARCHITECTURE AND LAW

상사유치권과 근저당의 선후관계

The order priority between mercantile lien and a collateral security

_성승환

084 연구 RESEARCH

실내주거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환기기준 조정의 필요성

Adjustment necessity of ventilation guide while conditions of indoor living environment are changing

_이윤규

088 연재 I SERIAL I / 근대건축사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⑧

경운궁과 제국의 두 얼굴, 석조전과 중화전

Two Faces of The Empire, Seokjojeon and Joongwhajeon in the Imperial Palace

_안창모

095 연재 II SERIAL II / 건축과 함께하는 시의 세계 ①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_장양순

101 건축마당 ARCHITECT'S PLAZA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계소식 Archi-Net

되돌아 본 건축士·건축史_1966~1967

해외건축동향_이승석 Overseas News Review

통계 Statistics



새봄과 더불어 신나는 직장을 만들자

Let's make our office fun with the breeze of spring

—감사실을 사랑방으로 개방한다



김득수 | Kim, Deuk-su, KIRA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평생 설계를 업으로 살면서 마지막이라 말하긴 아쉽지만 감사로서 협회의 업무를 둘러보게 되었다. 많은 감사들이 거쳐 갔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떠났지만 지적인 업무 외에는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둘러봐야겠지만 무엇보다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협회가 신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는 일과 건축사 회원이 협회에 실망치 않도록 업무를 독려하고, 왜곡돼 처리되는 업무는 없는지 잘 살펴야겠다. 직원 면담도 늘리고 근무 중 애로사항도 수시로 청취해 신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아버지와 삼촌이 건축사로 3대가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집안이라 설계업무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면만 협회의 업무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새봄과 더불어 제30대 집행부가 구성되었다. 출발점에 서서 힘차게 일하자고 외쳐본다. 더불어 이 지면을 빌어 직원들에게 몇 가지 부탁코자 한다.

첫째, 왜 건축사협회를 직장으로 택했는지를 생각했으면 한다. 직장은 먹고살기 위한 곳이다. 그러나 봉급타기 위해 다닌다면 뭔가 너무 허전하지 않은가. 내가 이 협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권한다. 확실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직장생활이 보람 있지 않겠는가. 고민하다 해결책이 없거든 감사실을 찾기 바란다. 감사는 여러 직원들의 업무를 독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결해 주는 자리라 생각하고 2년간 업무에 임하려 한다. 결코 직원들 피곤해 할 일은 없을 것이다. 소상히 보고해주고 애로사항을 상의하길 바란다.

둘째,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고 싶다. 이 세상을 혼자 살 수 없다. 업무도 마찬가지다. 내 일만 하면 다 했다 하지 말고 옆 사람 일도 폭 넓게 알아주길 바란다. 무슨 일이 맡겨져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어느 시인의 “담을 고치며”란 시가 생각난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시구가 있다. “무엇을 담 안에 넣고 무엇을 담 밖에 두려는지” 쓰고 있다. 동료와 그의 업무를 담 안에 넣어 함께 해결한다면 누가 나를 싫어하겠는가. 동료가 쉽게 넘나드는 나의 낮은 담은 신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도덕성 만큼은 높은 담을 쳐야 한다. 쉽게 담을 넘어 신세 망치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요사이 새 정부 인사 청문회를 보며, 어느 건설업자의 부도덕한 접대를 보며, 넘어서는 안 되는 담을 쉽게 넘나든 고관대작을 보며 담의 높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셋째, 공부하는 직장을 만들자. 우리는 평생 공부하며 산다. 학교공부는 이미 했지만 그랬다고 인생 성공한 것 아니잖은가. 무엇이든 각자 관심 있는 분야나, 업무, 어학 등 공부하는 분위기로 스스로에게 채찍질하길 바란다. 건축사협회는 전문가 단체다. 전문가 단체에 근무하는 나도 전문가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단세포로 분화된 직업세계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머무르는 위치는 뻔한 것 아닌가.

협회 공간도 협소하고 감사가 상근하는 것도 아닌데, 그동안 감사실이 굳게 닫혀 있었다. 새봄과 더불어 감사실을 활짝 열겠다. 회의도 하고 차도 마실 공간으로 열겠으니 자주 이용했으면 한다. 직원에게도, 협회 방문회원에게도, 감사실을 사랑방으로 개방하려 한다. 합리적으로 공간 활용도 하고 신나는 직장 만드는 공간으로 거듭 태어났으면 한다. ㉮

필자는 한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를 취득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도시·관광단지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서울건축사협회 영등포지역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에너지설비분과위원장 역임, 서울건축사회복지회 신용협동조합 이사, 감사,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및 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S.S.P. 삼대 대표로 재직 중이다.

발전적인 관계로 상생하기를 기원하며

Hope to stand together with expansive relationship



엄익준 | Um, Ik-jun
한국기술사회 회장

먼저 김영수 회장의 제30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취임에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 1965년 창립된 이래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건축사협회가 김영수 회장의 취임으로 다시 한 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듯하여 굉장히 기쁜 마음이다. 다년간의 공직생활과 행정경험들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여 힘차게 정진하시길 기원하는 바이다.

김영수 회장이 취임 시 말한 건축사의 위상정립과 회원을 위한 협회의 역량 강화, 건축사의 새로운 가치방향 설정, 이것들은 취임사의 핵심내용 중 하나이다. 현재 기술사회에서 추진하여 실행중인 PE Vision Forum의 핵심내용인 기술사 위상 제고와 개혁을 통한 기술사의 발전적 변화 등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상제고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기술사회 두 협회가 가진 비슷한 목표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상제고,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50년은 역동적인 산업발전의 시기였다. 건축사, 기술사 모두 국가 경제발전이라는 큰 기치 아래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였다. 경제발전의 주역, 한강의 기적, 자긍심, 사명감... 이 당시 건축사나 기술사 모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인들에게는 이제 과거 고도발전의 시대가 추억과도 같은 시기가 되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세계의 시장과 국경의 장벽은 없어지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장벽은 높아져만 가는 실정에서 국내에서는 정책·구조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술인들의 위상은 점점 떨어지고 업을 영위하기 힘든 기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 소위 위기라는 것이 찾아왔고 언론이나 신문지상에선 이공계의 위기, 건설업계의 위기 등의 말이 언급된 지 수년이 지났다. 위기가 바로 기회라지만 당장 탈출하기에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우선 기술인 개개인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자격증 취득 후에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최신기술에 대한 배움을 지속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대형화, 조직화 되어가는 기술시장의 변화에 맞춰 모습을 바꿔야한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겨지는 물처럼 유연하게 그때그때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기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큰 힘을 발휘해야한다. 이러한 행보에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뒷받침해야함은 물론이다. 협회가 정책적으로 기술인들이 나아갈 길을 미리 닦아놓는 동시에 행정적인 지원으로 뒤를 든든히 받쳐준다면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기술사회 양 협회의 첫 번째 목표인 위상제고는 만드는 결과가 아닌 저절로 생겨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수적천석(水滴穿石), 한사람의 힘은 약하지만 그 사람들이 힘을 모은다면 바위를 뚫는 물방울처럼 큰 힘이 되어 목표 앞에 놓인 장벽을 부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기술사회는 비슷한 점들이 많다. 1963년에 건축사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기술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또한 1965년은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기술사회가 창립된 해이기도 하다. 올해 취임한 신임회장들의 목표도 비슷하다. 이처럼 양회는 역사를 나란히 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기술인들의 위상정립과 제도발전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서로 발전적인 관계로서 상생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

필자는 30여년간의 공군 시설장교를 마치고 CM교육원장, CM협회 이사, 한국VE협회 부회장, 국방부 특별기술심의위원, 서울시립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2013년 3월부터 한국기술사회 회장에 취임하여 활동 중이다.

건축사지 기획대담 시리즈 ①

젊은 건축사들의 꿈 그리고 현실

Young architect's dream and life



건축사지가 그동안 주로 건축물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어, 정작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 설계를 진행해온 건축사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건축설계 작품 뒤에서 건축의 주역인 건축사가 소외되어 왔다. 건축사의 열정과 인고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 건축물들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며, 건축의 주체로서의 우리시대 건축사의 삶과 꿈을 조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건축 시장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들 한다. 어려운 현실속에서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건축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건축사들도 있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축사의 삶과 꿈이 어떠한지를 심층적으로 조명을 하기 위하여 기획대담을 마련하였다. 건축사지는 다양한 세대와 그룹의 건축사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이번 좌담을 통해 건축사 현실을 되짚어보고, 새로운 도약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45세 이하 신진 건축사들을 초대해 젊은 건축사들의 꿈과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대담자(가나다 순)

- 김형수 건축사(좌장)
1964년생 / 대한건축사협회 편집국장
- 민경원 건축사
1972년생 / 건축사사무소 라움플랜
- 박세희 건축사
1970년생 / (주)지안 건축사사무소
- 임희선 건축사
1974년생 /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
- 장석진 건축사
1973년생 /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한.가예
- 정익재 건축사
1971년생 / (주)강남 종합건축사사무소
- 천국천 건축사
1978년생 /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김형수 편집국장 오늘 대담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전국 45세 이하 젊은 건축사를 대표하여 초대되었습니다. 대담의 주제는 젊은 건축사들의 꿈과 현실입니다. 요즘의 생각과 꿈을 가감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석하신 건축사분들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경원 건축사 저는 건축사사무소 라움플랜의 대표로서 단독으로 개업한 지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로 다소 규모 있는 건축을 하다가, 개업 후 개인적인 지명도가 없는 관계로 소규모 건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월세 안 밀리고, 직원 급여 안 밀리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으나 제 월급은 가끔 못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자이다 보니, 육아와 관련된 고민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제가 육아를 책임지다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건축주와의 많은 대화와 연구로 작품에 더욱 욕심을 내고 싶으나 아이의 중요한 약속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엔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세희 건축사 (주)지안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세희라고 합니다. 역시 고용된 건축사로 활동하다가 2004년 독립했으니 올해로 9년차에 접어들고 있군요. 독립 당시 선배들이 5년만 버티라. 버티면 궤도에 올라선다 하셨는데 막상 지나보니 처음 5년차가 지금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5년차 당시에는 사무실 상황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성장 시 사무소를 스튜디오 형식으로 나아가갈 것인지, 대형 사무소로 성장시킬 것인지 저처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맥으로 이어진 건축주들로부터는 수주를 하겠는데, 사무소가 소규모면 관공서 같은 곳의 일을 수주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사무소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초창기 5년 동안은 규모를 키워 직원이 18명이 되기까지 성장시켰다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의 불경기 당시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렸죠. 지금은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난 후 2011년과 2012년이 더 고비였고, 여러 사무소들이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했고 아마 저처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정권교체의 탓인지 바람이 바뀌어서 올해 경기가 조금 나아지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분야도 정권에 따라 많이 바뀌는데,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가 가장 최고

였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박원순 시장의 희망적인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정책으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임희선 건축사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2008년 인테리어와 건축사의 동업형식이었고, 이후 경기가 안 좋아서 분리 했습니다. 독립으로 사무소를 운영한지는 3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인테리어 위주로 들어온 작은 설계를 주로 하었는데 요즘은 어느 규모의 선을 맞춰야 수주를 하게 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세희 건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튜디오 형식을 고집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젊어서인지 욕심이 있어서 지명도가 높은 스튜디오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사무소 운영은 민경원 건축사님처럼 회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모두 회사 운영비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저만의 재투자방식이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집세내고 월급주면 딱 떨어집니다. 다만 제 수입은 대학 등 강의로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젊은 건축사의 수입이 거꾸로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돈 벌 욕심을 내려면 속된말로 '빨리 치고, 빨리 빠지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경원 건축사 말씀처럼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결과물마다 완성도를 높이며 노력하지만, 사무소 운영이 계속 마이너스인지라 쉽지가 않다.



천국천 건축사 현재 (주)한인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개업했습니다. 3년차입니다. 저는 젊으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짬을 내서 협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설계 외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목조건축물과 박물관 등입니다. 이와 관련, 근래 정부에서 한옥에 대해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현실적이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많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미나와 공청회 등 공식적인 자리가 있긴 하나, 패널 등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만 구성돼 답답한 부분들을 해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는 많으나 기회나 장이 없어 안타까워하던 차에 이러한 대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에 일하던 사무소가 문화재 사무소였습니다. 10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박물관, 전시관, 문화재에 주력하던 소사무소로써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주도로 호황을 누리다가 몇 년 전부터 정부 측에서 박물관을 더 이상 건축하지 않아 10여년의 성황을 끝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민간에서의 박물관 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박물관 자체가 흑자가 날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특화하고자 해서 문화재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목구조부터해서 일반목조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요즘 대형 건축사사무소들도 같이 힘들다 보니 이쪽 시장, 목조건축시장까지도 잠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모에 참여해도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출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지자체에서 공공시설물을 주로 하고 있는데, 15~20억 이하입니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이 시장성을 보고 참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로 인해 우리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 조그마한 한옥주택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특화된 부분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레저시설이나 캠핑장도 시도하고 있고, 산림청과의 경험을 살려 그쪽으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익재 건축사 (주)강남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정익재 건축사입니다. 대표는 아니고 소속 건축사입니다. 대표건축사가 4명, 총 건축사가 5명입니다. 그나마 이중에선 큰 규모인데 메이저는 아니고 중규모 사무소입니다. 직원은 35명 정도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주요 업무는 공공건물, 공공주택 현상설계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LH의 공동주택 등과 지방공사도 하고, 저는 일반건축물 현상, 공공건축물이나 학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천건축사가 이야기 했듯이 현상 쪽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고도 줄고, 작년도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사무소가 중소규모 시장으로 내려오고, 적은 건수에 많은 사무소가 몰리니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입니다. 4년 전부터 다음해가 어렵다, 다음해가 더 어렵다 했는데...올해가 피크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무소도 운영을 위해 작은 규모의 업무들까지도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등도 해보고 싶는데 아직 기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설계금액을 보면 우리같은 중규모 사무소에서 소형 건축물을 하려면 현재 소형 건축물의 수익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안하는 것이 맞는데,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소형건축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좀 더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은 발주처와의 관계 등등으로 생각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건축물을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장석진 건축사 사무소 근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도 건축사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개업하시고 지금도 하고 실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민간 공동주택,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입사해서 실무를



거쳤습니다. 당시는 규모면이나, 경제적인 면이 안정적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실무수련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추후 건축사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취득과 동시에 사무소가 급속히 어려워졌습니다. 목표는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미난

건축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사무소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지다 보니 재미는커녕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사무소 적자를 메워야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방금 전 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나고 물어 보셨는데, 2006년 전에는 25명, 2008년쯤에는 절반 감축, 작년엔 절반을 더 감축, 현재 7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지만 사무소 운영 부분에서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빛이 늘어나는 이상한 상황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생활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아버지는 리모델링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박세희 건축사와 비슷한 느낌인데, 올해 들어와서 이쪽도 활성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다들 숨죽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청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젊은 건축사들이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주어진 사회적 구조 속에서 건축적일들이 많이 생겼었다면, 요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건축사들이 역할을 어떻게 잡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참석하신 젊은 건축사들의 근황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대담의 주제인 '젊은 건축사들의 꿈과 현실'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젊은 건축사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민경원 일반 건축의 건축주가 대부분 50~60대입니다. 따라서 제가 젊고, 여자이니까 안 믿는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든 설계비를 싸게 불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인테리어와 건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인테리어 부분은 서비스라는 인식을 가진 건축주가 있기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자와 건축주 둘이서만 해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속이 상한 적도 많지요. 반대로 그분들도 젊고 여자인 저와 일하는 것이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익재 민 건축사의 이야기는 건축계 전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부 건축주분들이 건축사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더 받아내려 하고, 서비스를 받고, 적게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민경원 또 어려운 부분은, 전에 근무한 큰 사무소에서는 대관 업무를 하지 않아선지 대관업무에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즉 공무원들과 업무 미팅이 어렵습니다. 저와 이야기를 안하려고 한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관계된 그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뭘가를 항상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육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하루빨리 습득해야 하는데 제가 아직은 부족한가 봅니다.

박세희 제가 나이 들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었나 봅니다. (웃음) 대관업무 시 일부 공무원들이 건축사들을 너무 막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 전문가인데, 워낙 법이 많이 바뀌고, 구마다 다르니까 무언가를 물어보러 가면, 나이가 어리고 그러면 이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건축허가를 내려 하느냐 라고 핀잔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관에는 조언을 구하러 들어가는 건데, 요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냐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축보다 복잡하니까 받기가 싫은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공무원들은 아예 못 들으게 막자는 식으로... 이것도 모르고 들어오냐, 아니면 이러한 안된다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은 약간의 법을 서로 간에 개진을 해서 허가권자와 건축사가 조율할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 건축사가 말한 것처럼 공무원과 미리 만나보고 사귀어 놓아야 쉽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젊은 건축사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규모 사무소에서 있다 보니, 신진건축사 제도가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천 건축사 말처럼 공공건축물 하다보면 7~8명의 인원이 5억 이상은 수주를 해야 열정을 가지고 장시간 고민하며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형 사무소가 5억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도 수주를 합니다. 우리나라 현상의 문제점이기도 하겠지만 소위 로비력도 있어야 하는데, 경쟁이 안 되니 우리같은 소규모 사무실은 다시 2~3억 짜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정당하게 디자인과 실력으로 임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 건축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상생제도를 시행해서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우 일정 매출액이상 대규모의 사무소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건축사제도는 이러한 부분에서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시장에 진입하기 좋은 부분인데, 오히려 제도를 만든 관에서 신진건축사를 알보는 것 같습니다. 신진건축사의 실력이면 큰 현상설계를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신진건축사관련 공모는 대부분 5억 미만입니다. 2억, 3억 등이 대부분입니다. 유럽처럼 신진건축사가 되면 스타건축사가 되고 사무소가 성장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다 작은 금액, 당선되어도 그냥 몇 개월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끝나고 맙니다.

또 신진건축사가 당선되면 홍보도 해주고 스타건축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신진건축사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사실만 홍보했지 그 외의 당선된 건축사에 대한, 당선된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사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진건축사를 재조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임희선 앞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못하는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원인은 다 이미 말씀을 하셨고, 제가 스튜디오 베이스로 나가겠다고 한 것이 나름 틈새시장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위주였지만 점점 소규모 주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고 다세대, 다가구를 많이 지으려고 하려는 추세이다 보니 좀 더 플랜이 괜찮고 예쁘면 임대료가 잘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3~4년 전 부터 뛰어들었습니다.

정당하게 디자인과 실력으로 임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나라 건축업계에서도 중소기업 상생제도를 시행해서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우 일정 매출액이상 대규모의 사무소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시장이 최근 땅콩주택도 이슈화되고 사람들이 다세대, 다가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다시 그 시장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양평에 전원주택 샘플링 하려고 수익 거의 나지도 않게 한 동안 짓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는 거의 원가로 생각한 가격으로 했는데도 그쪽 업자들은 당연한 가격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주로 움직이는 용역비의 기준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큰 시장은 큰 메이저급들이 국책사업과 연관되어 움직이고, 작은 시장에는 건축사는 아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를 찾아온 건축주들은 대부분 설계비가 아닌 공사비 얼마나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계를 해봐야 알겠조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은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내가 가진 3억으로 이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고민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예쁘고 안 예쁘고 가 먼저가 아니고,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메이저급에서 일을 하게 되면 견적을 안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재, 마감에 대한 재료를 디테일하게 적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지 않는 한,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사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교육을 건축사도 받았어야 했습니다. 건축사가 아무런 책임 없이 공공건물을 한다고 막 쓰는 겁니다. 대리석이든 뭐든, 자재마다 비용차이가 만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의 폭이 있는데 건축사가 그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건축주는 예쁜건물을 보면서도 맘이 계속 불안한 겁니다. 이것이 내 돈 안에서 지어질수 있을까 하고, 결국은 우리가 마케팅을 못한다는 거죠. 작은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그에 관한 경제적인 것을 잘 모르고 움직여서 수주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집장사를 욕했습니만, 요즘에는 우리가 시장을 모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10평 늘어나는 것에 따라 건축주들의 수익이 바뀌는 상황인데도 마케팅 쪽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디자인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진건축사의 경우도 작년에 마지막 현상이 포항이었습니다. 늦게나마 알고 참가하려 갔는데, 7천만 원인데 37명의 접수자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정익재 애로사항이 대부분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대표건축사인 분들은 좀 더 행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 외에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도 창업을 아직 못한 건축사가 많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축경기가 힘들고, 사실 수주에 따른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쉽게 창업하고 사무소를 운영할 엄두가 안 납니다. 일단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면 다들 고민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내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주라인을 확보한 것이고, 이어가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때는 창업의 고민도 많이 하고, 건축경기도 지켜보기도 하고 했지만, 막상 용기가 없어서 안주하고 있지만 지금은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굳힌 상황입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현상설계를 주로 하다 보니 항상 개선책을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상설계 참여를 많이 해본 발주처들은 금액 등에 맞춰서 제출하는 결과물의 양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이 없는 발주처들은 기존의 발주 자료를 복사하는 형식 등으로 설계요강을 작성하다 보니 제출 결과물의 양의 조절에 실패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한 구에서 1억 정도의 현상설계에 모형, 설명서, 조감도, 도면 모두를 제출하게 했는데, 금액을 맞추려면 인건비 빼고도 2~3천만 원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건축사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제출을 해도 확률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절한 설계금액과 제출물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현상에서 10억 미만이면 패널만 제출해도 충분히 심사가 된다고 봅니다. 패널의 조감도, 추가하면 설명서 정도. 그런데 패널, 설명서, 조감도, 도집 등등. 이는 거의 같은 내용을 짜깁기 하는 것 외에 낭비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경쟁이 더 치열해져 설명서나 도집도 메이저는 편집팀에서 더 좋은 퀄리티의 제출물을 만들어 내니 그에 따라 우리도 경쟁해야 하니 내부에서 소화가 안 되는 전문 편집팀을 이용하게 되는 등 추부가적으로 더 돈이 들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상설계 시 제출물을 설계금액에 맞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논의가 좀 더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할 듯 합니다.

장석진 박 건축사의 신진건축사 부분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신진건축사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양성한 건축사는 국가에서 보호육성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국민의 주를 책임지고 있고, 최고의 자격증을 준 대상입니다. 건축사는 단순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아서 먹고 살아아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을 국가가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역할을 부여해야지만 그들이 좀 더 나은 퀄리티의 주거나 건물을 설계할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 건축사의 마케팅 부분이 매우 공감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왜 모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자격을 갖고 있는 우리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교수들이 건축을 종합예술이라 가르치지만 종합은 없고 예술만 가르쳤습니다. 서클실에서 밤새 그림 열심히, 예쁘게 그리면 최대한의, 최선의 건축을 하기 위한 것

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종합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인간관계 등 별게 다 있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받아 안고 고민하고 건축이라는 예술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문제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설계금액과 제출물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현상에서 10억 미만이면 패널만 제출해도 충분히 심사가 된다고 봅니다. 패널의 조감도, 추가하면 설명서 정도. 그런데 패널, 설명서, 조감도, 도집 등등. 이는 거의 같은 내용을 짜깁기 하는 것 외에 낭비만 부추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주를 만나면 일부러 건축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상대방도 건축사란 표현을 따라 씁니다. 흔히 소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국한된 의미로 건축사라고 호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익재 PQ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건설기술인법이 바뀌어서 건축사의 등급이 초급밖에 안됩니다. 기사자격증이 없으면 중급, 고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기술사가 있어야 특급이 됩니다. 경력, 실적도 있지만 건축사의 등급, 기술등급, 행자부에 최근 개정된 것에도 기술등급이 들어가 배점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특급기술자 자격이 있던 분은 경력에 따른 등급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모두 특급이 되어서 문제를 못느끼겠지만, 젊은 건축사는 무조건 초급입니다. 따라서 그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공기술사를 따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채용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건축사가 설계를 하는 PQ를 하는 데 왜 시공의 등급이 필요하고 기사, 기술사가 필요하냐는 문제입니다. 또한 PQ 제도 중에 신기술, 특허 배점이 있는데, 건축사로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것, 신기술을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카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큰 회사들은 PQ점수를 맞추기 위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시공자재업체와 손을 잡는 등의 일이 발생합니다. 기존에 있는 대형 건축사사무소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점점 갈수록 후배나 신진건축사들은 도전할 수 있는 문이 좁아지는 상황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사부 특급 배점표를 보면 문제점이 확연히 들어납니다. 몇 년 전 바뀔 때 협회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줄 알았는데 언급 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술자 등급이 건축사에게 안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등급을 적용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설계자를 선정하는 다른 무언가를 PQ제도에 적용해야 합니다.

기술자제도에 따른 전기법에 따른 제도를 쫓아갈 것이 아니고, 애초에 건축사를 제외한 것은 기술자가 아니고 디자이너라는 판단에서였다고 들었는데,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대로 시공적인 등급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희선 PQ를 하려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5년간 얼마제곱미터 이상 수행했었던 기술자의 실적,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데, 큰 건물에서 발주처가 리스크를 앓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소형건물을 발주 했을 때는 직원 몇 명 이상, 연 매출 얼마 이상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에 관련된 보호법이 있는데 건축에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적이 없는 큰 회사는 참가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공서 일을 따지 수주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실적을 가질 수 없는 것인데 PQ에서도 반대로 작은 회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보완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소형마트 상권 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도 휴무일이 있는데 건축은 왜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정책이 없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대형회사의 직원은 본인이 설계한 건물을 개인의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작 설계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도 그 회사는 계속 그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불합리합니다. 오히려 기술자 위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떨까요.

정익재 우리 사무소도 학교건축물 등 중규모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PQ입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4억 이상은 PQ로 나오는데, 입찰하고 싶은데, 기술자 등급에 신기술, 특허 등등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당선 되는 곳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수주 하는 곳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규모도 힘든데 더 신진건축사분들은 더 힘들 것입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애로사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제 꿈과 희망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업을 버려나갈 수 있게 해주는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학창시절 가졌던 꿈이나 10년 후에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등의 여러 이야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박세희 처음 입사했을 때는 급여가 정말 적었습니다. 한 5년 고생하고 노력해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도 있고, 으쓱했죠. 면허 취득 후에 대해 가장 크게 느낀 것은, 4년차 때 미국 출장을 위해 비자발급을 하며 겪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비자발급 자체가 어려운 시기였는데, 급여가 너무 작아 비자 발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후에 건축사면허 취득 후 비자발급 때문에 대사관에 방문했는데 건축사자격 하나 때문에 바로 비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입국심사에서 그렇게 까다롭던 심사가 건축사라고 하면 추가 심사 없이 바로 통과 됐을 정도였습니다. 또 어떤 갤러리를 방문하였는데, 건축사라고 하였더니 대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부심을 느꼈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건축사가 될 꿈을 꾸게 된 이유는, 중고등학교 때 양로원 봉사활동을 하다가 멋진 양로원, 실버타운을 지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별반 지식 없이 건축과를 갔었죠. 건축을 선택하고 가장 좋은 점은,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보다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일반인보다 건축에 관하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계속 작은 힘이나마 우리나라 문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축사가 되자 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희선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어려운데요. 어쩌면 이게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건축사는 불만을 마구 말하면서 왜 꿈은 말을 못하는가. 어릴 때부터 주택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잠실아파트 1세대인데요. 아파트에 평생을 산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당을 지닌 집을 지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주택 일을 하고 싶습니다. 땅을 사서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도 좋고, 아직 제 집을 짓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집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살면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라는 생각도 합니다.

천국천 개인적으로 이미 건축사자격 하나로 이미 꿈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상적인 부분 때문에 퇴색했을 뿐이지... 어릴 적부터 놀이터가 건축현장이었고, 아버지가 건축 쪽에 종사하셨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건축을 시작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협회도 그렇고 많은 다양한 움직임들을 지켜보고 있을 때 희망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젊은 건축사들의 장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와 닿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협회를 자주 다니면서 여러 움직임들을 봤을 때 일단은 협회 전체가 발전을 하면 개인 스스로가 더불어 발전할 계기

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젊은 건축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만 줘도 소통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석진 꿈이라기보다 바람은,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과정들이 행복하지 않다 보니 결과적으로 행복한 집이 안 나왔고, 결국 건축주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건축사님들이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설계, 행복한 건축사로서의 사명감도 다 해주었으면, 그러려면 사회가 또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역할들을 건축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결과물들이 따라오고 경제적 이상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익재 건축은 학교에서 그 나라의 문화를 만든다고 배웠고, 어느 나라를 여행하던지 그 나라의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을 보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모든 건축사의 꿈은 내가 설계한 건축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쓰이고 인식이 되길 바라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제가 설계한 건축물이 모든 사람이 즐겁게 쓰고, 좋다고 평가해주는 그런 건축물을 계속 설계하고 싶습니다. 최근 준공한 공공시립도서관이 구리 쪽에 있는데, 거기도 평이 좋아서 인터넷 등에 보면 '잘돼서 애들과 놀러가서 놀았다' 등의 반응을 들으면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즐겁게 쓸 수 있는... 건축주가 한명이어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설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건축사의 인식조차도 많이 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건축사자격을 취득했을 때 집사람조차도 이 자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가 처음 시험보자마자 취득해서 그런지 누구나 딸 수 있는, 쉬운 자격으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결코 쉽게 딸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힘들게 취득하는, 사회적으로 전문가다운 인식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민경원 맨 처음 건축을 하게 된 계기는, 멋진 교회들, 교회다운 교회를 짓고 싶다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게 됐는데, 한 3일은 좋았습니다. 얘기를 키우면서 힘들게 합격했다는 사실이 참 좋았는데, 제가 대리였을 때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제 상사분들은 아무도 자격증이 없어서 눈치도 많이 봤죠. (웃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협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축사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득 후 지금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봄만 되면 학교를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대학원 밖에는 없더라고요. 이 건축사 이후에도 계속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상위 자격이나 학위등을 협회 측에서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세희 1급, 2급 건축사가 있다가 통합이 된 것인데, 통합되면 급이 올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떨어진 격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건축사의 위상을 올려야 해결되겠지요.

정익재 건축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받는 최고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업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그러다보니 자꾸 뭔가 더 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희선 홍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친구 만나서 명함에 건축사라고 하면, 친구가 '너가 집도 설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또 '너 상가도 할 수 있냐?' 이래요. 일반사람들이 이 업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시공인지 인테리어인지조차도.

정익재 협회에서 이 문제도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형 공공건축가 제도를 보면, 건축사

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 조치에서도 공공건축사를 모집하는데 '공공건축가'로 해외에서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포함되는 것은 좋은데, 최고의 자격인 건축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국가에서 인정한 최고의 자격. 최고의 자격 건축사가 존재하는데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이 자문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제도의 역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임희선 건축주를 만나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떤 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그 학교 교수님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장에 가보면 이게 그 학교 교수님이 지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함을 물어보면 제가 못 들어 본 본인 거예요. 아마도 강의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수님이 지어서 굉장히 멋있는 집이라는 거죠. 교수님이 지으면 작품이 나오고, 건축사가 지으면...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만들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러한 마케팅이 호응을 받으니 강사들도 교수인척 하면서 그런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이제는 협회가 이런 것을 젊은 건축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희 이제부터 협회에 바란다를 말하자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매우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외에도 계속 대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모임이 만들어지면서, 또 이런 젊은 건축사들이 한 40~50명이 모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을 듯 합니다.

계속 나온 얘기가 건축사의 위상입니다. 선배 건축사들이 문제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경제 발전시기에는 건축사는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는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건축사 자격이 있든 없든 잡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축가로 나오시는 분들이 더 유명합니다.

건축사지가 건축사를 위하거나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것이냐 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건축사 잡지 오지만 크게 신경 써서 안봅니다. 건축문화신문이 있어서 정책변화는 신문에 게재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건축사지는 일반인에게 다가가는 관점에서 만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건축사를 다루면서 일반 매체에서 하듯 건축사지 자체가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가서 건축사도 많이 알려지고 이 건물하면 누가 만들었다. 라고 알 수 있는,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살짝 열등감도 느끼는 것이, 이거 작품을 만들어서 텔레비전에라도 나가야 하나, 돈 내고 잡지에 내야 하나, 주부용 잡지 같은... 그런데 기자들을 만나 보니 정말 저희랑 다른 이상한 콘셉트로 만들어 내세요. 건축사지가 건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을 넣은 잡지책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진건축사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작년은 처음 시행하여서 소규모의 프로젝트만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이왕 신진건축사의 아이디어를 받겠다고 한다면, 바라고 싶은 점은 신진건축사의 역량을 못 믿겠다면 추후에 큰 조직이 실시설계를 지원할 수 있으니 신진건축사의 아이디어를 보겠다는 이슈가 될 만한 비증있는 규모와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당선된 건축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수는 많았지만 그 이후에 수상 건축사에 대한 홍보도 없었고, 공동주택이 됐지만, 다시 큰 건축사사무소와 협업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들은 신진건축사제도와 관련해서 협회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등에 건의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희선 몇 년째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시 공부했었습니다. 영국에는 RIBA가 대한민국의 KIRA와 같은 성격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도서관이요, 100년이 넘는 도서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건축도서를 사서 볼 때 주로 단행본보다는 잡지책을 많이 보는데 건축서점이 많이 없어지고, 온라인화 되어서 자료를 저장하고 볼 수 있는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생들을 보면 건축사협회 건물을 잘 모르고 방문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협회를 방문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이 도서관을 두는 것입니다. 부족한 홍보를 위해서라도 협회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자료들을 학생들이 방문해 자료를 찾고,

협회는 건축사들이 어떤 자료나 데이터를 얻어가기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좀더 건축사들이 많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도서관이 어렵다면 건축전문서점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

천국천 다가갈 수 있는 장, 모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명도 있는 건축사들이 협회로 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그런 분들을 끌어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면 좋았을 텐데,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 다른 협회 쪽으로 가고, 그래서 협회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중한 사람을 또 하나 뺏기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위원회 활동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 홍보해 주는 일들,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협회를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협회에서 청년건축사들을 위해 여러 가지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니까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모두가 공통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인재육성위원회도 여러 가지 같이 서울과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건축사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석진 협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원을 위하여 생각합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원을 위해서 대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해를 시켜줄 것이 있음 이해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정부와도 협의 할 것이 있음 협의하고, 요구할 것은 좀 강하게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 개개인은 힘이 미약하여 협회에 이러한 일들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익재 협회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의 생각이 협회에 잘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협회는 그런 경로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마련되면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좀 더 조화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식하는 부분은 같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나 나이가 있는 분들이나, 인식은 같은데 특히 젊은 분들은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소통의 경로가 잘 마련됐으면 합니다.

김형수 편집국장 2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건축사분들의 꿈과 고민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젊은 건축사분들은 미래의 우리 협회를 이끌어주실 분들이고, 또한 현재 협회를 이루는 중요한 세대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협회와 회원분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쁘중에도 이렇게 대담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설계자 | 정현화_KIRA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Tohoku대학교(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영남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및 국민대학교 건축대학의 겸임교수로 설계 스튜디오를 담당하였다. 주요작품으로 봉화군청사,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국립서울병원 등과 필당, 토함정사 등이 있으며 건축문화대상 우수상, 대구경북건축가상 등을 수상하였다.



설계자 | 임영수_KIRA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원도시건축에서 실무를 쌓았으며 2000년부터 (주)구간건축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이끌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국립서울병원, 토함정사 등이 있으며 강원도 경관우수건축상, 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설계자 | 박중성_KIRA | (주)구간건축 건축사사무소

국립서울산업대학교 건축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주)원도시건축에서 근무하였다. 2008년부터 (주)구간건축 파트너 건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작품으로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국립서울병원 등이 있다.

- 설계팀 : 서해진, 이민희, 김진희, 유희정, 홍창화, 성기웅, 전성주, 이은솔, 김주일, 고영빈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서울구조
 - 전기·기계·소방·통신설비 : 한일 MEC
 - 토목 : 무오엔지니어링
 - 조경 : 시원디앤씨

건축주 | 한림대학교 의료원

감리자 | 전인CM, PB KOREA

시공자 | 현대건설

대지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40번지

주요용도 | 의료시설(종합병원)/장례식장

대지면적(Site Area) | 21,877.20㎡

건축면적(Building Area) | 9,122.75㎡

연면적(Gross Floor Area) | 99,114.1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1.7%

용적률(Floor Area Ratio) | 223.12%

규모(Building Scope) | B3 - 1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일부철골구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 알루미늄쉬트, 화강석, DPG, 고성능 복합기능성 유리
내부마감 대리석, PVC비닐쉬트, 비닐페인트, 암면흡음텍스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06. 01 ~ 2010. 04. 3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8. 02 ~ 2012. 09. 15

사진(Photographer) | Chae, Su-ok

Client |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Architect | Chung, Hyun-hwa / Leem, Young-soo / Park, Jong-sung

Project team | Seo, Hye-jin / Kim, Jin-hee / Yu, Hee-jeong / Hong, Chang-hwa /

Soung, Ki-woong / Jeon, Seong-ju / Yi, Eun-sol / Kim, Joo-il / Goh, Young-bin

General Contractor | Hyundai Engineering&Construction

Location | 40, Seoku-dong, Hwaseong-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Seoul Architects&Structural Engineers Co.,Ltd.

HVAC & Electrical Engineer | HANIL MEC

Electrical Engineer | HANIL MEC

Civil Engineer | Muo Engineering co.,Ltd.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PVC sheet, Marble, Paint, sound absorption tex

Exterior_ Granite, AL sheet, D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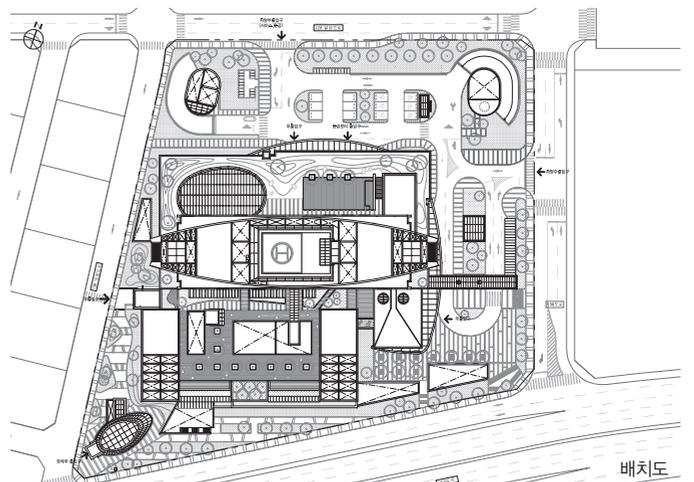
동탄신도시에 건립된 이 병원은 경기도 서남권지역의 광역병원으로 입지하는 동시에, 최첨단의 의료서비스를 갖추고 이 지역에 밀착하여 시민들에게 열린 지역중심의료시설이다.

800베드의 종합병원이 들어서기에는 비교적 협소한 20,000㎡의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아일랜드의 대지이었으므로, 주차는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하고 전체 배치계획은 기능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적극적인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하였으며, 유비쿼터스의 첨단 의료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센터화된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층 현관을 들어서면 높은 천정의 아트리움에 커피향 질은 카페테리아가 병원의 얼굴이 된다. 여기서부터 긴 호스피탈 스트리트로 동쪽 주 현관과 서쪽출입구를 연결하며 병원동선 및 평면구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호스피탈 스트리트에 면하여 2개의 중정을 두어 저층부 전체에 빛을 끌어들이고, 에스컬레이터, 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수직 동선을 구성하였다.

1~2층에는 응급의료센터와 영상의학과, 뇌신경센터, 근골격센터, 소화기센터 등 10개의 특성화센터 및 30개 진료과목의 진료실들을 배치하고, 모든 진료실은 외기에 면하여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3층에는 수술실, 심혈관 조영실, 중환자실 등을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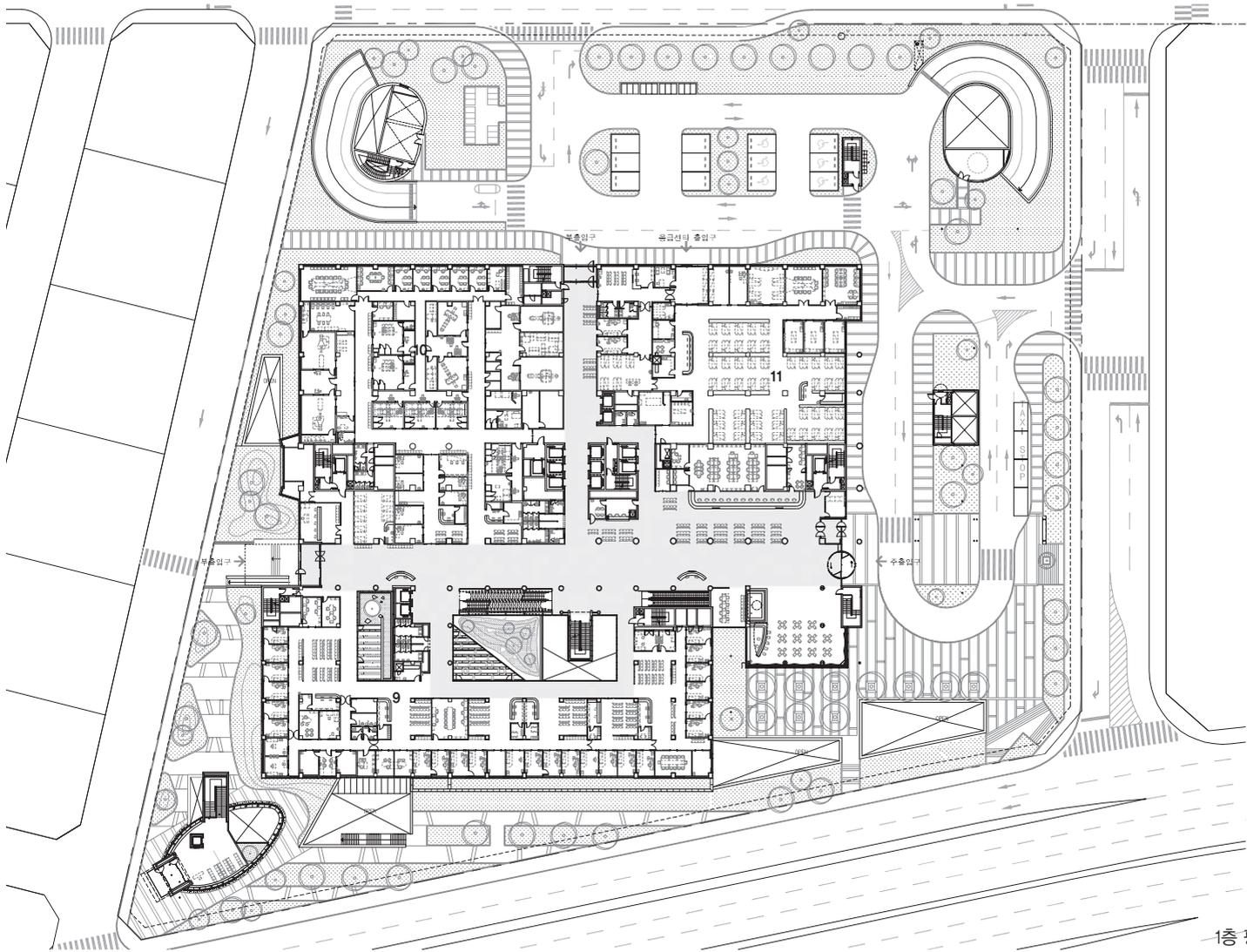
4층은 병원의 주요 행사가 열릴 강당과 함께 다목적실, 옥외행사장 등을 두고, 연속하여 넓게 펼쳐진 루프가든과 함께 병원 건너편 자연공원의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아메니티의 공간 층으로 하였다. 5~6층에는 행정부와 의국, 교수연구실, 7층에는 1인실과 VIP실을 두고, 8층~13층에는 병동부로서 각층에 2개의 너스스테이션과 3개의 데이코너를 계획하였다.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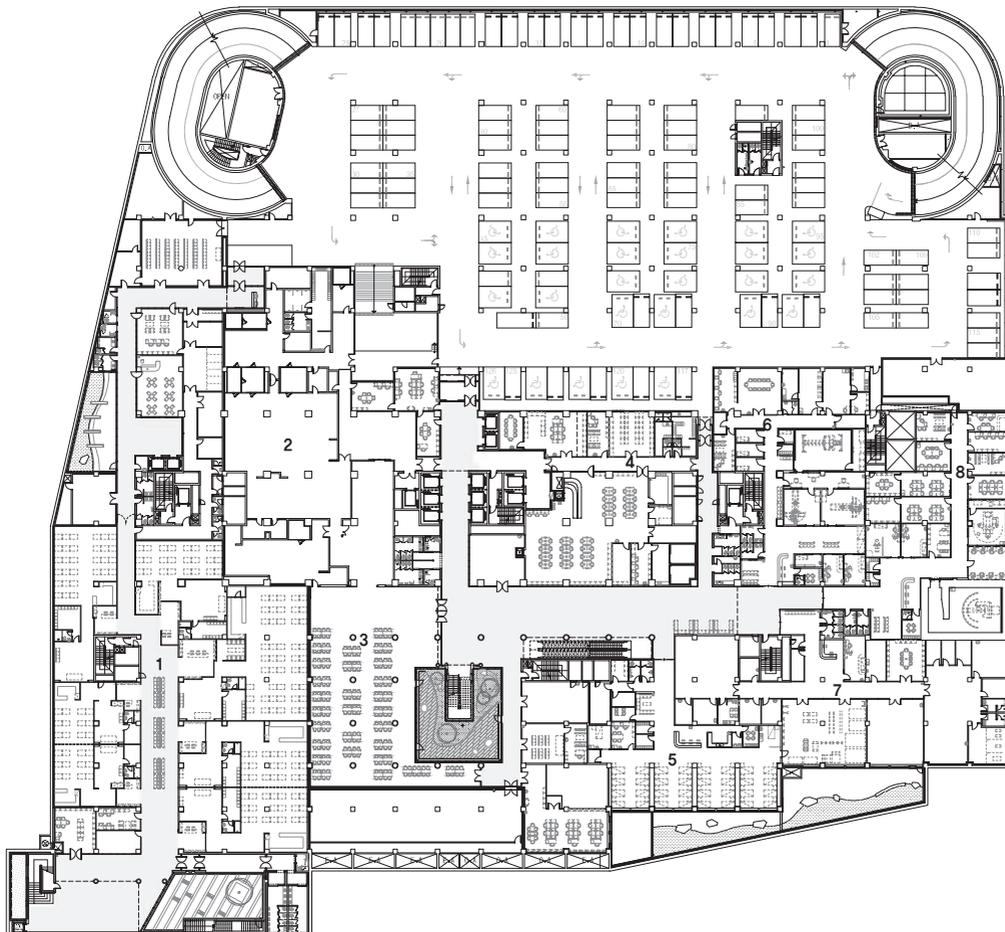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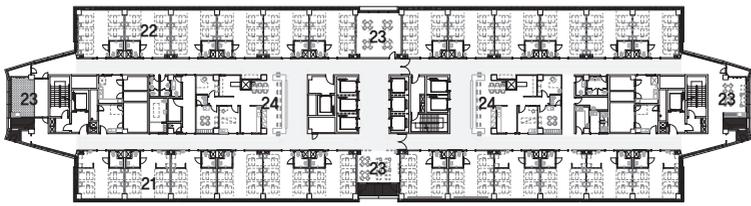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진료개시
☎ 031-8086-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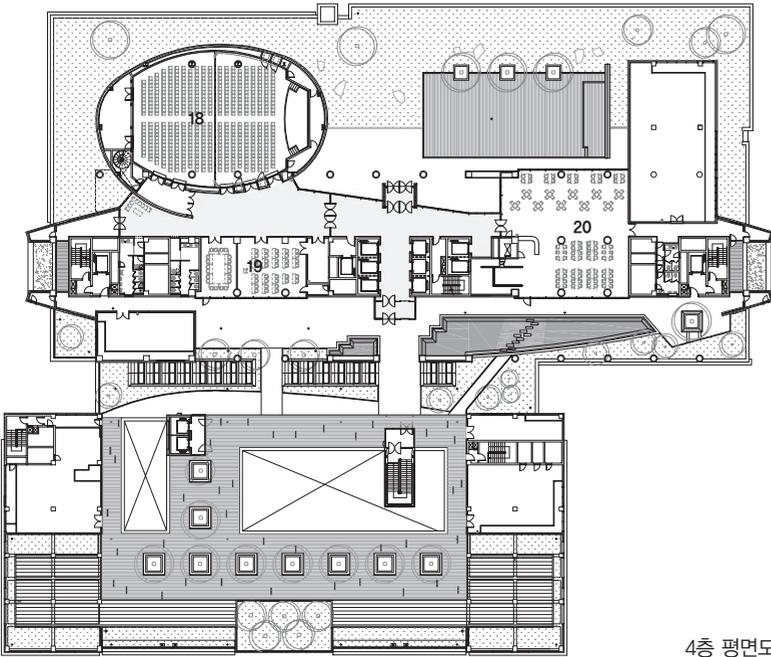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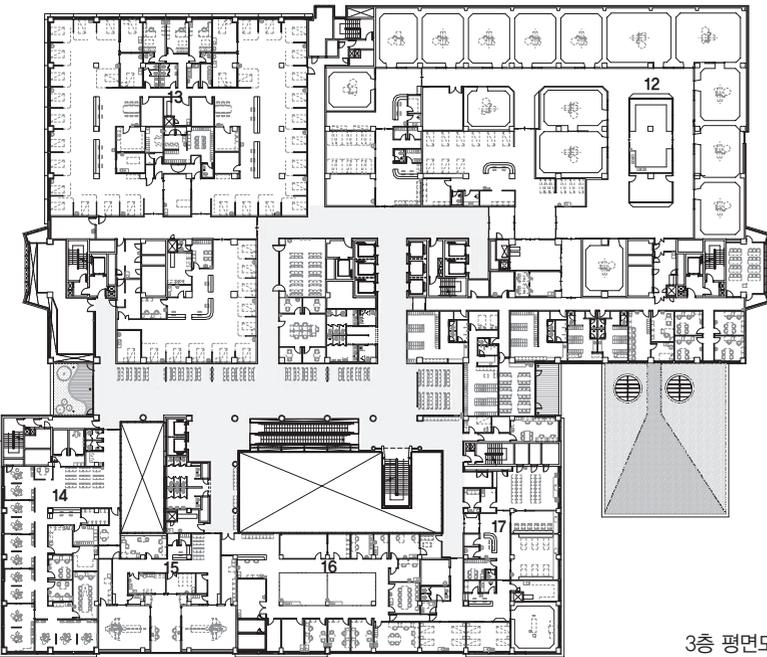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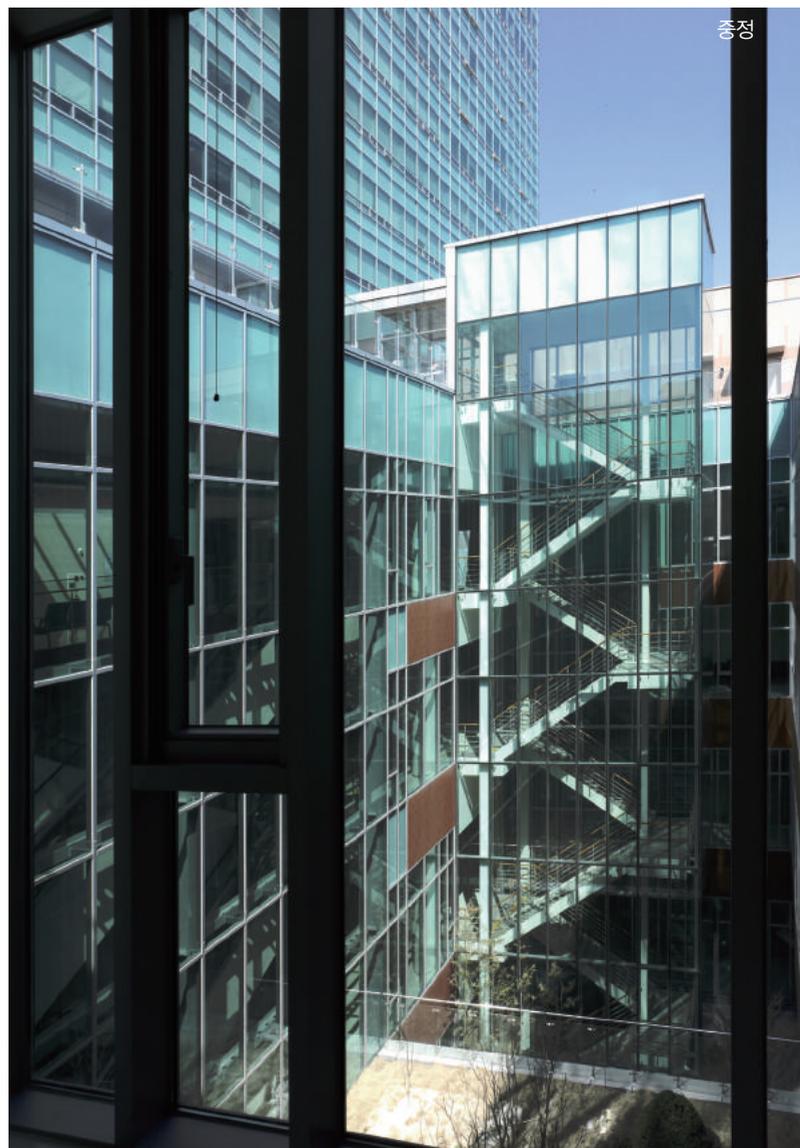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 | | | | |
|----------|------------|-----------|-----------|---------|
| 1. 근조부 | 6. 핵의학부 | 11. 응급의학과 | 16. 병리과 | 21. 4인실 |
| 2. 주방 | 7. 재활의학부 | 12. 수술부 | 17. 분만부 | 22. 5인실 |
| 3. 직원식당 | 8. 방사선종양학과 | 13. 중환자병동 | 18. 강당 | 23. 데이룸 |
| 4. 약제과 | 9. 외래진료부 | 14. 치과 | 19. 다목적실 | 24. N/S |
| 5. 인공신장실 | 10. 영상의학과 | 15. 심혈관센터 | 20. 카페테리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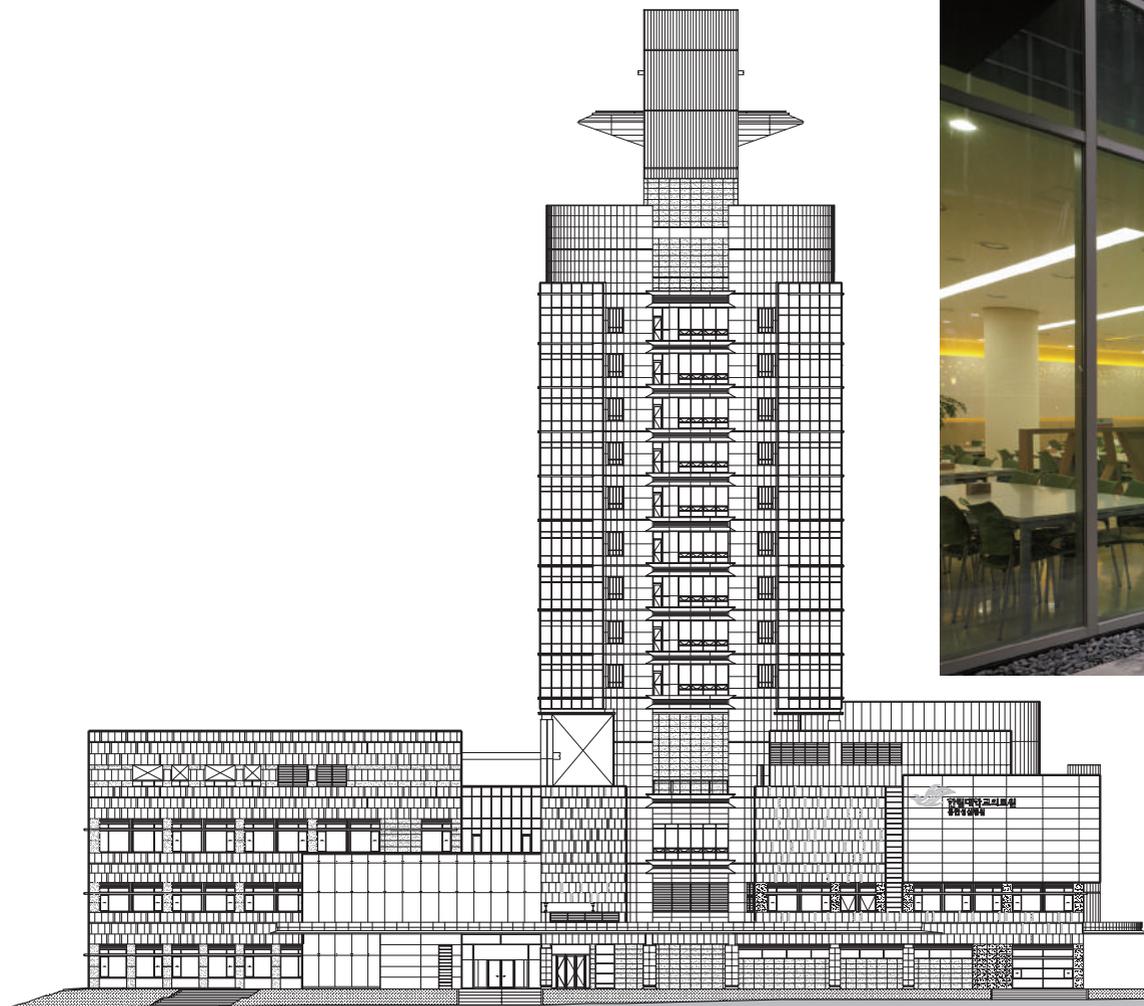
현관



층정



앞마당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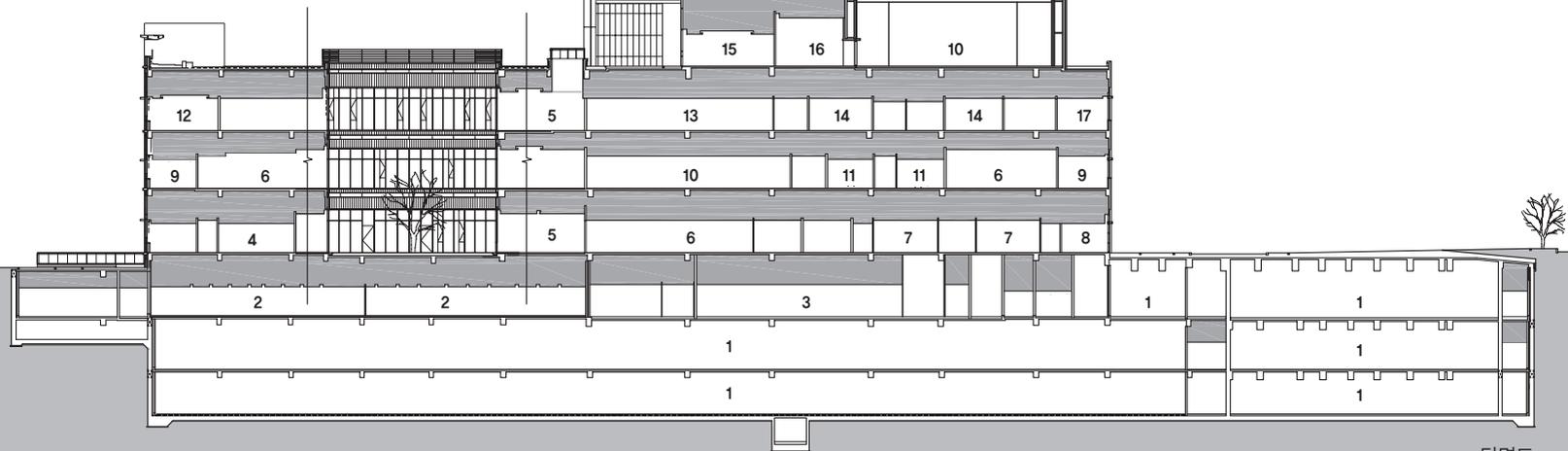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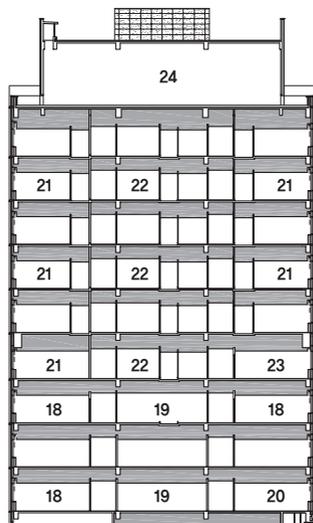


루프가든



선큰가든

- | | |
|--------------|-----------|
| 1. 주차장 | 13. 심혈관센터 |
| 2. 접객실 | 14. MICU |
| 3. 배선실/조리실 | 15. 다목적실 |
| 4. 협진실 | 16. 홀 |
| 5. 호스피탈 스트리트 | 17. 격리실 |
| 6. 대기 | 18. 교수실 |
| 7. 기계실 | 19. 회의실 |
| 8. 의사실 | 20. 레지던트실 |
| 9. 진찰실 | 21. 5인실 |
| 10. 다목적강당 | 22. 간호사실 |
| 11. 심장초음파실 | 23. 로봇치료실 |
| 12. ANG | 24. 공조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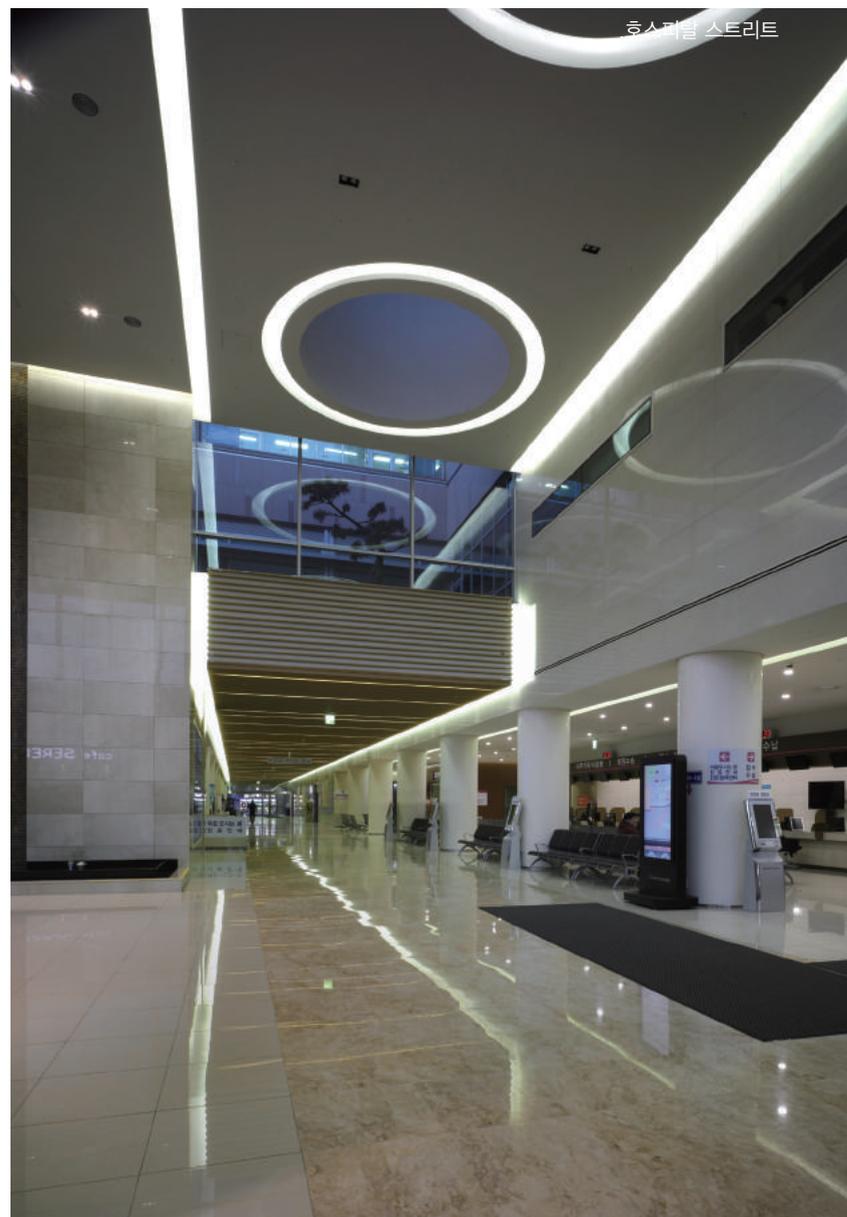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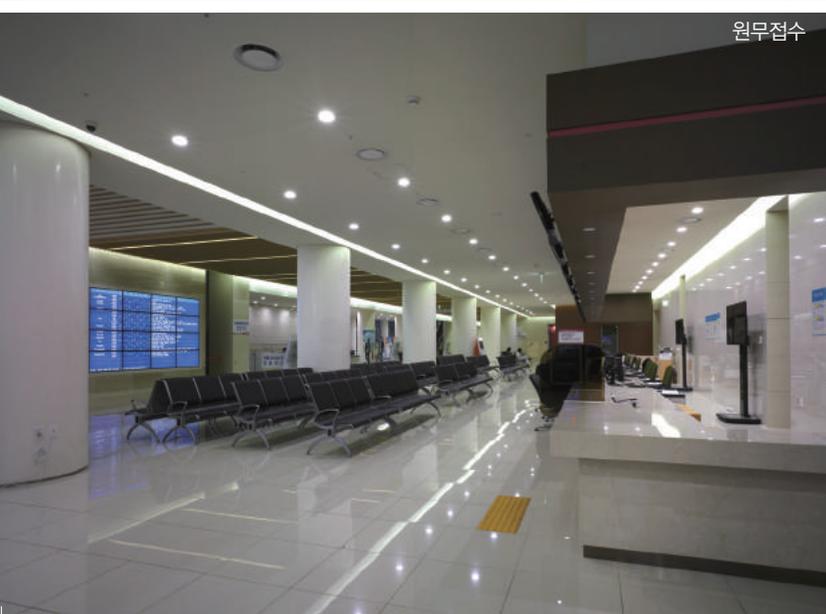
루프 라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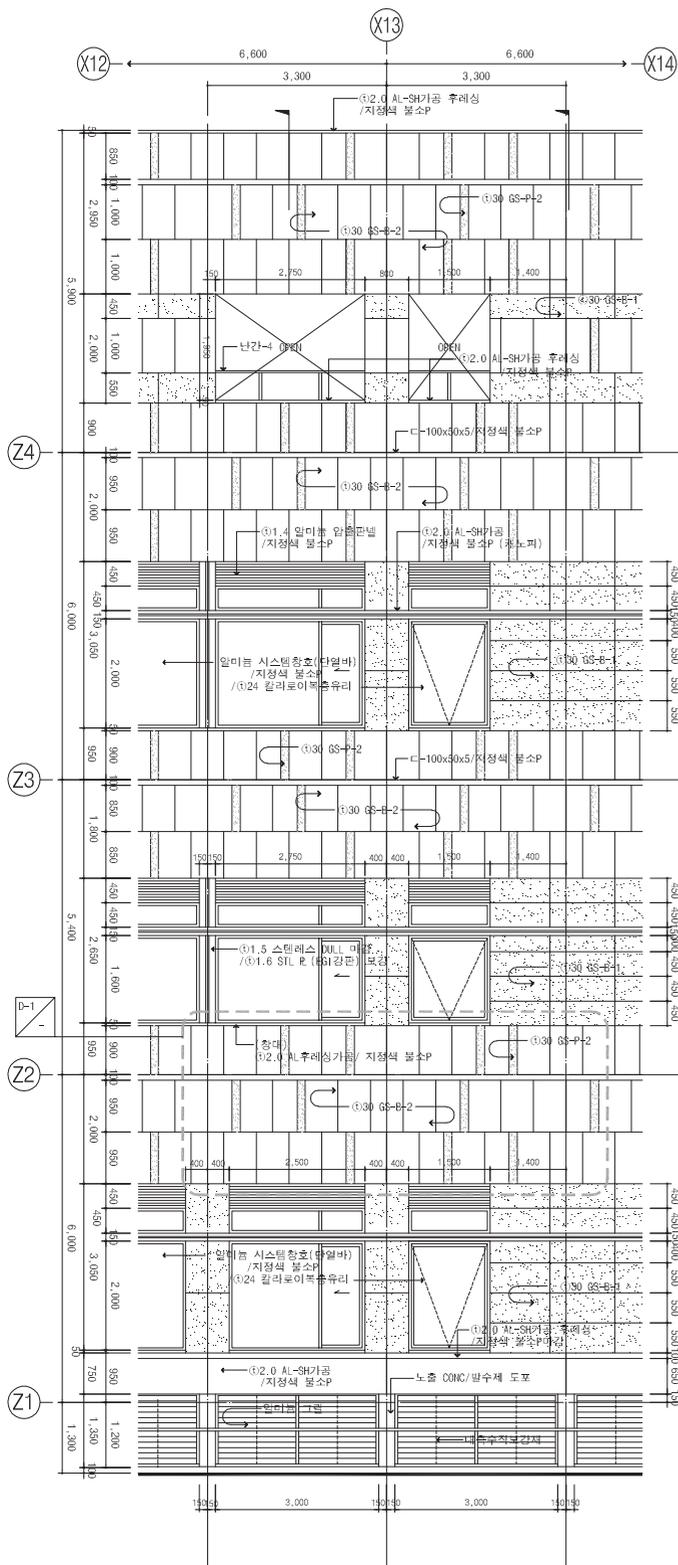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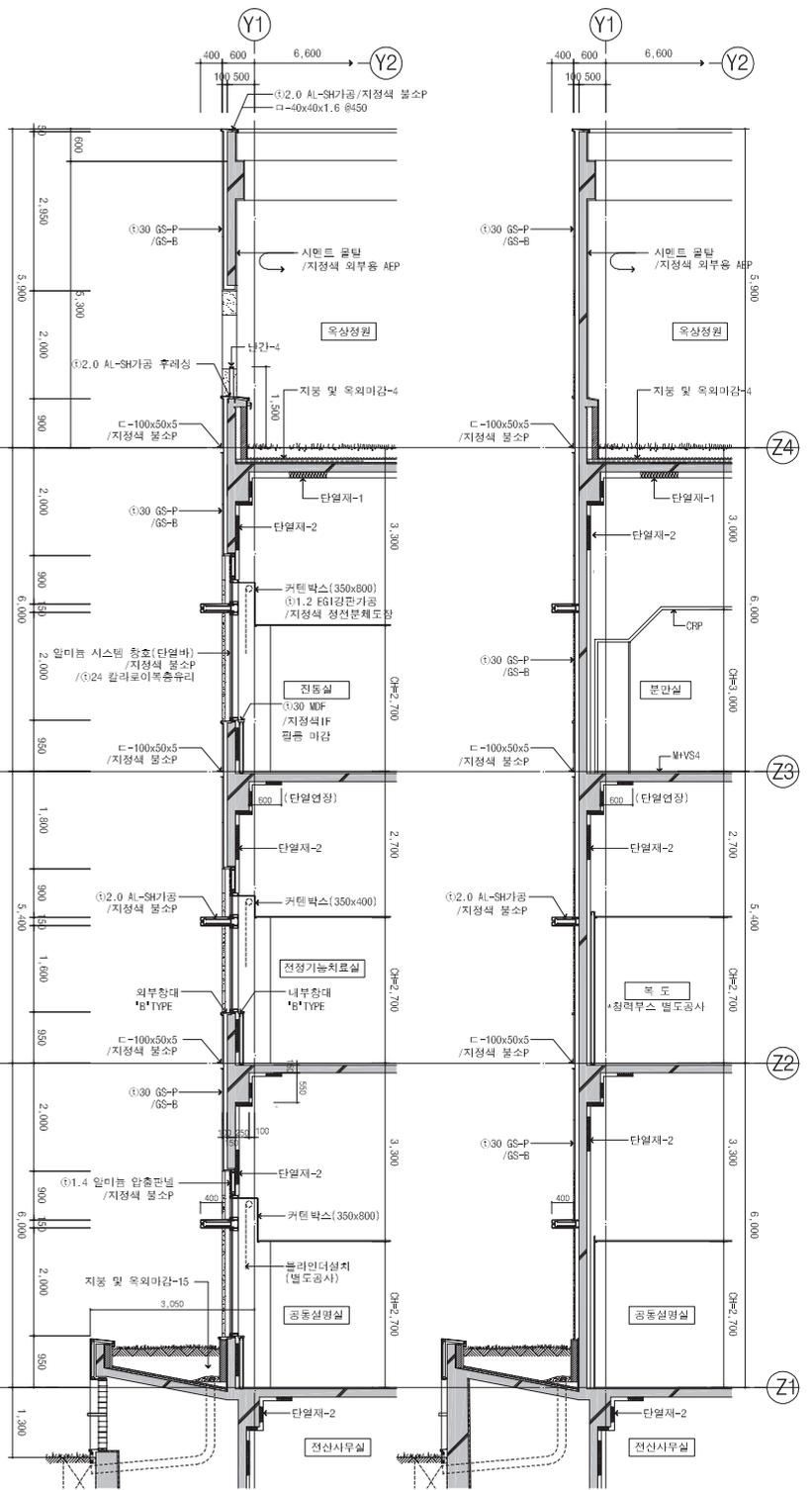
홍스리얼 스트리트



원무접수



입면 상세도



외벽단면 상세도



너스 스테이션



병실

WORKS

남원 스위트 호텔
NAMWON SWEET HOTEL





남원스위트 호텔



설계자 | 한종률_KIRA |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에서 Master of Architecture 를 취득했다. 현재 (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으로, 대외적으로는 한국건축가협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서울시립 미술관, 명동예술극장, 금호아시아나본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대구 오페라하우스, 서울시사천연수원, 강북시립미술관 등이 있다.

- 설계팀 : 이상화, 김우영, 이종준, 황성주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경재구조 엔지니어링
 - 설비분야 : 일송엔지니어링
 - 토목분야 : 새길이엔시

건축주 | 교원 그룹

감리자 |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삼성물산

대지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주천면 용담리

주요용도 | 숙박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50,158㎡

건축면적(Building Area) | 4,203㎡

연면적(Gross Floor Area) | 10,85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8.38%

용적률(Floor Area Ratio) | 16.52%

규모(Building Scope) | B1 - 4F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지알로 메디(석재), 아줄그레이(석재), metal panel
내부마감-나무(Wood), 석재(Stone), 카펫(Carpet)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9. 06 ~ 2010. 03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06 ~ 2012. 03

Client | KYOWON group

Architect | Hahn Jong-R.

Project team | Lee, Sang-hwa / Kim, Woo-young / Lee, Jong-june / Hwang, Sung-zoo

General Contractor | Samsung C&T Corporation

Location | Yongdam-ri, Jucheon-myeon, Namwon-si, Jeollabuk-do, Korea

Structure | S.C + R.C

Structural Engineer | Kyungjai Structural Engineers

HVAC & Electrical Engineer | Il Song Engineering

Civil Engineer | Saegil Engineering & Consulting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Wood, Stone, Carpet

Exterior_ Metal 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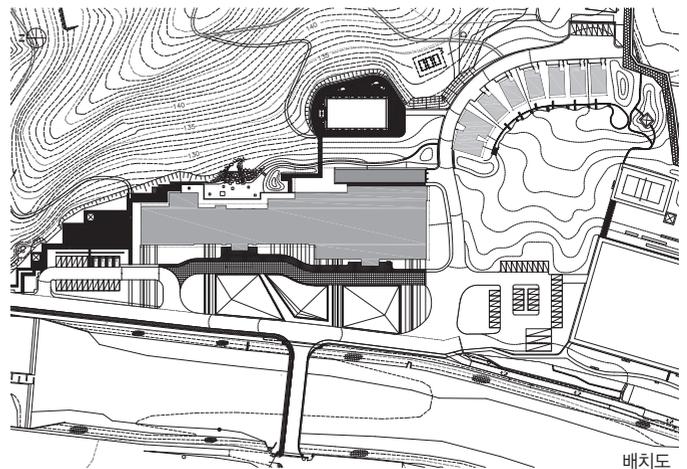
남원은 예로부터 “천부지지 옥야백리(天府之地 沃野百里)”라 하여 ‘하늘이 고을을 정해준 땅, 비옥한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으로 택리지에 기술되어 있으며, 황금의 땅이라 불리어진 이곳에 변하지 않는 가치와 품격을 담은 건축물을 계획하고자 했다. 천혜의 자연을 담은 부지에 밝게 빛나는 조각들을 흠뻑 배치하여 자연 속에 동화되면서도 특별한 공간들을 선사할 수 있는 명품 호텔을 제안했다.

단정한 형태의 호텔 주동을 라임스톤으로 감싸 안아 전체적으로 황금 조각 형상의 모티프를 표현함과 동시에 연회장 매스에서 기울어진 벽과 사선 패턴의 어휘를 사용하여 주동과 조화될 수 있는 크리스탈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게스트 하우스는 연회장과 동일한 조형 어휘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유도했으며, 마치 자연속에 리드미컬하게 흠뻑려져 있는 결정체를 형상화 했다. 인테리어디자이너는 건물 외부의 디자인 요소를 실내에 접목하여 방향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고, 각 시설로 연결되는 이동 동선에는 공간의 기대감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도록 했다. 인테리어 재료들은 내추럴한 마감과 컬러를 사용하여 안락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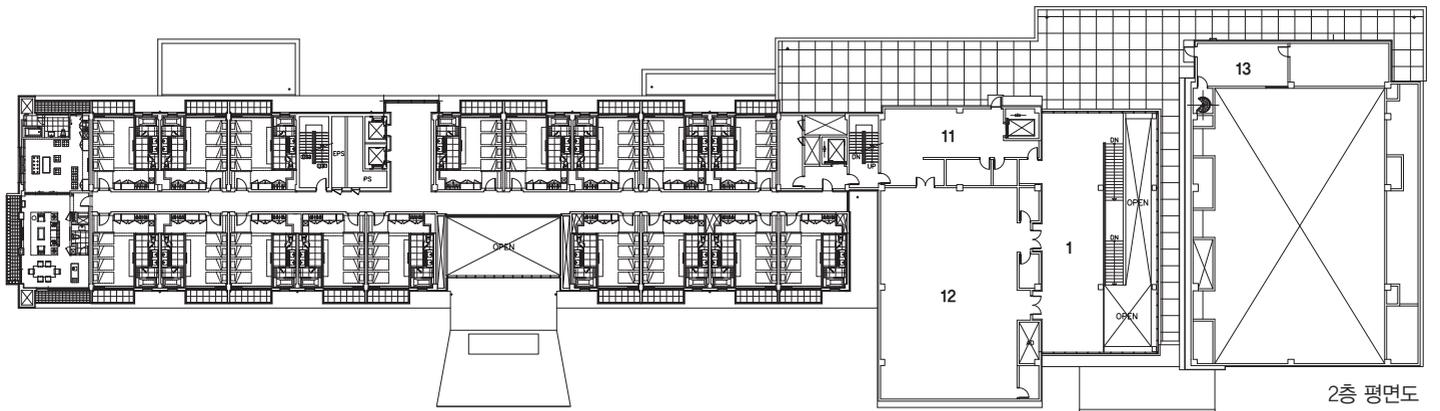
Namwon is described as “a heavenly blessed place with vast fertile lands” in Taekrigi, a historic geography document of the Chosun Dynasty. This site, often called the “golden land,” will be a setting for architecture of everlasting value and quality. A luxury hotel is reflected in illustrious sculptural pieces scattered around on a site of natural beauty, which blends with nature and offers unique spaces. The simple form of the main hotel building is clad in limestone creating a golden sculptural motif while the banquet hall incorporates a language of slanted walls and diagonal pattern. This ensemble creates a harmonious image of crystals. The guesthouse also incorporates this formal language to bring unity to the entire project, thus giving the impression of crystals scattered in nature.

The exterior design elements are reflected in the interior to maintain a sense of continuity and direction. The circulation between spaces is designed to heighten anticipation while preserving privacy. Strategic material use of natural finishes and color creates a cozy and high-quality environment in the interio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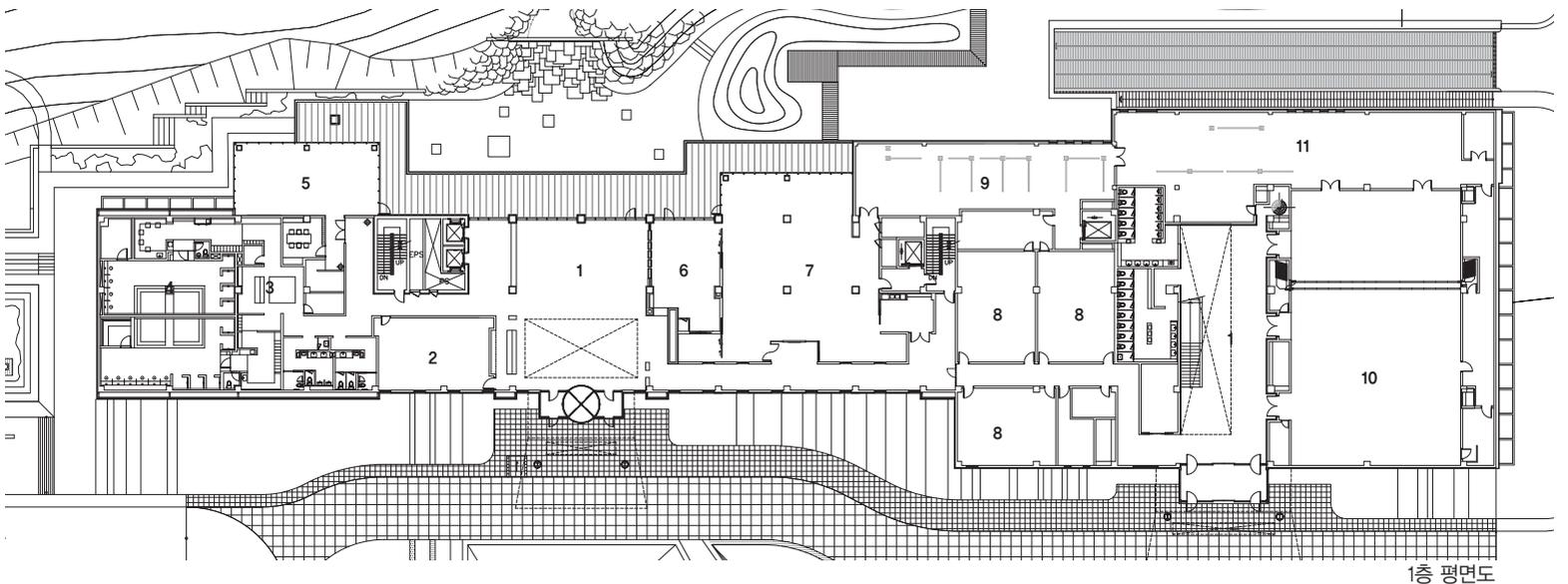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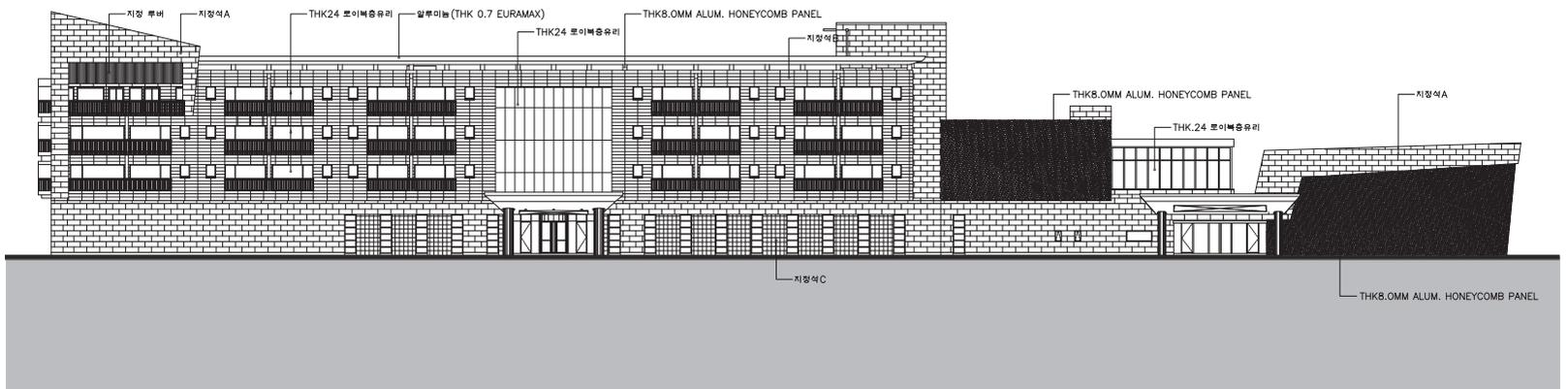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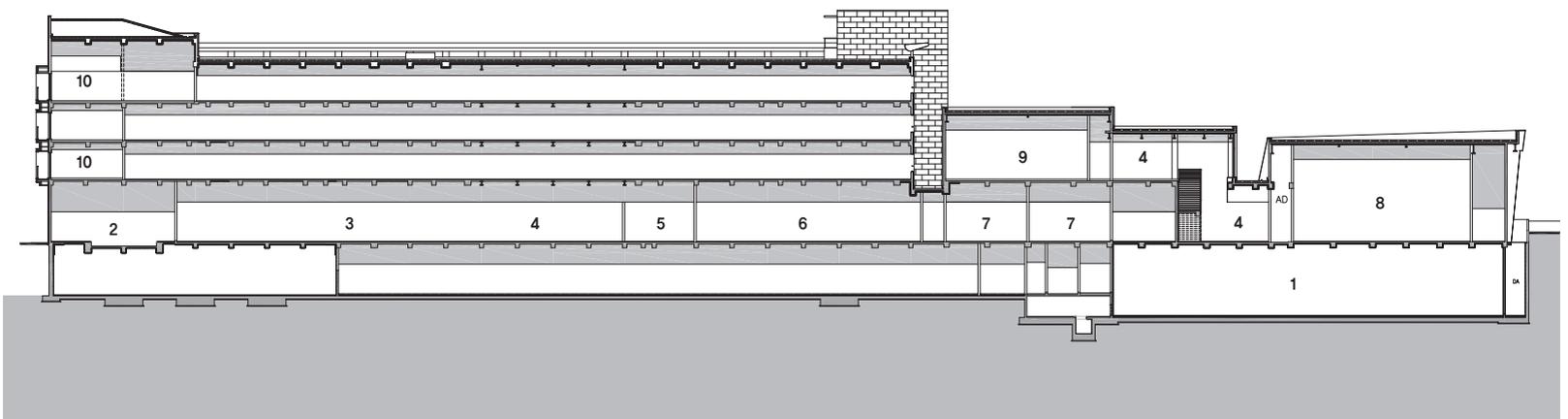
- | | | | | |
|---------|--------|---------|--------------|---------|
| 1. 로비 | 4. 사우나 | 7. 식당 | 10. 대연회장 | 13. 조정실 |
| 2. 사무실 | 5. 바 | 8. 소연회장 | 11. 저장실 및 창고 | |
| 3. 리셉션장 | 6. 카페 | 9. 주방 | 12. 중연회장 | |





정면도

- | | | | | |
|--------|-------|-------|---------|---------|
| 1. 기계실 | 3. 복도 | 5. 카페 | 7. 소연회장 | 9. 중연회장 |
| 2. 사우나 | 4. 로비 | 6. 식당 | 8. 대연회장 | 10. 객실 |



주단면도

판교 U-HAUS 579-3

PANGYO U-HAUS 579-3



설계자 | 정승이_KIRA | 유한 건축사사무소

서울과학기술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현재 유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한국토지공사 '아름다운 우리집' 우수상, 인천건축상을 수상하였고, 일산, 교하, 상동, 판교주택 다수, 화정어린이도서관, 스타타워 등이 있으며, 그동안 주택 경험을 토대로 살기편한 주거공간 U-HAUS를 선보이고 있다. www.u-haus.co.kr

- 설계팀 : 양용석, 고하동, 장재두
- 전문기술협력
 - 전기 · 기계설비분야 : 세원엔지니어링

건축주 | 조성철

감리자 | 손경애(디엘 건축사사무소)

시공자 | 조성철

대지위치 |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579-3

주요용도 | 단독주택-1가구

대지면적(Site Area) | 226.5㎡

건축면적(Building Area) | 111.39㎡

연면적(Gross Floor Area) | 288.09㎡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49.18%

용적률(Floor Area Ratio) | 89.51%

규모(Building Scope) | B1 - 2F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라임스톤, 칼라강판, 고흥석물갈기, 멀바우
내부마감_바닥:대리석, 벽:페이트마감, 수입타일마감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8. 03 ~ 2013. 12. 30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3. 14 ~ 2012. 11. 21

사진(Photographer) | Byeon, Jong-seok

Client | Jo, Seong-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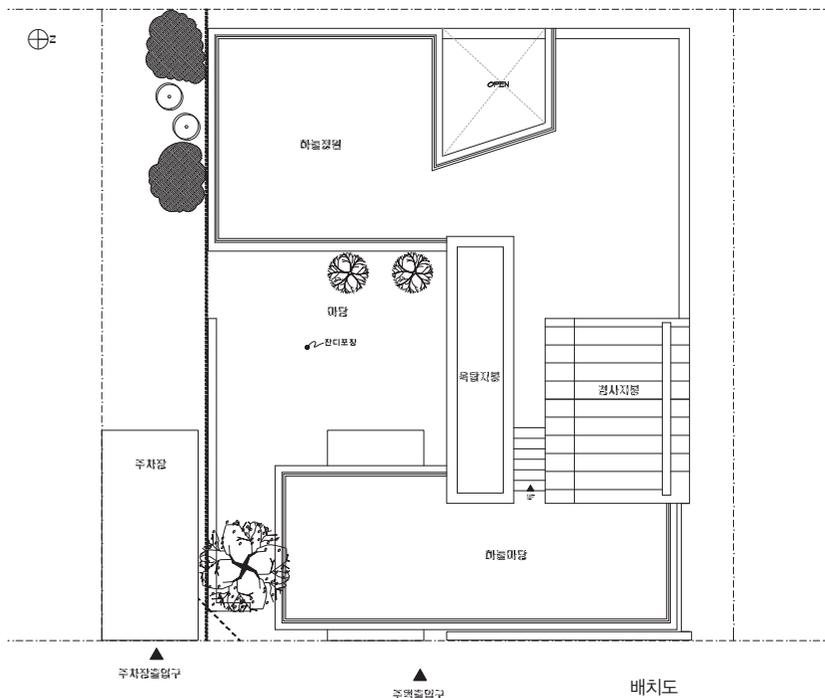
Architect | Jung, Seung-yi

Project team | Yang, Yong-seok / Ko, Ha-dong / Jang, Jae-du

General Contractor | Jo, Seong-cheol

Location | 579-3, Pangyo-dong,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C





도로면에서 바라본 전경

대지이야기 - 서판교 초입에 위치한 이 대지는 주변 여건이 좋으며, 대지의 서측으로 보행자 도로와 공공청사 부지가 있으며, 현재는 운동장으로 사용 중이다. 열려 있지만 보행자의 시선처리와 대지 보다 1.5m 가량 높은 위치의 운동장 이용객에 대한 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남측은 인접지가 있으나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며 북측으로 2층 목조주택이 들어서 있는 토지이다.

배치계획 - 전면도로에 면하여 현관과 주차장 진입이 위치하며, 판교지구의 2.5m 외부공유부지 확보로 인해 주차장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 현관의 위치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 가운데 마당을 사이로 주택의 공용부를 위치하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2층으로 주거 부분을 배치하였다.

평면계획 - 동측과 서측으로 2면 도로에 면하여 있으며, 남측으로 2.5m 건축지정선으로 확보된 외부공유부지를 사용하여 통행 및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해 주차장과 연계한 곳에 현관을 위치시키며 포치(porch)를 통한 진입을 설정해 현관을 들어서게 한다. 스킵플로어 형태의 이 주택은 내부의 수직 동선을 축으로 바닥차이를 두어 공용공간과 침실 영역을 분리시켜 프라이버시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주부의 관리 동선은 안방에서 주방 영역까지 반개층 사이로 분리시키고, 동선을 단축시켜 가사로 인한 고층을 해결하게 된다. 안방은 1.5층에 위치하며, 반개층 위로 자녀의 침실을

계획하여 부모와 자식간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1층의 공용공간으로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동선을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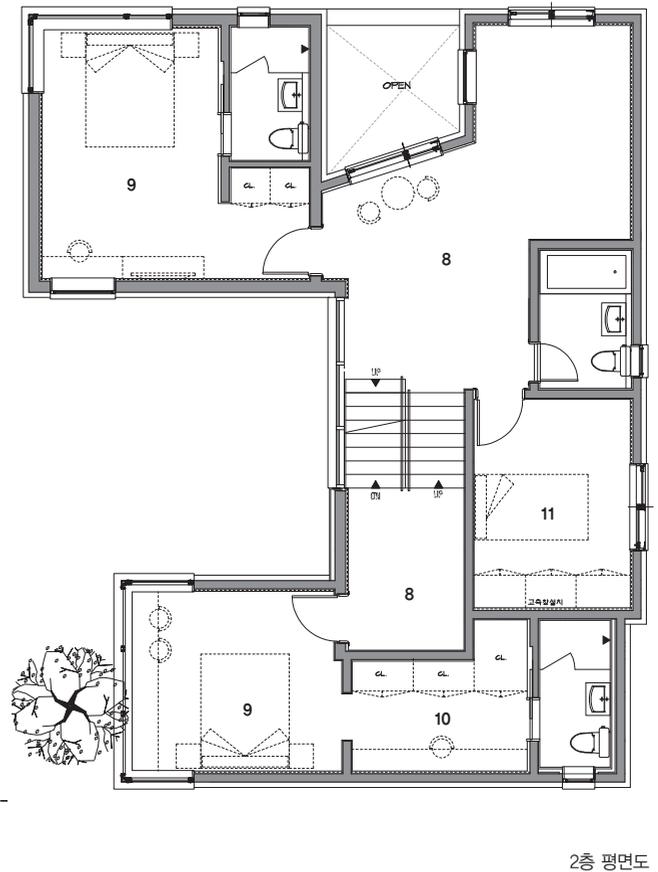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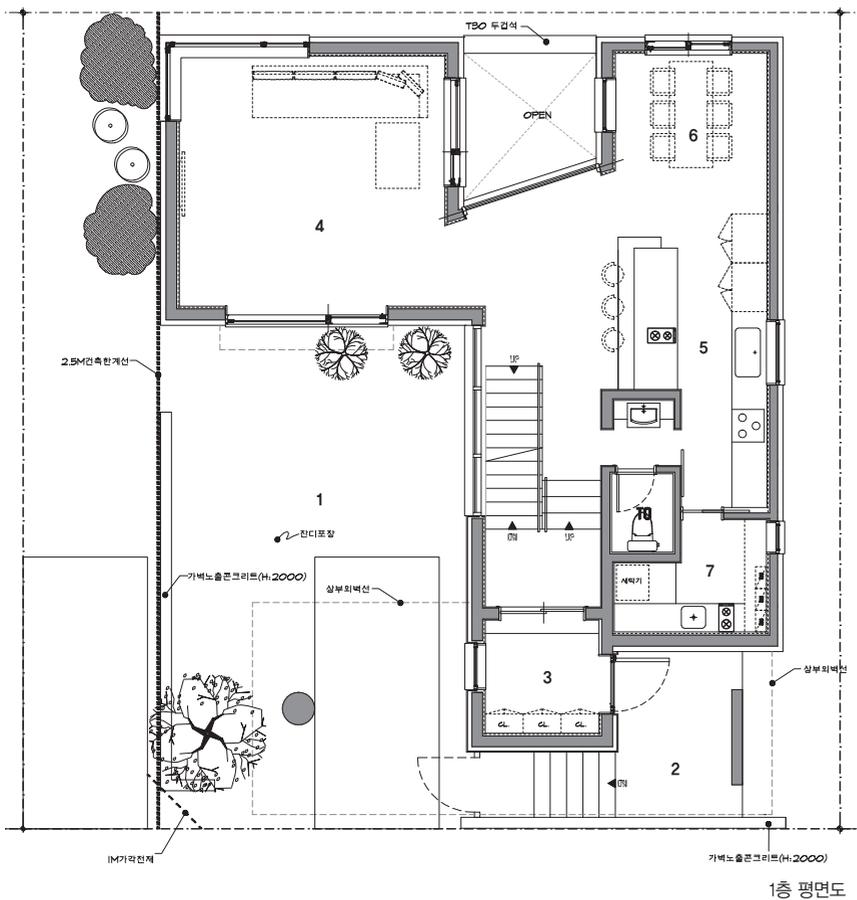
마당을 중심으로, 계단과 공용부(거실,주방)를 교차하여 주택 내부에 항상 밝은 빛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거실에서 마당을 지나 도로 사이에 1.5층의 안방을 구성하여 보행 시선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스크린 기능의 매스를 만들고 하부공간은 마당의 확장영역으로 사용하여 거실 공간에서 편안하게 외부를 조망할 수 있다. 남서측의 외부조망은 멀리 산이 보일 수 있는 조망권을 제공하며, 인근 운동장 이용자의 시선처리가 고민되어 거실 한켠에 코너 창을 설치하여 조망뿐만 아니라 남향 빛이 거실 깊은 곳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주택에는 한 가지 특별한 공간이 있다. 선근을 통한 자연 채광이 가능한 지하공간을 계획하며, 거실을 지면에서 약간 띄워 지하층을 지면에 일부 노출시켜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였다.

입면, 재료계획 - 입면의 형태는 심플한 이미지를 선호하시는 건축주분의 특성을 고려해 모던하면서도 밝은 이미지를 구축하며 흰색 인조라임스톤을 사용해 깨끗하면서도 심플한 이미지를 구성하고, 마당과 현관부의 가벽설치와 전면부 안방 매스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기능적인 측면과 디자인이 동시에 고려된 형태로 이미지를 구축하였다. ㉮



도로면에서 바라본 정면

- | | | | |
|----------|-------|---------|-------------|
| 1. 마당 | 4. 거실 | 7. 다용도실 | 10. 드레스&파우더 |
| 2. PORCH | 5. 주방 | 8. 홀 | 11. 침실 |
| 3. 현관 | 6. 식당 | 9. 안방 | |





인접대지에서 바라본 측면



보행자 도로에서 바라본 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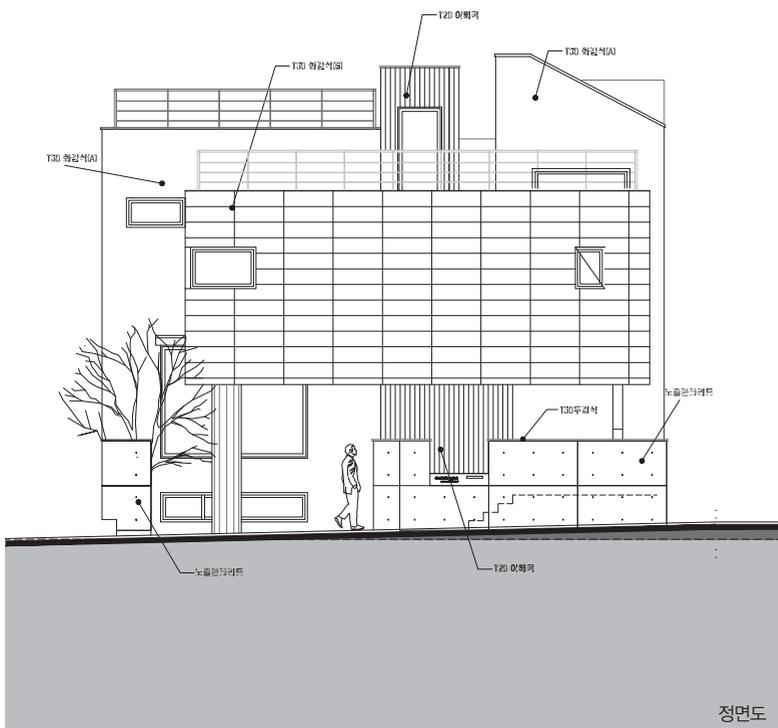
비면의 선긋 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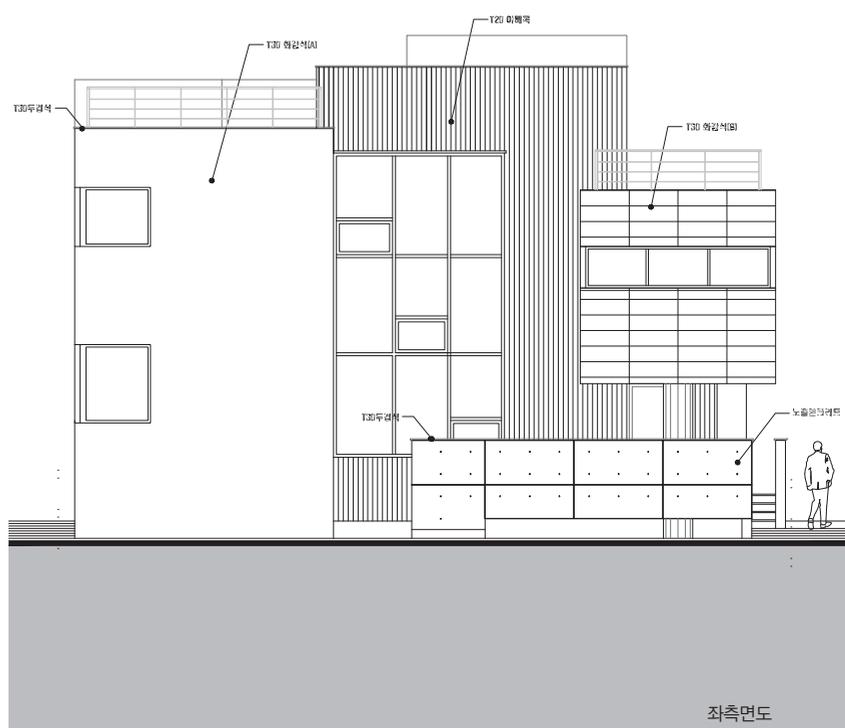
내부마당에서 바라본 가벽



내부마당 전경



정면도



좌측면도

건국대학교 GLOCAL 캠퍼스 i-SMART 창업보육센터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I-SMART BUSINESS INCUBATOR



설계자 | 이만수_KIRA | (주)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이만수 건축사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바로건축과 범건축, (주)해안건축 등에서 근무 했으며, 여주대학 건축과에서 약 8년여간 건축설계를 강의한 바 있다. (주)건축사사무소 UOS를 설립 후 대표 건축사로 재직 중이다.

- 설계팀 : 박종일, 박상혁, 안한주, 박수영, 이선, 선백환 + 이정섭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하이구조
 - 기계, 전기분야 : (주)건창기술단
 - 토목분야 : (주)대영 이엔지

건축주 | 건국대학교

감리자 | (주)건축사사무소 유오에스

시공자 | 고양종합건설(주)

대지위치 | 충청북도 충주시 단월동 322번지 일대 건국대학교 교내(충주캠퍼스 남동측)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Site Area) | 348,503㎡

건축면적(Building Area) | 1,251.00㎡ (증축부분)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78.00㎡ (증축부분)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0.35% (증축부분)

용적률(Floor Area Ratio) | 0.72% (증축부분)

규모(Building Scope) | B1-4F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화강석, THK24복층유리, THK0.7징크패널
내부마감-화강석, 비닐계타일, 수성페인트, 석고텍스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1. 09. ~ 2012. 01.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2. 02. ~ 2012. 10.

Client | KONKUK UNIVERSITY

Architect | Lee, Man-su

Project team | Park, Jong-il / Park, Sang-hyeok / An, Han-ju / Lee, Seon,
Park, Su-yeong / Seon, Baek-hwan + Lee, Jeong-seob

General Contractor | Goyang Construction

Location | 322, Danwol-dong, Chu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HI Structural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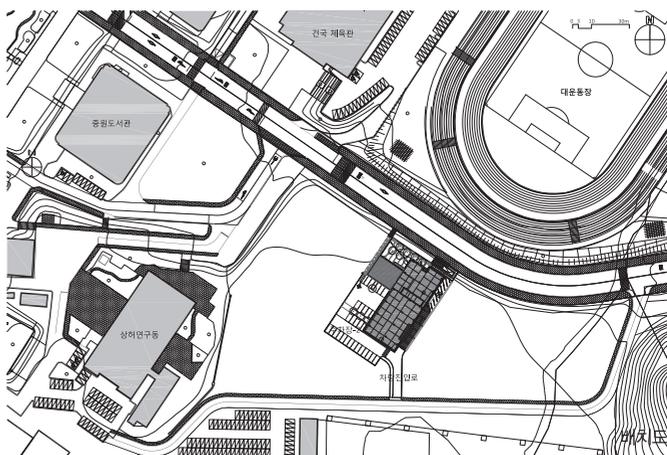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 KUNCAHNG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KUNCAHNG Engineering

Civil Engineer | DAEYOUNG ENG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Granite, Pvc-tile, Water-paint

Exterior_ Granite, Fair-glass, Zinc



학교의 중앙에는 도서관이 있다. 이 건물은 공룡처럼 서 있다. 정문 쪽에서 보면 건물 뒤로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위용으로 마치 600년 된 은행나무처럼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고 자신의 영역을 아주 고집스레 지키고 있다. 어쩌면 이도 학교의 한 역사이리라. 양식이야 유행이 있다 하더라도, 지형이나 주변과의 소통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다. 도서관 뒤에는 예측하지 못한 풍경이 존재한다. 학교를 관통하는 주 통행로 우



측에 도로보다 4.5m 낮은 레벨의 나대지(그아말로 방치된 땅)가 나타나는데 바로 이곳이 창업보육센터의 Site이다. 캠퍼스 내에 이렇게 버려진 땅이 있다는 것은 바늘 하나 꽃을 여지가 없는 도심지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 짝이 없을 노릇이지만, 계획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망막할 따름이다. 학교설립 당시 경사진 대지를 조성하다보니 절성토가 이루어졌던 것 같다. 대지와 도로와의 단 차이 4.5m... 학생들의 접근을 거부하며 날 그냥 내버려둬라고 소리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다.

도서관과 Site를 보면서 단절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다. 이곳에 어떤 건축을 해야 하나?

[필로티] 일단 보행자의 시선에서 보이는 풍경을 가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웬지 새로 들어설 건물로 인해 학교 너머 있는 낮은 산등성이와 하늘을 시야에서 지우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건물을 지면에서 띄워야 겠다.

[소 통] GL-4500 레벨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공리하기 시작했다. 관리영역과 주출입구를 낮은 쪽에 넣기로 하고, 주변건물과의 관계를 설정해 보았다. 지금 상태론 虛(허)하지만, 앞으로 들어설 강의동과 기존 실험동과의 외부공간 흐름을 꼼꼼하게 따져보며 배치와 출입구의 방향을 결정해야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 같다.

학교에 들어서는 사무실... 중소기업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물을 짓다보니, 세 부면적에서부터 공사비, 공기에 이르기까지 조건이 까다롭다. 사무실로 쓰이는

전용부분을 3.4층에 알뜰하게 모아서 올리고, 중복도로 계획하여 전용율을 최대한 높이기도 하였다. 대신 1층과 2층에는 대지의 단차이를 이용하여 2개 층 모두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관리 및 공용공간으로 할애하였다.

단정한 입면에 풍요로운 공간이 있는 건물을 만들고 싶었다. 작은 예산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시도였으나, 나의 욕심과 학교 측의 결단이 합세하여 사진과 같은 건물을 탄생시켰다.

짧은 공사기간(10개월)이었지만, 설계한 건물을 감리할 수 있어 행복했다. 마치 커가는 자식처럼 한층 한층 올라가는 건물을 보니, 기대감과 두려움이 쏠린다.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귀찮거나 싫지 않았던 것은 어느 순간부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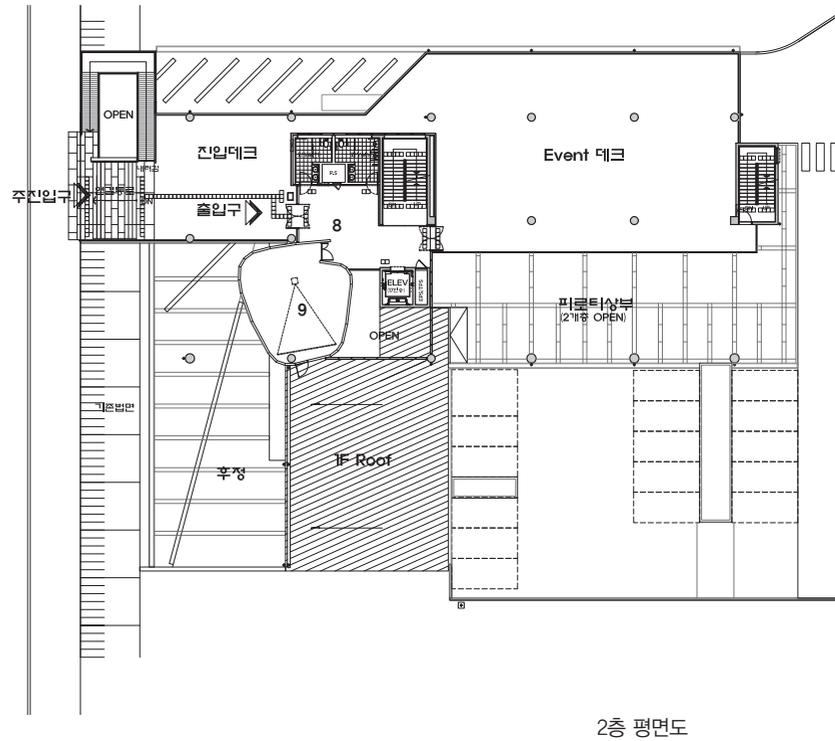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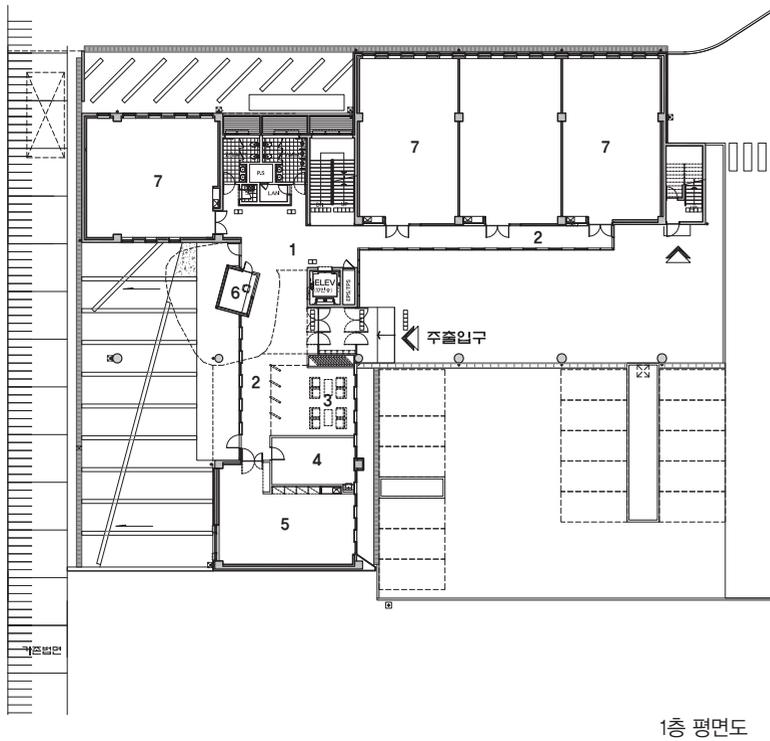
그래도 공사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설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온다. 또한 마감상세가 눈에 거슬린다. 군데군데 마구 쓰아놓은 실리콘자국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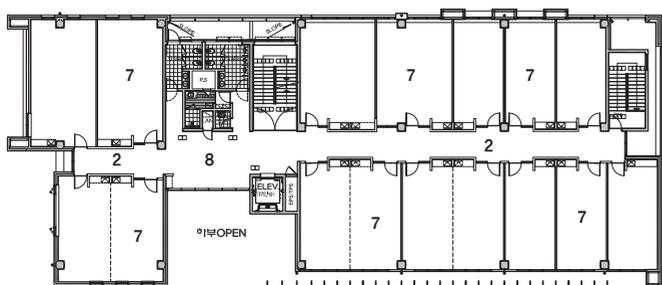
선방했다는 감독관의 격려를 위로로 삼고, 이번엔 이쯤에서 물러서야 하나보다. 작은 예산으로 인해 시공사가 손해를 본 것 같아 미안하기 그지없다. 나야 설계하는 사람이니 그런 생각은 도에 넘는 것이긴 하지만, 설계할 때부터 감독관이 걱정했던 일인지라.

꽤나 값나가는 재료의 사용과 노출콘크리트, 필로티공간을 고수함으로 시공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겁다. 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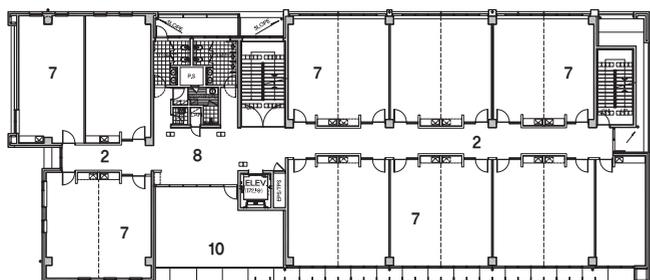


- | | |
|---------------|------------|
| 1. 로비 | 6. 창업보육지원실 |
| 2. 복도 | 7. 보육실 |
| 3. 상담실(휴게라운지) | 8. 홀 |
| 4. 센터장실 | 9. 공동회의실 |
| 5. 행정실 | 10. 휴게데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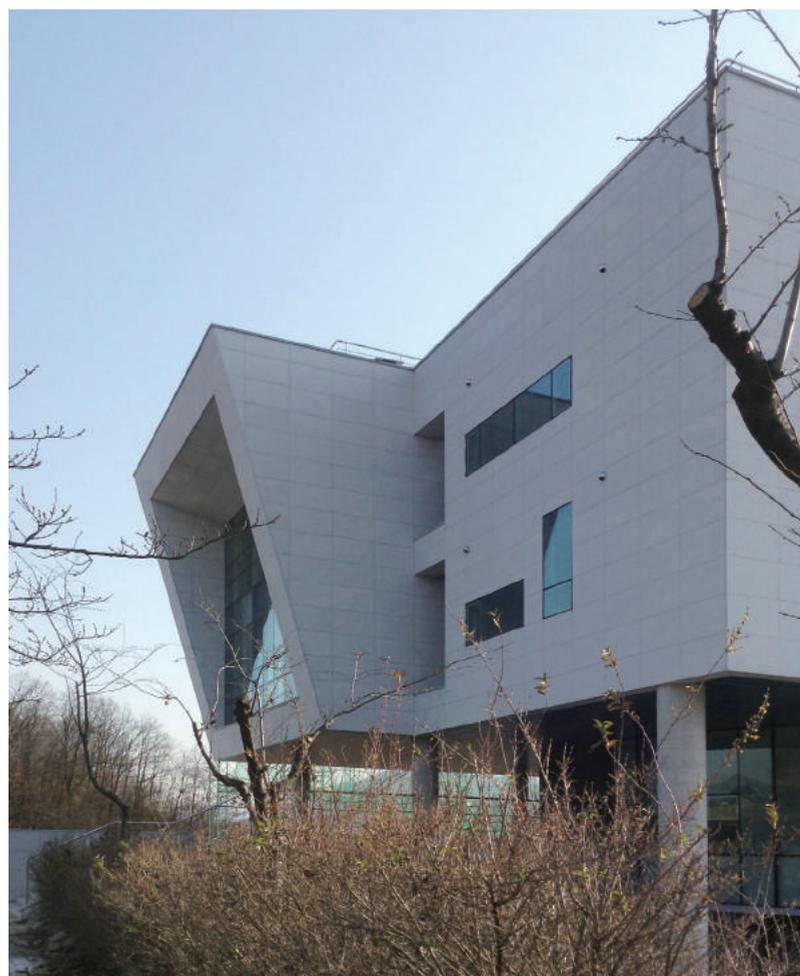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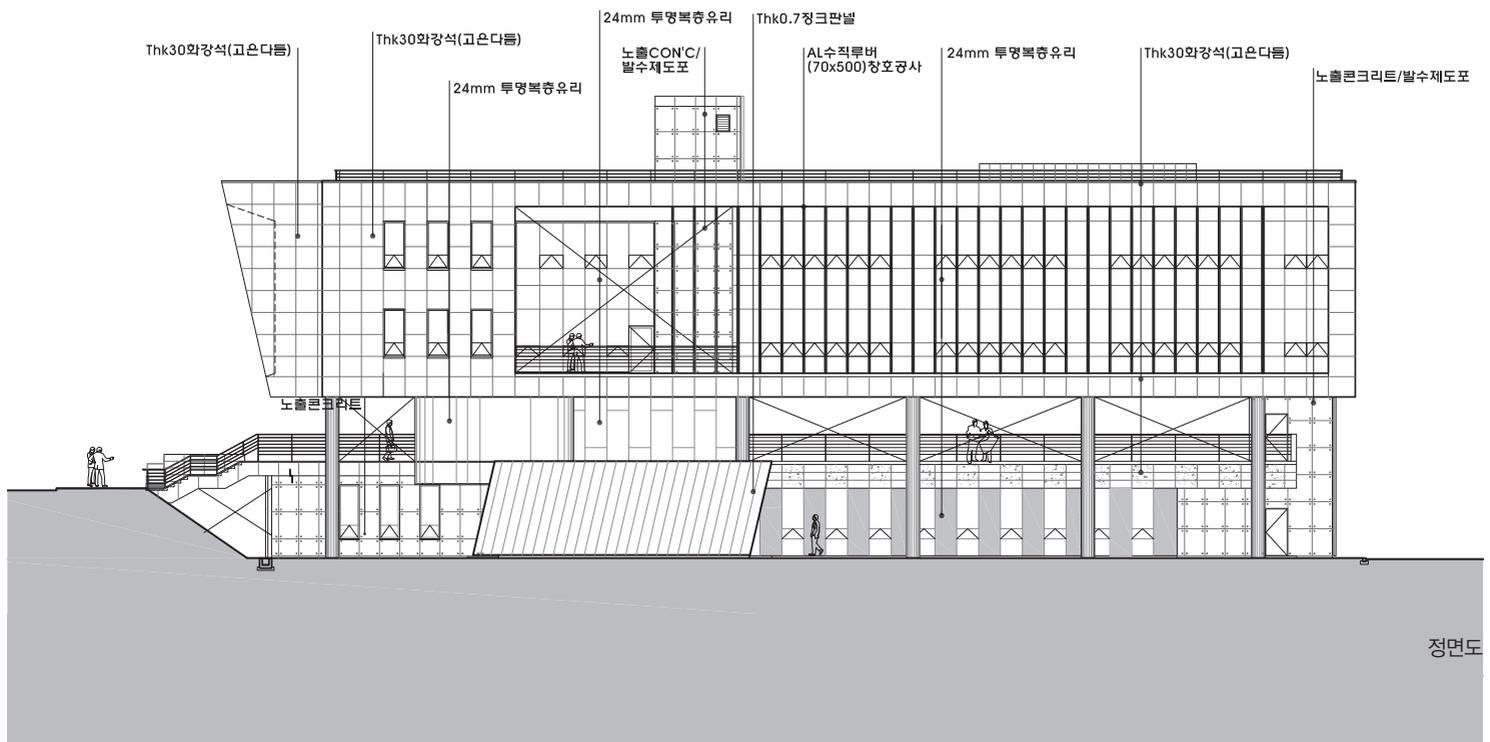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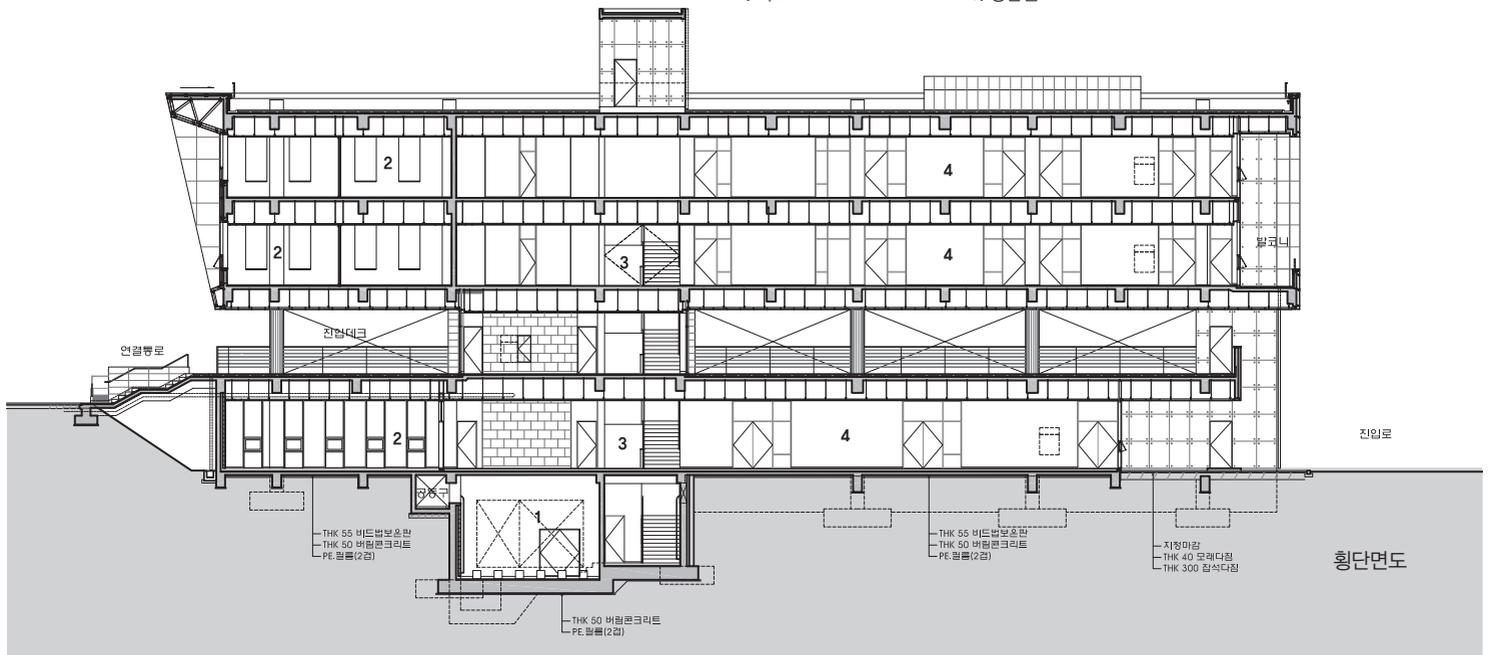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 | | | |
|---------|--------|---------|
| 1. 물탱크실 | 5. 펌프실 | 9. 센터장실 |
| 2. 보육실 | 6. 저수조 | 10. 행정실 |
| 3. 홀 | 7. 호비 | 11. 전실 |
| 4. 복도 | 8. 상담실 | |



WORKS

아쿠아플라넷 제주

AQUAPLANET JEJU





아쿠아플라넷 제주



설계자 | 김태집_KIRA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간삼건축을 이끌고 있는 건축사이자 경영인이다. 오랜 경험과 뛰어난 감성,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되는 김태집 사장의 철학은 간삼건축을 최고의 건축 디자인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 LG 사천연수원, 제주 휘닉스아일랜드 리조트, 동국제강 페럼타워 등의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설계자 | 한기영_KIRA |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2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변을 압도하기보다 건물의 몸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문화 시설과 휴양리조트 시설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는 전문가이다. 명지대 방목학술도서관, 갤러리아 센텀시티, 울산박물관, 아쿠아플라넷 여수, 동강시스타 리조트 등의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 설계팀 : 김미정, 김천행, 최 기, 서정훈, 김승수, 박선아, 정진우, 최창현, 김규태, 최경민, 정경수, 김지은, 신영호, 김천로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CS구조 - 기계설비 : 우원 - 토목 : 경보기술단
 - 전기/통신분야 : 나라기술단 - 조경 : 가원조경

건축주 | 제주특별자치도

감리자 | ㈜삼우CM

시공사 | ㈜한화건설

대지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주요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中 동 · 식물원(수족관), 전시장(과학관)

대지면적(Site Area) | 93,685.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13,074.15㎡

연면적(Gross Floor Area) | 25,899.38㎡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3.42%

용적률(Floor Area Ratio) | 27.23%

규모(Building Scope) | B2~2F

구조 | RC+철골조

주요마감재 | 외부마감_제주석, 알루미늄쉬트, T.P.O, 외단열시스템
내부마감_제주석, 화강석, 폴리싱타일, 비닐페인트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08. 07 ~ 2010. 05.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0. 12 ~ 2012. 06

사진(Photographer) | Yun, Jun-hwan

Client |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Architect | Kim Tai-jip, Han Ki-young

Project team | Kim, Mi-jung / Kim, Cheon-haeng / Choi, Gi / Seo, Jeong-hoon
Kim, Seung-soo / Park, Sun-ah / Jung, Jin-woo /
Choi, Chang-heon / Kim, Kyu-tae / Choi, Kyoung-min
Jeong, Kyeong-soo / Kim, Ji-eun / Shin, Young-ho / Kim, Cheon-ro

General Contractor | Hanwha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

Location | Gosonri, Seongsan-eup, Seogwipo-si, Jeju

Structure | R.C+S.C

Structural Engineer | CS Structural Engineering,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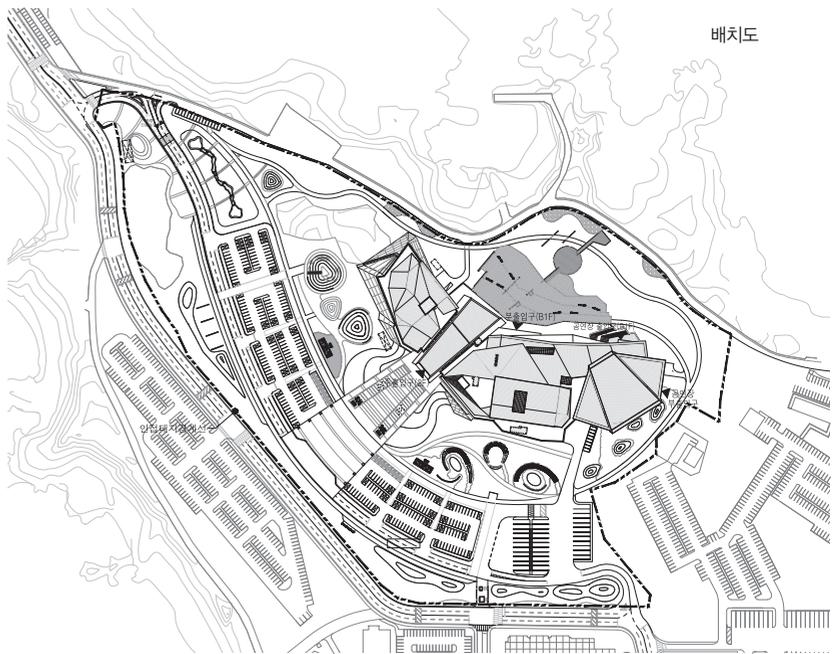
HVAC & Electrical Engineer | WOOWON Technology Co.Ltd

Electrical Engineer | NARA Engineering Consultant

Civil Engineer | Kyongbo Engineering Co.LTD

Finishing Materials | Interior_ Stone of Jeju production, Granite, Polished tiles, Vinyl paints

Exterior_ Stone of Jeju production, Aluminum sheet, T.P.O, Exterior insulation system



배치도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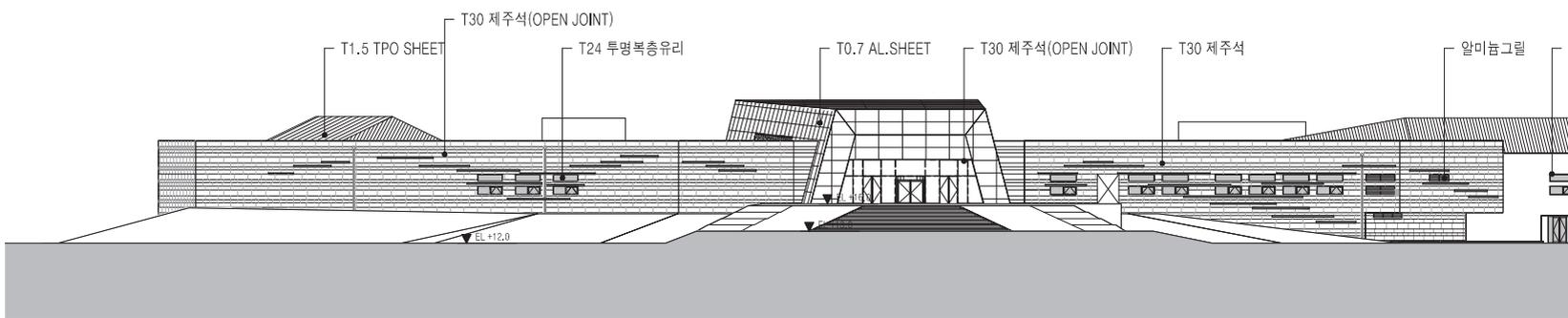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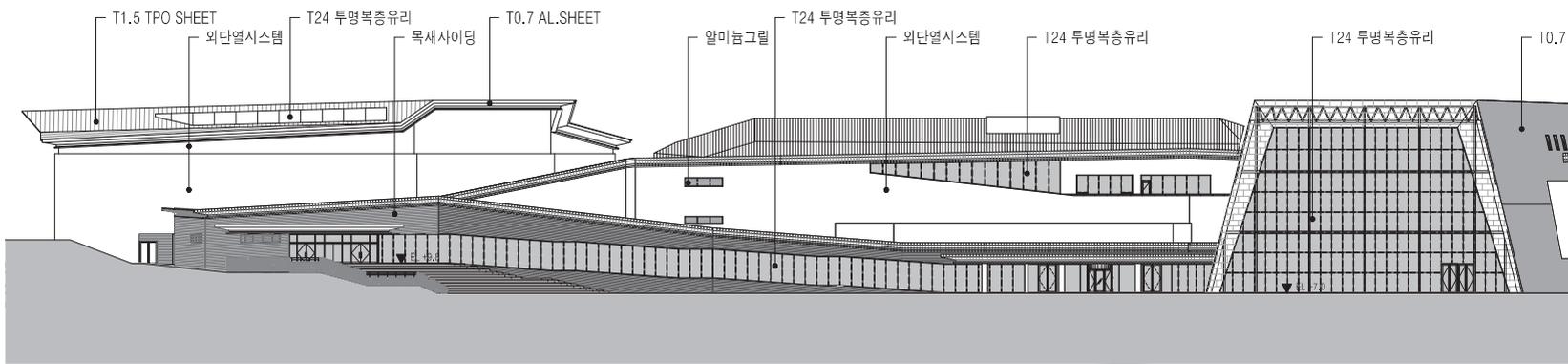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건축물로는 최초로 민간투자사업(BOT)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지구상의 가장 큰 어류인 고래상어를 전시하기 위한 당시 아시아 최대규모의 아쿠아리움 설계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의 친취적이고 전향적인 업무추진력,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25년여간의 아쿠아리움 운영 노하우와 전문지식, 한화건설의 사업제안에서부터 시공까지의 사업운영 능력이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수의 밑거름이 되었다. (주)간삼건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섬지코지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제주도의 특성뿐 아니라 섬지코지의 자연을 이해하고 있어서 세심한 가치 구현이 가능하였다. 계획/기본설계는 물론 실시설계와 현장관리의 모든 과정을 직접 간삼건축에서 진행하여 아쿠아리움의 전문설계조직의 면모를 갖추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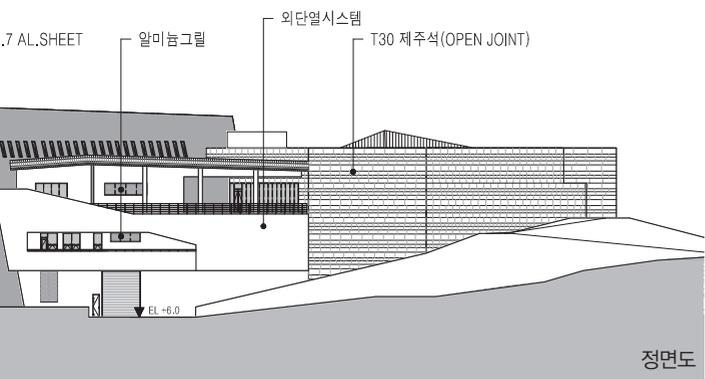
섬지코지의 낮은 구릉 지형에 순응하는 저층 구성과 지붕모양, 고래상어가 먹이를 먹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는 주출입구(관객들은 작은 새우가 되어 고래상어 입으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거대한 프레임으로 바다 건너의 성산일출봉을 담아내고 있는 센트럴코트, 성산일출봉의 층리를 닮은 경사지붕 조형 등은 '화산섬 안에 담긴 바다'라는 건축적 구현을 위해 디자인되었다. 세계적으로 아쿠아리움 친환경 및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과 학

술교류의 전초기지로써 그 가치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히 생물을 전시하거나 동물쇼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반환경적 시설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국내의 아쿠아리움 문화가 더욱 발전하여 그 역할을 세분화/전문화 할 수 있도록 (주)간삼건축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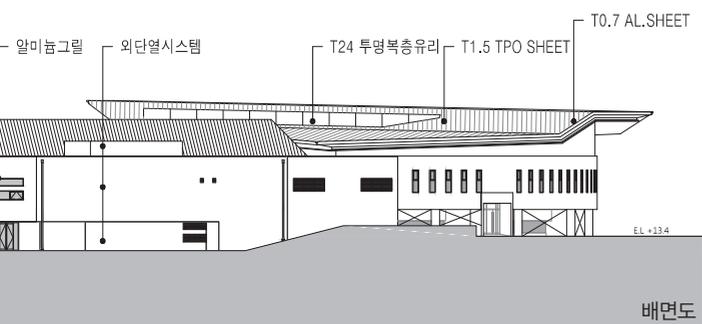


내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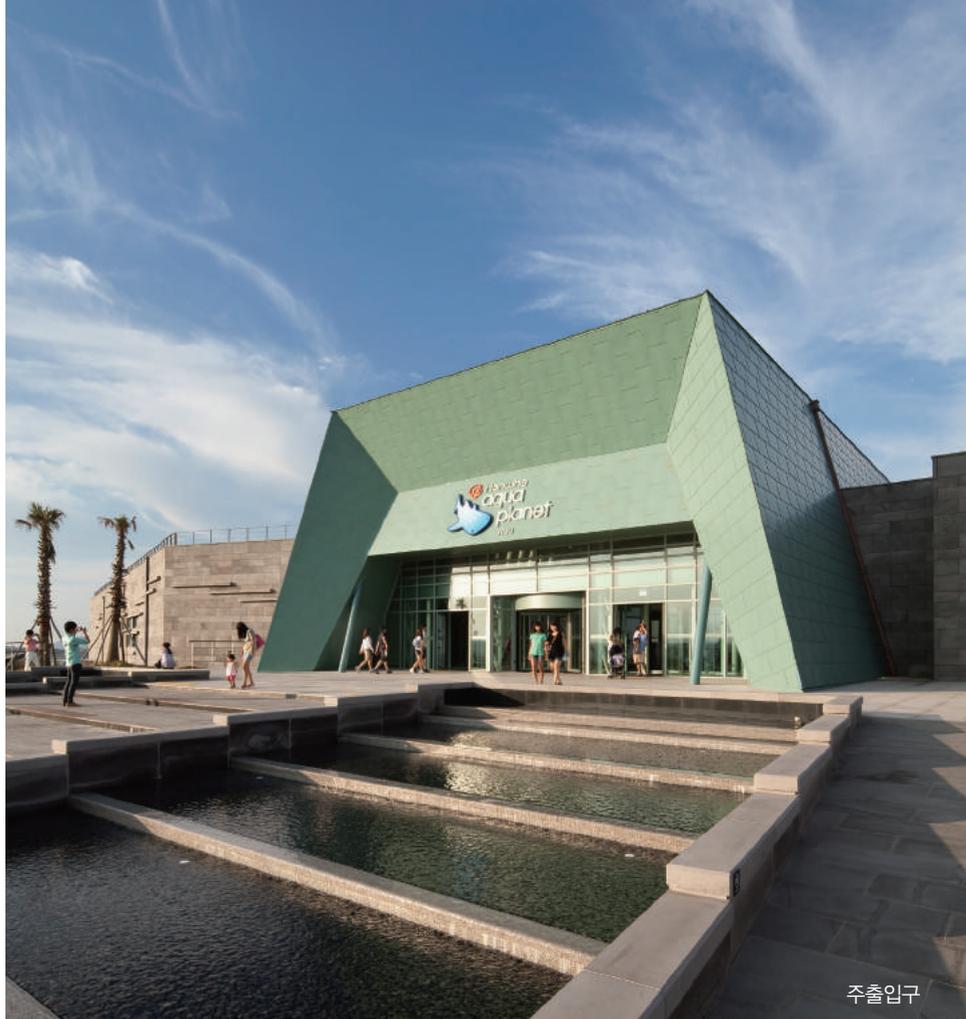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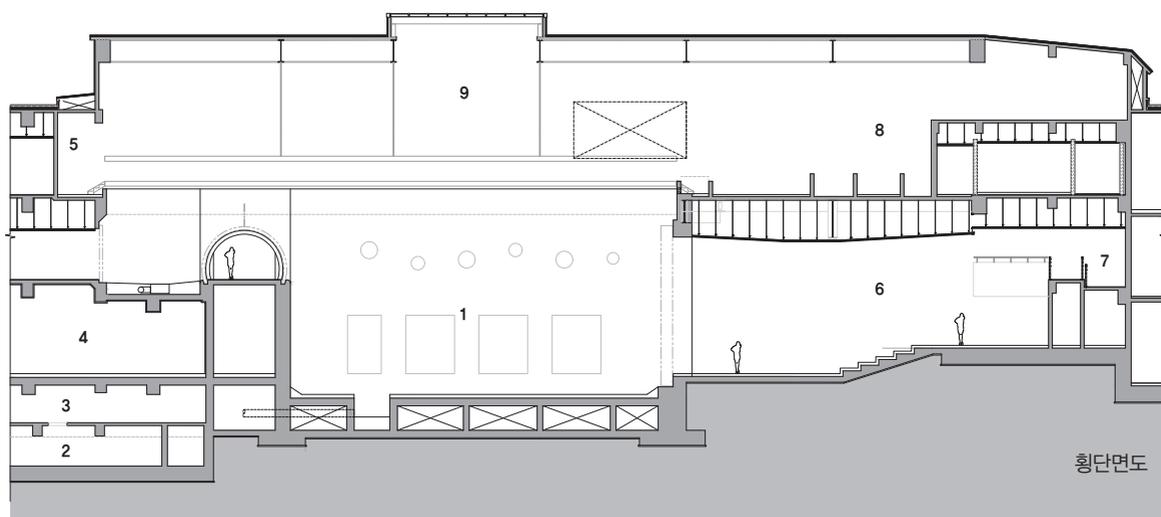
배면도



주출입구



센트럴 코트





제주의 바다



플라이펭귄



1층 물범수조



터치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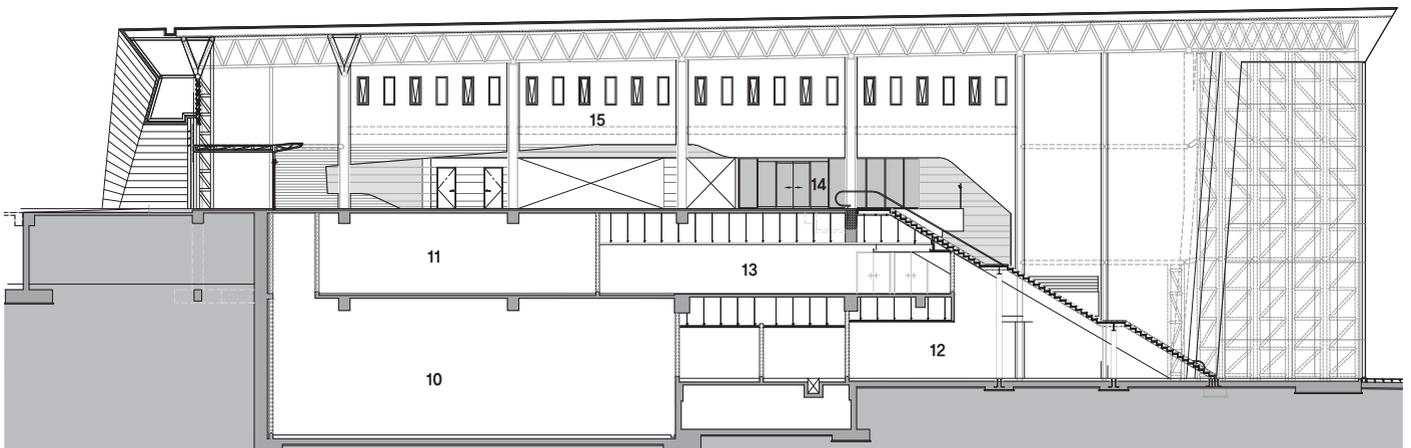


아쿠아사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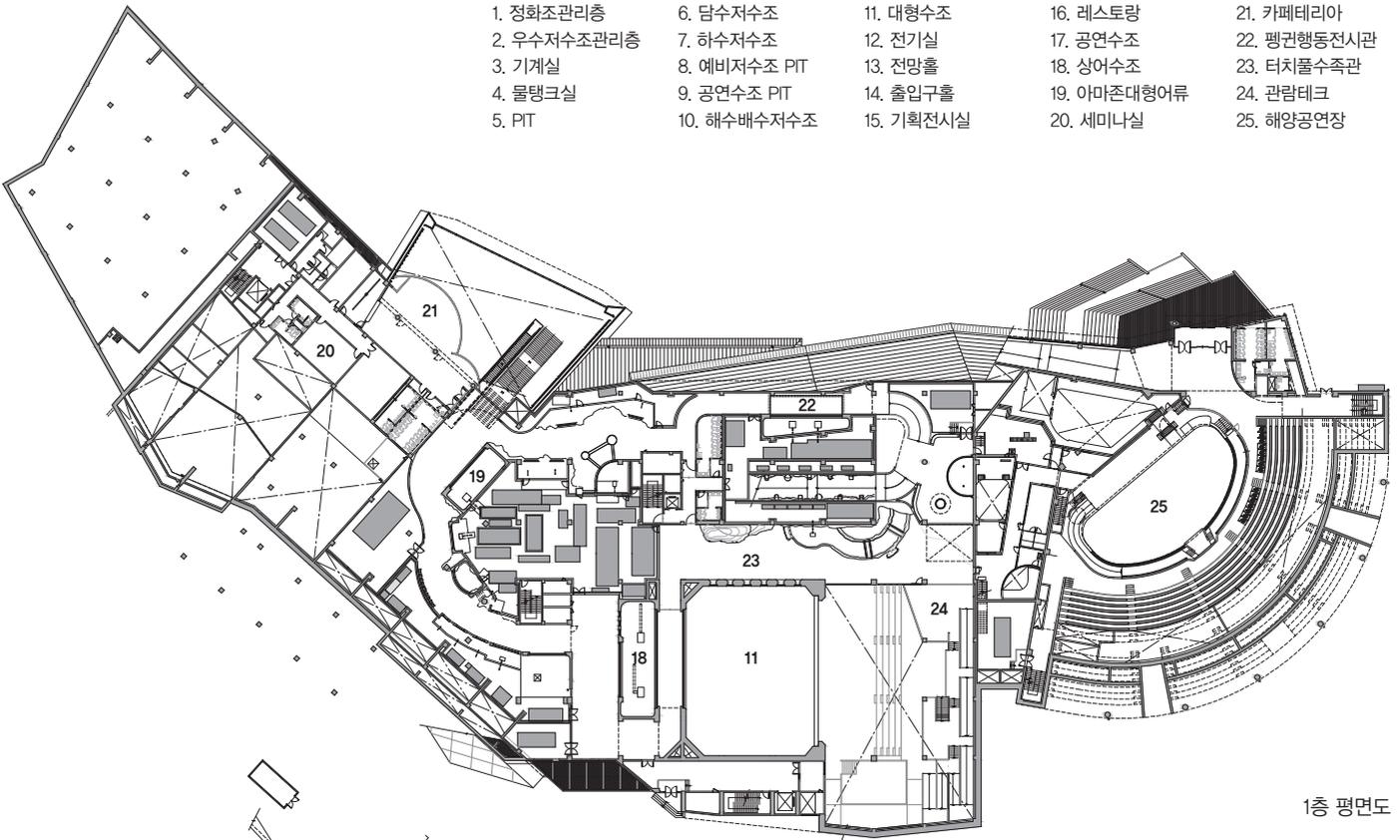
카페테리아

- | | | | | |
|-------------|------------|-----------|---------|-----------|
| 1. 대형수조 | 4. LSS | 7. 관람테크 | 10. 기계실 | 13. 관람동선 |
| 2. 우수저수조 | 5. 상어수조 | 8. 예비수조 | 11. 공조실 | 14. 멀티샵 |
| 3. 우수저수조관리층 | 6. 대형수조관람석 | 9. 대형수조상부 | 12. 전망홀 | 15. 센트럴코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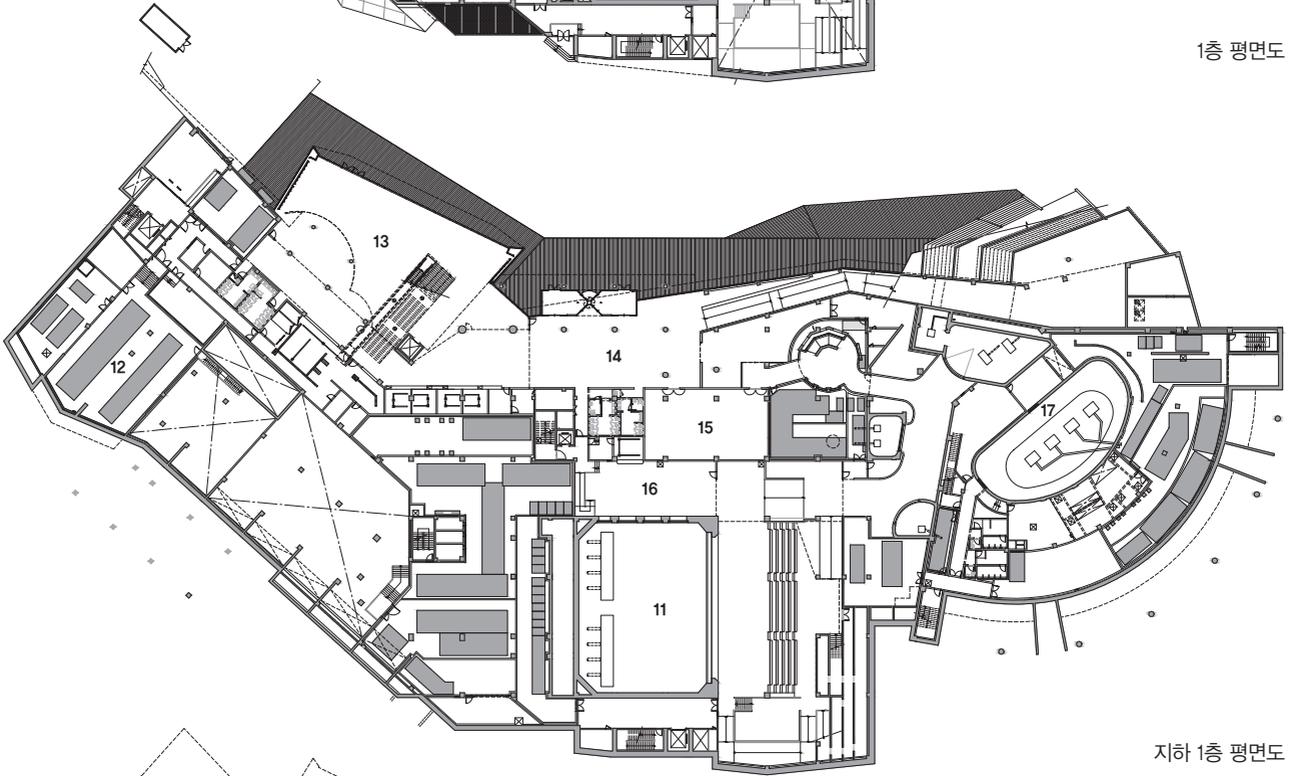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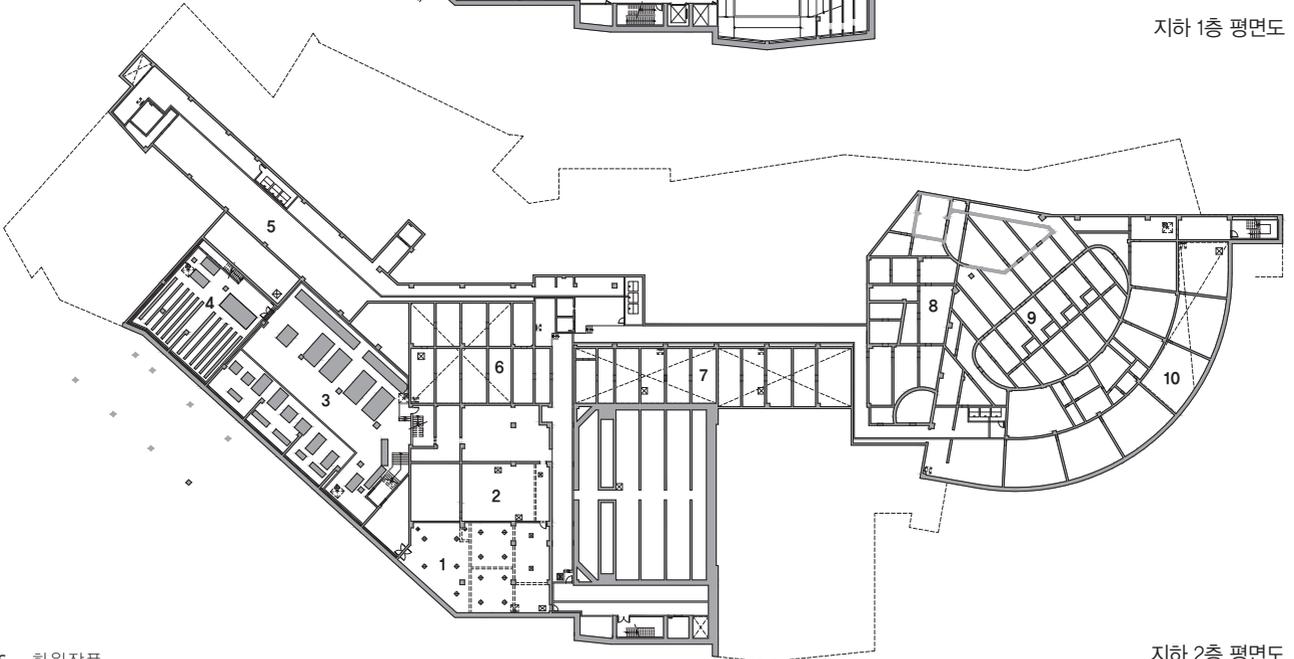
- | | | | | |
|-------------|--------------|-----------|-------------|-------------|
| 1. 정화조관리층 | 6. 담수저수조 | 11. 대형수조 | 16. 레스토랑 | 21. 카페테리아 |
| 2. 우수저수조관리층 | 7. 하수저수조 | 12. 전기실 | 17. 공연수조 | 22. 평권행동전시관 |
| 3. 기계실 | 8. 예비저수조 PIT | 13. 전망홀 | 18. 상어수조 | 23. 터치풀수족관 |
| 4. 물탱크실 | 9. 공연수조 PIT | 14. 출입구홀 | 19. 아미존대형어류 | 24. 관람테크 |
| 5. PIT | 10. 해수배수저수조 | 15. 기획전시실 | 20. 세미나실 | 25. 해양공연장 |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내 유스호스텔 _ 당선작

ULSAN MUNSU WORLDCUP STADIUM YOUTH HOS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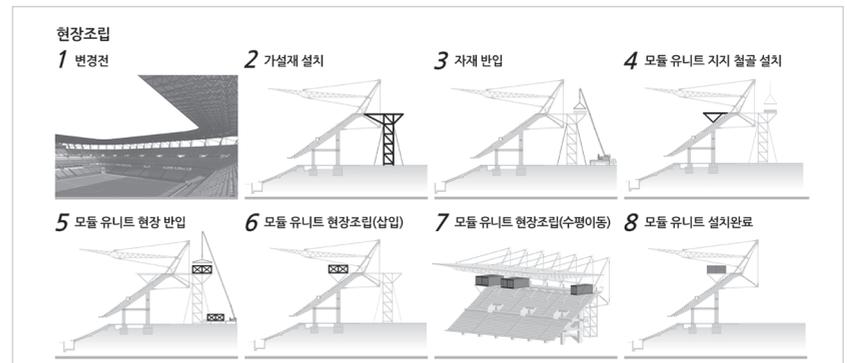
발주자 : 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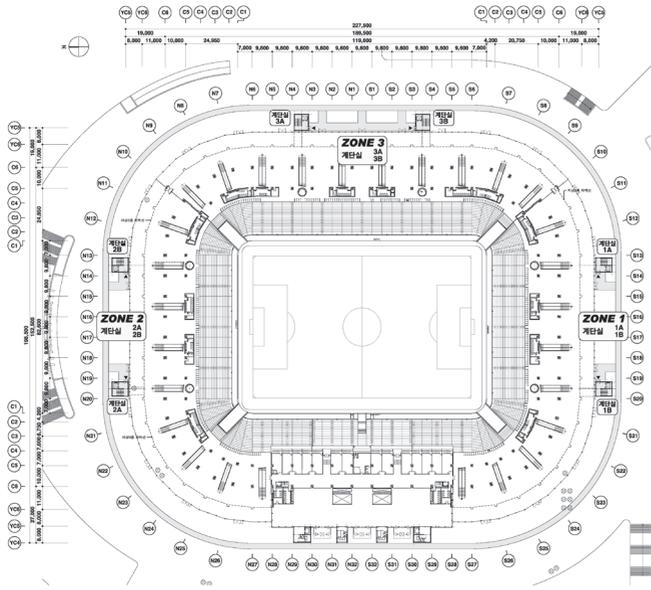
설계자 : 이필훈 KIRA | (주)포스코에이앤씨 건축사사무소
 김진한 KIRA | (주)씨에스 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태완, 백승화, 이경호, 이재동,
 이지현, 임경훈, 임성묵, 장우성_포스코 A&C
 고영주, 김제한_CS건축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산331-1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대지면적 912,310㎡
 건축면적 38,251.07㎡
 연 면 적 116,306.03㎡
 건 폐 율 4.19%
 용 적 륜 8.32%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PC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3층
 주요마감 외부-THK1, 2 불소수지코팅강판
 THK24 칼라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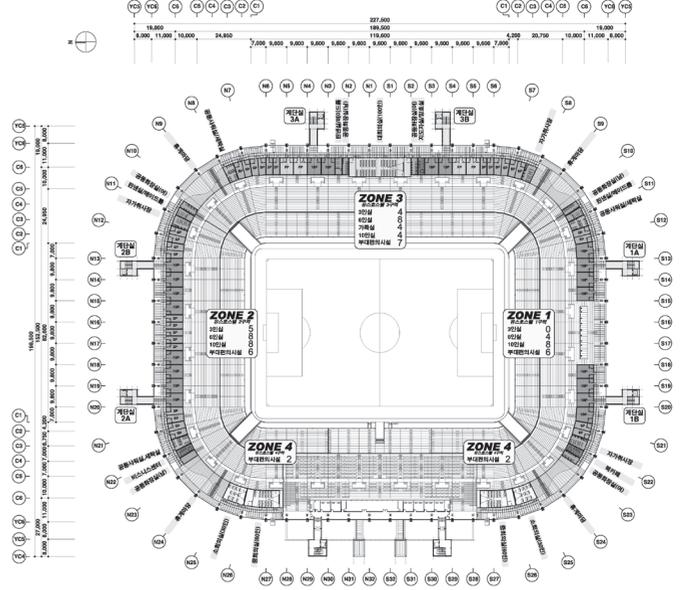
울산 문수월드컵경기장내 유스호스텔은 지상 20m 높이에 건립되는 세계최초 스타디움내 Sky Box형으로 디자인한 유스호스텔로서, 과장된 외관디자인보다는 기존 문수월드컵 경기장의 세련되고 질서정연한 PC구조와의 조화와 실질적인 체류청소년의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자인컨셉인 큐브플러스(Cube+)는 큐브로 대변되는 고품질의 모듈러 기술도입을 통해 기존 경기장에 거주공간의 기능성을 더하고, 시설이용의 편의성 및 상징성을 더함으로써, 울산체육공원 전체의 활성화를 이루고자하였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2002년 월드컵...그리고 그 이후 10년...대다수의 월드컵 경기장이 그러하듯 월드컵 이후 월드컵경기장의 활성화 방안마련은 모든 경기장의 공통된 해결과제가 되었다. 금번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 관람석 일부를 유스호스텔로 제안한 설계가 이러한 방안마련의 해결책이 되었으면 한다.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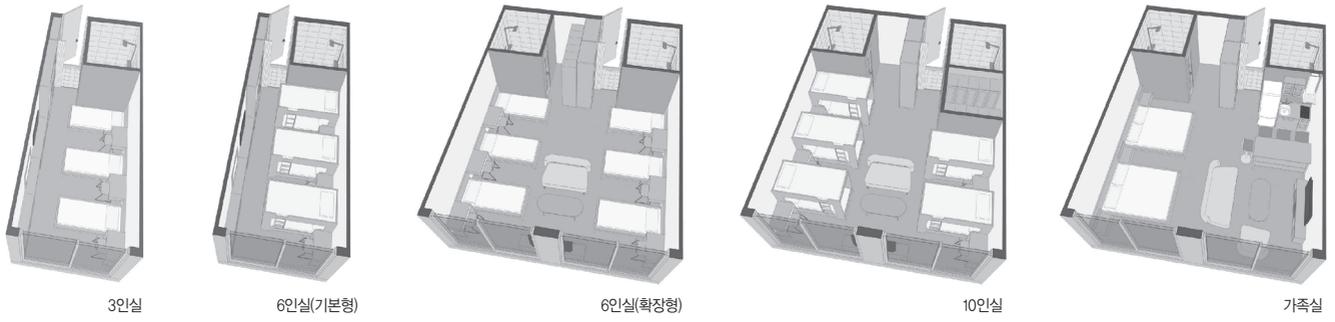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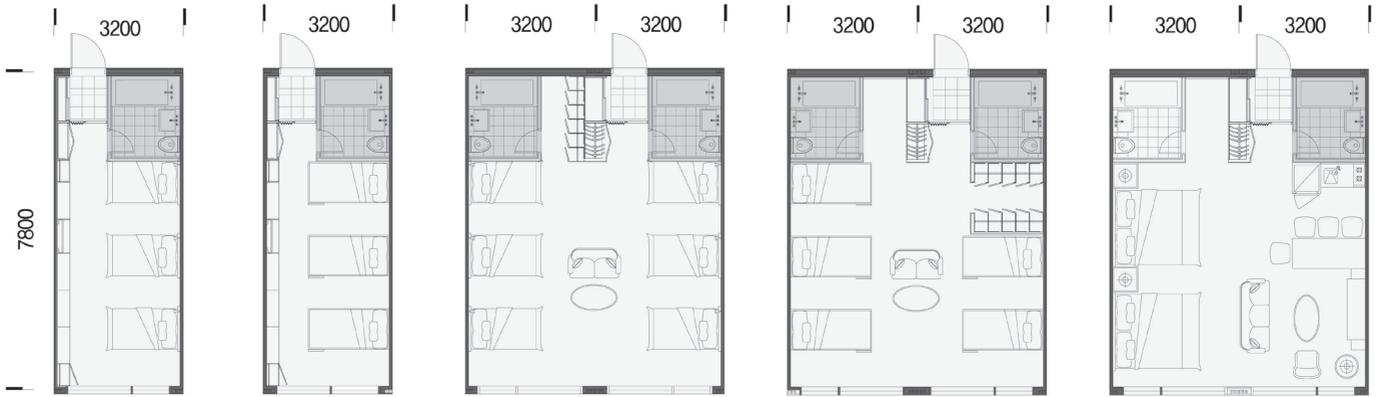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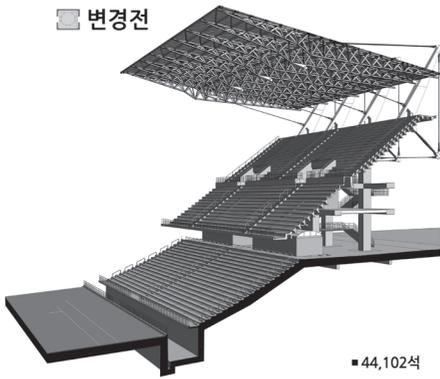
3층 유스호스텔 평면도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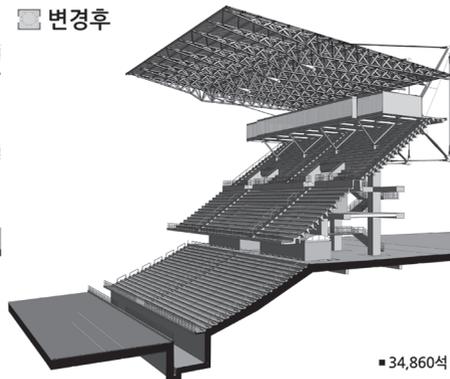


■ 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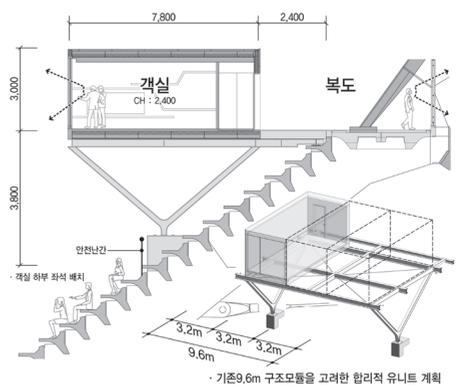
■ 변경후



■ 44,102석



■ 34,860석



· 기존 9.6m 구조모듈을 고려한 합리적 유니트 계획



이노비즈센터 _당선작

INNOBIZ CENTER

발주자 : 광주광역시청

설계자 : 양병범, 김종일, 오금열

KIRA | (주)유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김창오, 채승훈, 권 진, 이동준, 박준환

조경 : 양영균, 유재영, 안정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7번지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 업무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 33,542.00㎡

건축면적 : 2,837.85㎡

연 면 적 : 14,211.53㎡

건 폐 율 : 8.46%

용 적 률 : 33.9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주요마감 : 외부-알루미늄 복합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고밀도 목재무늬패널

배치계획/프로그램 구성

광주 첨단지구 뒷자락에 위치한 본 과업대지 영산강과 마주하고 있다. 본 사업은 월출동 987번지의 세 개의 큰 블록 중 하나에 속하며, 또한 본 블록은 추후 게스트하우스와 지원시설이 향후 들어설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조건들로 겹겹이 연계되는 주변건물과 주변 블록과 통합적인 외부공간 형성하며, 건물 매스가 대지의 외부공간을 감싸며, 영산강 조망을 가능하게 하는 배치로 계획하였다.

건물 저층부의 공용시설로서 개방과 고부층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층의 프로그램의 부퍼존을 계획하였으며, 특히 저층부의 도시 질서의 유지하며, 고층부의 업무시설은 실외 환경을 위해 남향으로 계획하였으며, 조망을 위하여 건물은 비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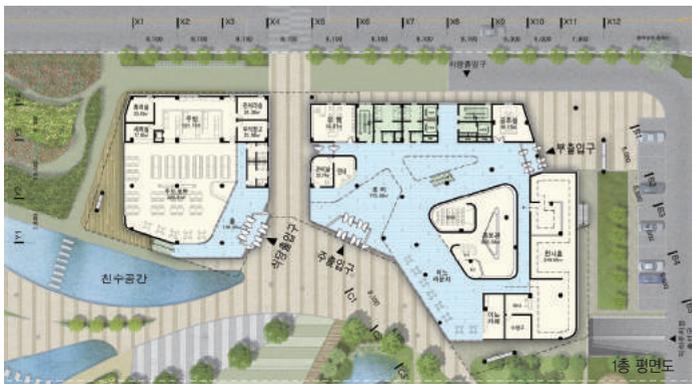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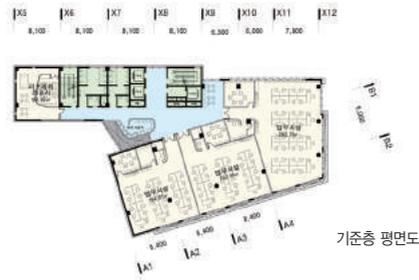
평면계획

여느 업무시설의 건물의 수직적 상승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저층부의 1층은 독립적인 푸드코트 계획으로 상시 프로그램이 사용되며, 회의 및 업무시설에 방해하는 요건을 최소화 하였으며, 로비 및 이노라운지의 개방감 형성하여 쾌적한 실환경을 계획하였다. 2층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 규모가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 및 정보교류의 영역을 형성하여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였다. 그리고 3층은 공용성격의 저층부의 프로그램과 상주인원의 업무시설의 부퍼존의 역할로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방문자와 상주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옥상휴게공간을 계획하였다.

고층부의 업무시설은 본 건물에 입주 할 회사의 규모가 다양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인 모듈과 가변 벽체를 통한 사무실의 효율적인 이용 고려하였으며, 입주 기관이 공용 사용하는 휴게/회의 목적의 리프래쉬 라운지를 각층에서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건물을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 본부는 최상층 계획하였으며,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을 바라보는 조망을 확보하여 바쁜 일상속에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과 함께 휴식을 즐긴다. 





이노비즈센터 _우수작

INNOBIZ CENTER

발주자 : 광주광역시

설계자 : 조성호 KIRA |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설계팀 : 최현웅, 이종석, 권은지, 고수진

전문기술협력

- 구조 :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 전기설비 : 좋은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좋은엔지니어링
- 조경 : 조동범(전남대학교)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7번지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33,542.00㎡
건축면적	1,890.55㎡
연 면 적	14,351.35㎡
건 폐 율	5.63%
용 적 륜	37.0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8층
주요마감	외부-투명복층로이유리, 알루미늄쉬트, 징크패널

The INNOPOLIS GWANGJU (광주 연구개발특구)

광기반 융복합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한 광주 연구개발특구는 빛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빛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미래 첨단기술을 창출해낸다. 이처럼 이노비즈센터는 빛을 받아 들임으로써 진화하고, 미래 녹색 성장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최초의 플러스(+에너지 생산센터

화석에너지를 공급받아 소모하는 과거의 건축물의 방식에서 현재는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우리는 제로에너지 빌딩의 개념을 넘어 건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이노비즈센터를 제안한다. 빛과 자연환경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계획함으로써 플러스(+에너지 건축물 구현목표 다양한 Passive design(패시브디자인)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혁신적 건축물 계획한다.

배치계획

프로그램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저층부를 3개의 시설동으로 배치하고 외부공간에 녹지 광장을 형성하여 친환경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각 시설동을 연결하여 커뮤니티 활성화를 시키며 중심공간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평면계획

저층부는 외부동선과의 긴밀한 연계계획을 통해 다양한 레벨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하고 추후 증축을 고려한 연결동선을 계획한다. 업무층인 고층부는 합리적인 업무동선과 자연친화적 커뮤니티공간을 갖고 활발한 교류를 위한 장소를 통해 다양한 연구와 산업이 서로 엮여 소통할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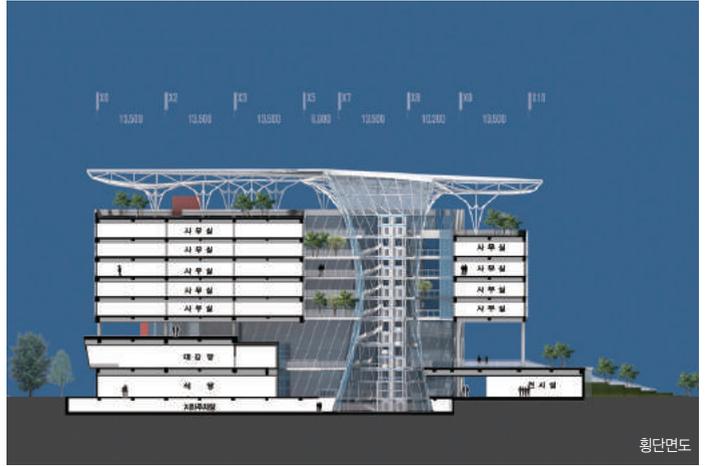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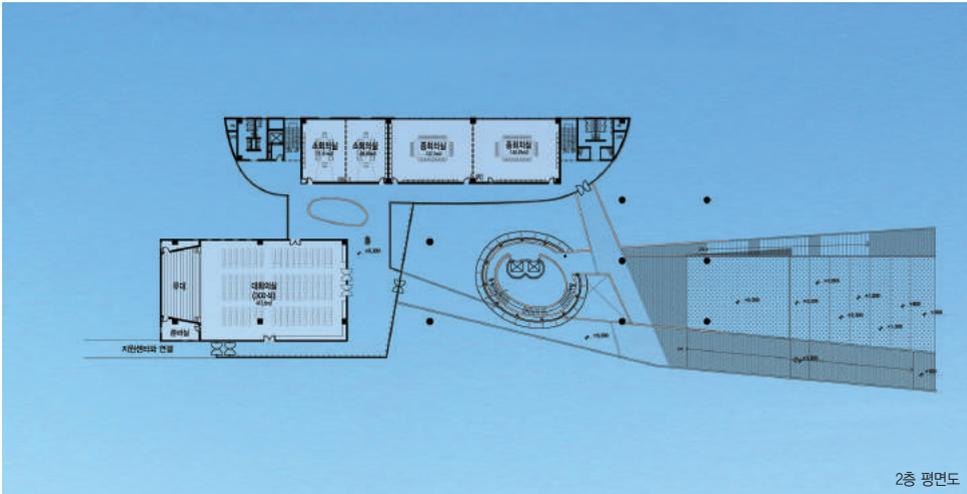
투시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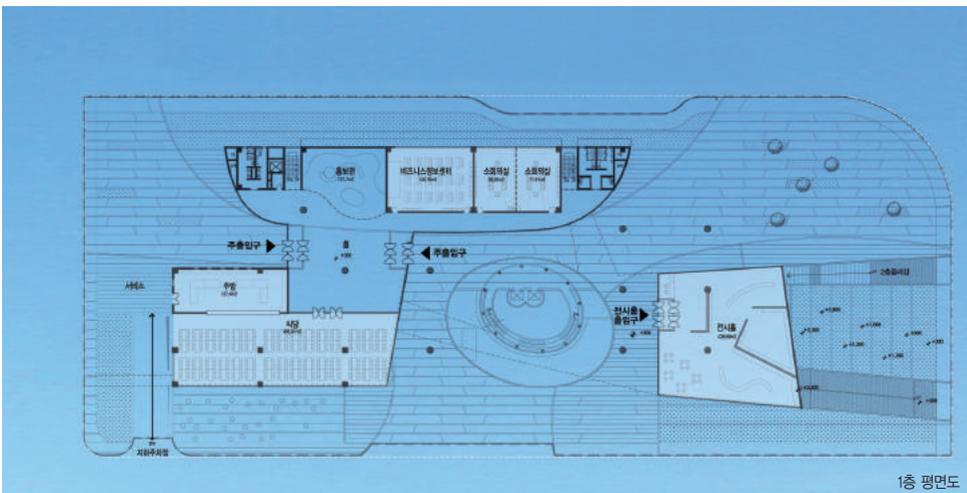
횡단면도



2층 평면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종단면도



이노비즈센터 _우수작

INNOBIZ CENTER

발주자 : 광주광역시

설계자 : 정해상 KIRA | (주)디자인그룹금성 건축사사무소
 정관성 KIRA, 김진우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이원일 KIRA | 이엘 건축사사무소
 조성우 | 미래환경도시정책 연구소 박사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87번지
 지역/지구 : 일반공업지역, 연구개발특구, 국가산업단지
 주요용도 : 업무 및 연구시설
 대지면적 : 33,542.00㎡
 건축면적 : 1,907.19㎡
 연 면 적 : 14,338.64㎡
 건 폐 율 : 5.69%
 용 적 률 : 42.75%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 지하 1층, 지상 9층
 주요마감 : 외부-알루미늄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THK24 로이복층 유리

이노비즈센터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 새시대의 요구인 모든 경계를 허물고 통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계획한 이노비즈센터는 세가지 관점에서 계획되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센터의 요구로써 기술을 융합하고 통섭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이다. 기술산업 지원 기관을 직접화한 새로운 이노비즈 센터는 핵심 융합기술 개발하고, 산·학·연 교류협력공간 제공 및 벤처기업 창업촉진하는 센터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두 번째로는 새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Green Center로 기술융합을 하였다. 업무공간으로서 쾌적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Center를 매개로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고 친환경 Center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세 번째는 사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교류를 위한 최적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노비즈센터는 기술지원과 교류, 협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최고 수준으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평면은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사무공간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평면에서 다양한 사무공간이 서로 통섭이 되어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구성하였고, 사이공간에는 자연을 도입하여 최적의 공간을 구성하였다. 층간의 이동과 공용공간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앙코어 방식을 택하였으며, 층과 층사이의 보이드 공간을 통하여 각 층간의 시각적 교류와 공간의 교류를 통하여 층간의 통섭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여 계획되어진 이노비즈 센터는 하나의 회로기판과 같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Conscience 이노비즈센터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통섭의 나무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새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노비즈센터가 되길 희망한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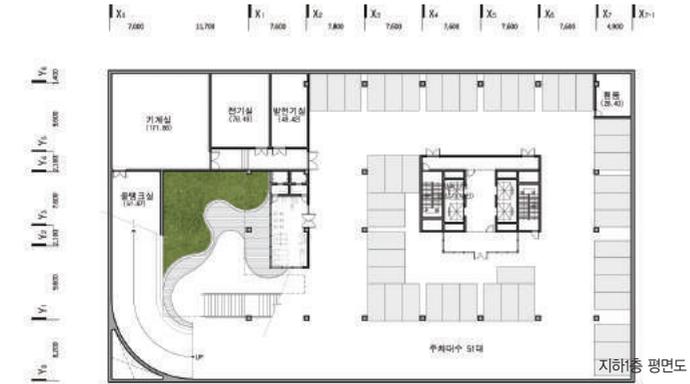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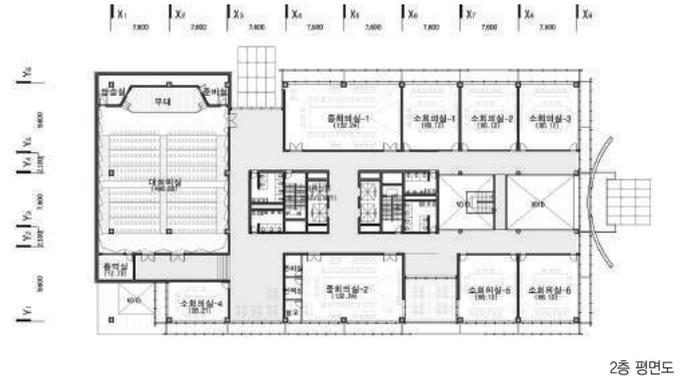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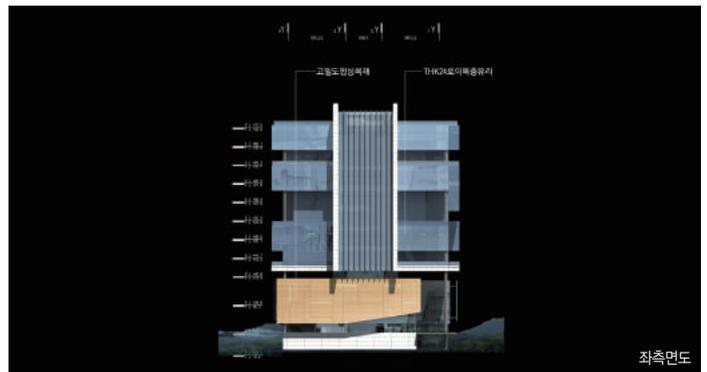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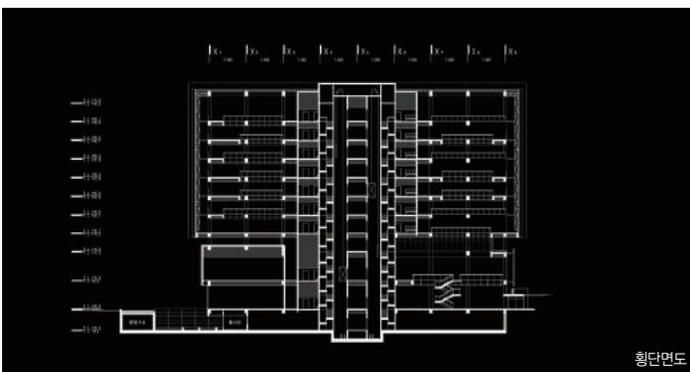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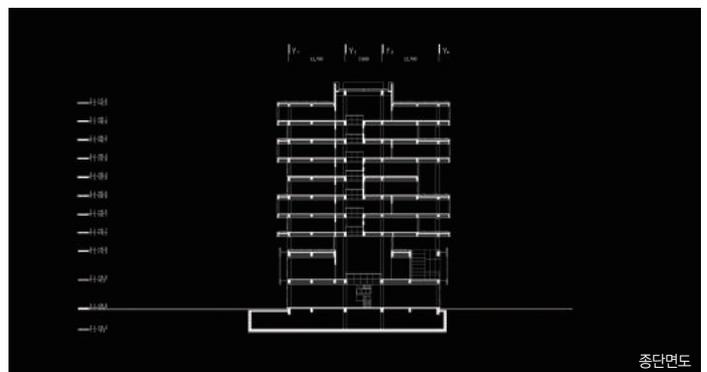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횡단면도



축단면도

상사유치권과 근저당의 선후관계

The order priority between mercantile lien and a collateral security

성승환 |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1) 김모씨는 2004. 7. (주)M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4. 9.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김모씨가 분양대금 중 136,667,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주)M은 2006. 8. 이 사건 점포를 김모씨에게 인도하였다.

(3) (주)M은 2006. 9. M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 점포에 관하여 M저축은행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다음 M저축은행으로부터 2006. 11. 70억 원을 대출받는 등 2006. 12.까지 총 75억 원을 대출받았다.

(4) M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자 2007. 5.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고, (주)M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가 됨으로써 M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여 김모씨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5) (주)M은 2007. 7. 30. M저축은행을 상대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따른 청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2008. 1. 3. M저축은행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6) M저축은행은 2008. 1. 2.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 등을 낙찰 받은 다음 2008. 9.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7) 김모씨는 M저축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분양대금 상당의 전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M저축은행을 상대로 전보배상채권에 기한 상사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의 요지

(1)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

상인들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권이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이지만 하면
채무자와의 상행위에 기해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김모씨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포에 대한 점유 요건 외에 피담보채권의 발생 요건도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자 M저축은행에게 대항하려면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근저당권의 성립 시점보다 앞서야 한다. (주)M의 김모씨에 대한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김모씨가 주장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주)M이 M저축은행에 대한 위 본등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 7. 30.경이라 할 것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6. 9. 이전에 김모씨가 주장하는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김모씨는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M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전보배상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3. 판례 평석

(1)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그 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성립시기를 따지지 않고 담보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은 상인들 간의 거래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권이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 소유이지만 하면 채무자와의 상행위에 기해 물건을 점유하는 것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그에 따라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자와 채무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 판결은 상사유치권 행사가 담보가치를 바라고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고심한 끝에 민사유치권과 달리 상사유치권에서는 대항력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유치권 성립에 앞선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실내주거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환기기준 조정의 필요성

Adjustment necessity of ventilation guide while conditions of indoor living environment are changing

이윤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연구실 연구위원

서론

2006년 2월 13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환기설비 설치기준은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환경 구현 및 새집증후군 문제 개선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환기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유해한 화학물질 방출량이 과다한 건축자재 등의 사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시간당 0.7회의 환기기준 제정은 실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였다.

즉, 제정당시, 공동주택 실내에서의 오염원 제어(source controls)가 미흡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기제어(ventilation control) 수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최소 필요환기량 기준이 대부분 시간당 0.5회인 점을 감안하

면, 당시의 실내공기오염 문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던 점을 적절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 제도, 한국공기청정협회의 HB마크 인증제도 등 민간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에 힘입어 실내공기 오염원에 대한 제어가 주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여 어느 정도 효과적인 수준까지 달성되었기 때문에 건물에너지 사용량 저감의 측면에서 환기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현재 국내 신축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환기기준인 시간당 0.7회의 유지여부를 재검토하고 그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및 환기 관련 연구 현황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5~6년간 활발히 보급된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의 적용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1) 한화택, 공동주택의 환기에너지 저감 요소기술, 설비/공조·냉동·위생, 2009, 01

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에 환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생활습관을 갖는 일본의 5%에 비하여 환기에 의한 외기부하가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의 제정과 실행 정도에 대한 점검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의 2007년 5월 31일 보도자료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대폭 개선”에 따르면 303개 장소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된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평균오염도가 26~71%가 저감되었으며, 항목별 기준초과율도 3%미만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의 농도가 전년대비 각각 71%와 53%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08년 1월 24일 보도자료 “신축 공동주택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증가”에서 전년도 대비 입주민의 실내공기질 만족도가 31.4%에서 37.4%로 증가하였으며, 새집증후군 경험도 35.9%에서 29.8%로 감소하였고,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의 시행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2008년 7월 10일에는 실내에 사용되는 마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이 강화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이 촉진됨으로써 실내공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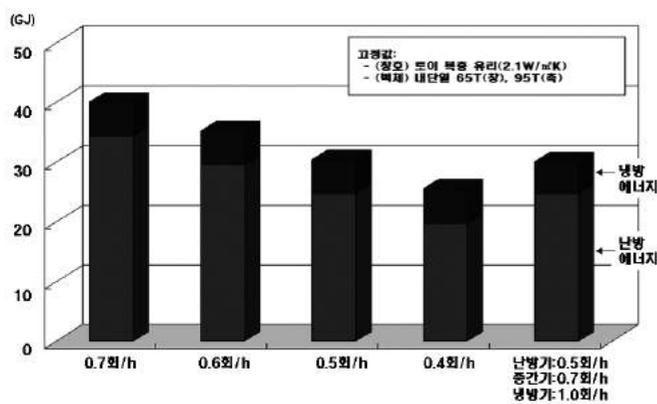


그림 1. 환기회수 변화에 따른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저감효과

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에 부가하여 2008년 12월 24일에 발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에서 실내공기환경의 주요 오염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전에 설치되는 불박이가구에 대한 등급기준을 제시하였고, 2010년 12월 1일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신축 공동주택 실내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히드의 오염물질 오염원을 제한함으로써 상기 환경부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크게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적절히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새집증후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던 2004년~2005년의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방출량 측정결과에 대한 연구²⁾ 등을 바탕으로 2006년 1월에 고시된 신축 공동주택 환기기준인 시간당 0.7회의 필요성³⁾을 제고할 시점에 온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건물에너지 사용량 저감의 관점에서도 학계의 연구⁵⁾에 따르면 환기기준을 0.5회로 변경할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0.7회에 대비하여 <그림 1>과 같이 약 24% 절감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 성기철⁶⁾의 연구에 따르면 ‘공동주택용 환기장치의 실내공기질 개선효과에 대한 현장실험연구’에서 공동주택의 Mock-up test를 통한 전열교환형 환기설비의 환기량 변화에 따른 실내공기질 개선효과에 대하여 시간당 환기회수를 0.3회, 0.5회, 0.8회의 3단계로 변화시켜 75일간 실시한다.

결과, 환기설비를 가동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40%의 포름알데히드 농도 개선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환기량 변화에 따른 차이는 약 5% 내외로 나타남으로써 환기량 보다는 지속적인 환기설비의 가동이 실내공기질 개선에 더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림 2>는 환기량 변화에 따른 포름알데히드의 농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연구, 환경부, 2005. 05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요 건축물의 실내공기오염 저감을 위한 설계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2005. 12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주요 건축자재의 시공기술 개발 연구, 국토교통부, 2006. 08

5) 김영선 외, 패시브 요소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약형 아파트의 냉난방 에너지 평가 I -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예측,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 2010. 06

6) 성기철 외, 공동주택용 환기장치의 실내 공기질 개선효과에 대한 현장실험연구(대한설비공학회 논문집, V. 19 n. 2, pp. 202-211, 20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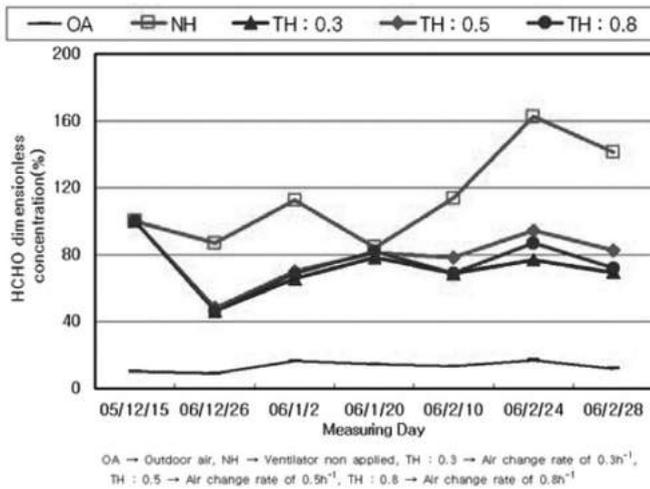


그림 2. 환기량 변화에 따른 포름알데히드 농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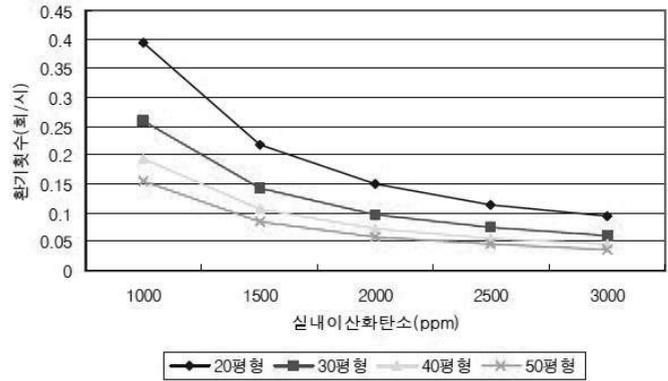


그림 3. 실내 이산화탄소 기준에 따른 평형별 요구 환기회수

안태경⁷⁾의 연구에서는 실내공기의 오염물질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산화탄소로 예를 들어, 평균 실내기준 이산화탄소와 평형별 최소 필요 환기회수와 관계와 실내 기준의 이산화탄소 수치를 변화시켰을 경우 평형별 요구되는 최소 필요 환기회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대부분 시간당 환기회수는 0.5 회 이하로 나타났다. 즉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내 이산화탄소 기준인 1,000 ppm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0.5 회의 환기회수를 확보하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국내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설치되는 폐열회수 환기장치의 경우, 급기나 배기의 덕트 관로가 대부분 천정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기회수가 커질수록 덕트관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층고가 높아지게 되며,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요 민원 사항 중의 하나인 소음발생도 커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환기량을 높이기 위해 환기설비가 커질 경우, 환기설비 및 보일러 등의 설치를 위한 실외기실의 면적도 커짐에 따라 비난방 공간의 결로발생 가능면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2006년에 제정된 환기기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현재의 시간당 0.7회에서 시간당 0.5회로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실내공기환경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실내공기 오염원제어(source control)과 관련된 각종 법적 조치의 효과적인 시행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환경 개선효과 증대
- 환기량의 최적화로 인한 환기설비 및 덕트면적의 축소가 가능하여 소음 및 결로 발생 가능성 저감
- 환기설비의 소형화에 따른 층고 축소, 실외기실 등 부가적인 실내공간의 최소화 및 초기설치비 저감 가능
-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환기설비 운영이 가능하여 전기사용량 절약 등 환기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증대
- 환기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저감에 따른 2017년 패시브하우스,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건설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완화

7) 안태경, 아파트의 최소 필요 환기회수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권 12호, 통권206호, 2005. 12

경운궁과 제국의 두 얼굴, 석조전과 중화전

Two Faces of The Empire, Seokjojeon and Joongwhajeon in the Imperial Palace

안창모 |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설계학과 교수, 역사문화환경보존프로그램

고종은 당시 서양에서 가장 보편적이었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석조전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는 대한제국이 서양의 근대국가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대한제국은 서구식 근대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동안 함께 했던 중국 중심의 세계 체제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 고대국가 체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법전을 포기하지 못한 것이 그 예다.



그림 1. 도성전경, 북악을 배경으로 약간 우측으로 광화문과 육조거리가 있고 왼편에 2층 전각의 중화전과 양관인 돈덕전이 보인다.

1901년 8월 25일 법전 영건을 위한 영건도감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왜? 고종이 대한제국의 출범을 준비하며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석조전 건축공사가 한창이던 시기에 전통적인 형식의 법전인 중화전을 짓고자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고종이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국체를 유지해야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 대한제국을 출범시키는 상황에서는, 석조전을 통해 대한제

국이 어떠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했지만, 대한제국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후 서양의 여러 나라로부터 제국의 존재를 인정받고, 마지막까지 대한제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청나라와 1899년에 대등한 관계 속에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급박하게 전

개되던 국제정세는 빠르게 안정되었다. 따라서 석조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전통적인 법전의 건설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국과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관계로 전환되면서, 고종은 고대국가의 상징인 전통건축 형식의 법전을 짓고자 했고, 그 결과가 경복궁의 근정전에 해당하는 중화전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중화전의 건설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다. 경운궁의 구역이 새로운 법전을 짓기에는 너무 좁았기 때문이다. 고종은 경운궁의 모태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즉조당의 남측에 새로운 법전을



그림 2. 석조전과 중화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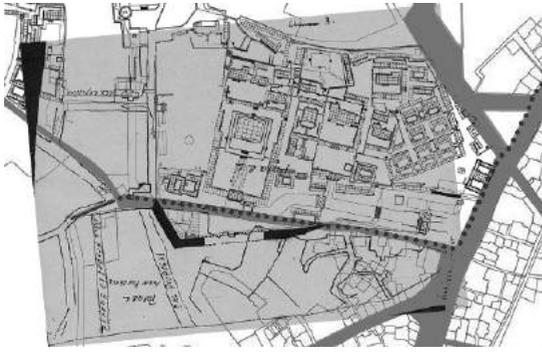


그림 3. 남측 독일공사관 부지로 구역이 확장되면서 새로 입지한 중화전 배치모습, 그림: 김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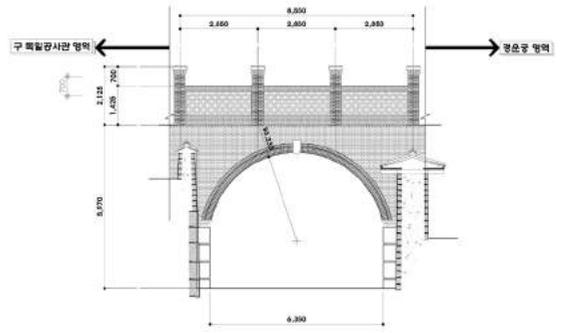


그림 5. 윤교 복원 도면, 그림: 양근창

짓고자 했는데, 새 법전을 짓기에는 즉조당의 남측 공간이 영역이 너무 좁았다. 따라서 구역의 협소한 문제를 풀기위해 경운궁 주변에 공사관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에게 공사관 부지를 팔 것을 요청했지만, 영국과 미국을 비롯하여 러시아와 프랑스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구역의 확장이 난관에 부딪혔다. 구역 확장에 물꼬가 트인 것은 독일을 통해서였다. 1883년 11월 26일 통상조약 체결을 통해 외교관계가 체결되면서 경운궁 남측에 공사관을 마련했던 독일이 공사관 부지를 한국 정부에 매각한 것이다. 독일공사관 대지를 구입한 정부는 구역을 남측으로 확장하고 전통적인 형식의 법전인 중화전을 지을 수 있었고, 중화전의 건설을 통해 경운궁은 대한문에서 조원문과 중화문에 이르는 3문 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대한문-금천교-조원문-중화문-중화전 에 이르는 축의 구성은 경운궁이 근대 도시적 상황에 적응한 근대 도시궁궐이지만, 전통적인 궁궐체제의 관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이 때 경운궁에 새로운 도시시설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구름다리의 건설이다. 정부는 독일공사관 부지를 매입한 후 필지를 통합하고자 했으나, 필지를 통합할 경우 현재의 정동길 폐쇄가 불가피한데 도심으로 연결되는 정동길 폐쇄에 대해서는 미국과 프랑스 및 러시아가 반대함에 따라 기존의 정동길을 중화전 건축에 지장이 없을 만큼 남측으로 우회해서 개설했다.

이에 따라 언덕을 형성하고 있던 독일공사관 부지의 절토가 불가피했고, 정동길에 야트막한 석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도로를 남측으로 우회시킴에 따라 새로 구입한 독일공사관 부지 모두를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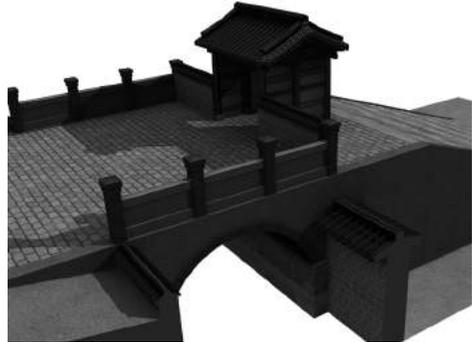


그림 6. 윤교 복원 예상도, 3D제작: 굿게이트

정부는 도로로 갈라진 두 부지를 연결하기 위해 구름다리를 건설했다. 구름다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구법에 따라 벽돌과 목조로 지어졌다. 구름다리는 물리적으로는 단절되었지만, 두 개의 구역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해법이었다.

경운궁의 배치

중화전의 건설로 경운궁은 궁궐의 기본 틀이 완비하였다. 대한문(大安門, 현 대한문)을 들어서면 바로 우측에 광무개혁의 두 축



그림 7. 덕수궁 전경, 중앙의 중화전을 중심으로 왼편에 석조전, 오른편에 편전과 침전이 위치해 있다.



그림 4. 윤교_경운궁과 구 독일공사관부지를 연결하는 구름다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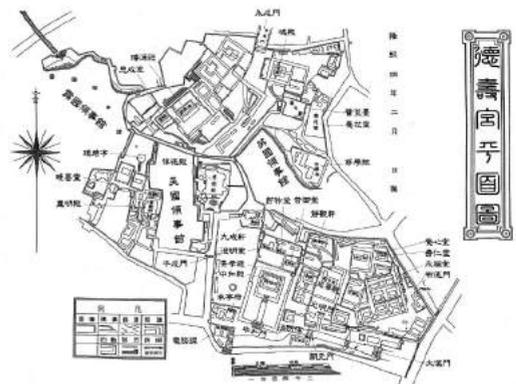


그림 8. 경운궁 배치도, 출처: 덕수궁사



그림 9. 대안문 앞 어도와 우측의 원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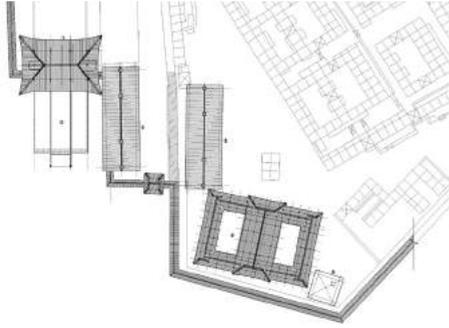


그림 10. 대안문과 원수부 그리고 궁내부(왼쪽부터) 배치도(복원 예상 배치도), 그림: 양근창

인 군수권의 상징인 원수부와 개혁의 실질적인 주체인 궁내부가 위치해 있었다. 그림 10은 대안문과 원수부 및 궁내부의 위치관계를 보여준다.

대안문 바로 우측에 2개 건물로 구성된 원수부 그리고 원수부 우측 아래에는 궁내부가 위치했었다고 한다.



그림 11. 함녕전(침전)과 덕흥전(편전)



그림 12. 중화문과 중화전, 사진: 덕수궁관리사무소

경운궁의 정문이었던 인화문은 중화전의 건설로 철거되고, 대신 경운궁의 동측에 위치했던 대안문이 궁궐의 정문이 되었는데, 1900년에 어도설치를 위한 예산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대안문은 인화문이 철거되기 전에 이미 경운궁의 정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대안문을 들어서면, 오른쪽에는 궐내각사와 침전인 함녕전이 위치해 있었다. 길을 따라 조원문과 중화문을 거쳐 중화전에 이르는 축을 중심으로 중화전 동측에는 업무공간인 편전(덕흥전)과 침전(함녕전)이 위치해 있고, 덕흥전 뒤편에는 휴식시설인 정관헌이 있다.

중화전 서측에는 1900년부터 짓기 시작한 최초의 정전인 석조전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석조전 뒤편에는 2층의 양관인 구성헌(석조전 완성 후 철거됨)이 위치해 있고, 구성헌 서북쪽에는 총세무사건물로 건축되었으나 나중에 구역에 포함된 2층의 양관인 돈덕전이 위치했었다.

경운궁의 전각들

사라진 제국 경영의 두 축, 원수부와 궁내부

현재의 덕수궁 구역은 1912년과 1968년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동측의 구역이 잘려나갔고, 이 때 덕수궁의 많은 전각들이 철거되었다. 그림8의 배치도에서 동쪽 끝 삼각형 부지에 위치했던 궐내각사가 모두 철거되었다. 정문인 대안문은 위치가 옮겨지면서 철거의 위기를 면하였지만, 제국을 지탱하는 2개의 큰 축이었던 군수의 상징인 원수부와 광무개혁을 담당하던 주체였던 궁내부 건물이 철거되어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서도 사라졌다.

원수부는 1899년 군수권 강화를 위해 설립한 군통수권을 관할하는 관청으로 황제가 대원수, 황태자가 원수의 직을 가지고 서양식 군대 편제에 따른 육해군을 통솔하였다. 따라서 원수부에는 군무국, 검사국, 기록국, 회계국을 두었으며, 산하에 친위대와 시위대를 두어 도성을 방어하고, 궁궐 내에 위치한 경호대는 임금의 경호 임무를 맡았다. 원수부는 대안문 우측에 위치하였으며, 원수부는 서양식 건축물이었으나 역사주의 양식건축이 아닌 실용적인 2층 건물이었다. 원수부는 1912년 시구개정사업에 따라 태평로(현 세종대로) 도로선형의 직선화 사업이 시행되면서 덕수궁의 동쪽 끝이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철거되었다.



그림 13. 대안문과 원수부 전경

1894년 갑오개혁 때 국가행정과 왕실행정을 구분하면서, 국가행정은 의정부가 왕실행정은 궁내부가 맡도록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궁내부의 업무가 국가행정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었으나, 1899년 광무개혁에서 의정부가 정책 결정을 맡고, 궁내부가 집행기능을 맡도록 국가행정이 재편되면서 궁내부는 제국의 실질적인 권부가 되었다. 특히 고종이 근대화와 관련된 개혁을 궁내부 관리를 직접 챙김에 따라 원수부와 함께 대한제국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궁내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907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운궁 궁궐 도형에서는 원수부 우측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종 사진 자료에서 원수부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궁내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1907년 궁궐 배치도에 따르면 2개의 중정을 가진 근대기 한옥 건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 궁내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1907년 순종황제의 즉위와 함께 창덕궁이 황궁의 위상을 갖게 되면서 궁내부도 창덕궁으로 이전하였다.

제국의 두 얼굴, 석조전과 중화전

경운궁의 첫 정전, 즉조당덕수궁은 여느 궁에는 하나씩 밖에 없는 것을 2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우선 이름이 경운궁과 덕수궁으로 2개다. 두 개의 이름으로 인해 현재 불리는 덕수궁이라는 이름을 경운궁으로 환원해야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문화재청 주도로 공개적인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도 매우 높았었다.¹⁾ 이름 외에도 같은 기능을 갖는 건물군이 2개씩



그림 14. 경운궁의 첫 정전, 즉조당



그림 15. 두 번째 정전, 석조전

있는 것이 많다. 정문이 인화문과 대한문으로 두 개였고, 정문이 두 개였으니 자연스럽게 금천교도 2개가 있었다. 인화문이 정문이던 시절의 금천교는 현재 중화전 정전 아래 숨어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전이 2개(석조전과 중화전)였다는 점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덕수궁의 정전은 4개였다. 현재의 중화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즉조당을 정전으로 사용했고, 현재의 중화전은 1904년 후에 증진된 것이기 때문이다.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오면서, 사용했던 첫 번째 정전은 즉조당이었다. 그러나 즉조당은 정전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했던 탓에 곧 새 정전 신축을 추진하였는데, 이 때 계획된 전각이 석조전이었다. 그러나 석조전 건축과정에 관한 정부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석조전은 외세에 의해 지어진 외세 침탈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한제국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석조전에 대한 사실도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다. 국내의 신문과 잡지 등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면, 늦어도 1897년 3월 15일에는 석조전 건축이 시작되었음을 독립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온 시점이 1897년 2월 20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조전 건설계획은 환궁 직후 또는 환궁하기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00년 5월 26일자 <아메리칸 아키텍처 앤 빌딩 뉴스(American Architecture and Building News)>에 '대한제국 황제의 새로운 궁궐, 남동측 입면'이라는 설명이 붙은 모형사진이 게재되었다.²⁾ 이로써 지금은 석조전이 대한제국을 준비하며 의욕적으로 준비했던 서양식 정전이었음이 밝혀졌고, 원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복원공사가 진행중이며, 복원과 함께 대한제국의 역사를 담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양에서 보편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석조전은 분명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국가를 지향하며,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 열강들 속에서 국체를 보존하겠다는 강한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석조전 공사를 시작한지 1년 남짓 지난 뒤에 전통건축



그림 16. 세 번째 정전, 중화전

1) 덕수궁이 통감부에 의해 강제로, 고종이 강제로 황제의 위에서 물러나면서 붙여진 이름이므로, 원 이름인 경운궁이라는 이름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덕수궁이라는 궁호는 통감부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덕수궁의 궁호를 둘러싼 논쟁이 정리되었다.
2) 안창모, 덕수궁_시대의 운명을 안고 제국의 중심에 서다, 동녘 2009

형식에 따른 법전을 지으라는 황제의 명이 내려졌다. 이렇게 시작된 중화전은 석조전보다 늦게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완공은 석조전 보다 빨랐다. 이는 중화전이 갖는 건축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종의 의지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01년 8월 25일 고종황제가 중화전 건설을 명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 11일에 치석이 시작되었지만, 공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2년 9월 5일 자 고종실록에 따르면, 영건도감 제조(營建都監提調)인 윤정구가 “중화전을 지을 시일이 급한데 각 공해(公廩, 관청)의 역사와 사역이 많아서 여러 장색(匠色, 장인)들을 모집하여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공사를 기한 내에 끝낼 수 없겠으니 그 일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송구스럽고 답답합니다. 경무청에서 일체 엄하게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라의 공사가 한창 벌어진 판에 사역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매우 무엄한 일이다. 경축 의식을 위한 공사³⁾ 이외에는 공역(公役)이라 하더라도 모두 중지하도록 하여 일체 장공인들은 영건도감에 배정하도록 경무청에 분부하라.”는 명이 있어 공사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공사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1902년 11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조원문의 상량식이 행해지면서 중화전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세 번째 정전이 완성된 것이다. 이후 중화전이라 불렸던 즉조당은 자신의 원 이름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정전은 1904년의 경운궁 대화재에서 비롯되었다.



그림 17. 화재직후 경운궁, 중앙의 소실된 중화전 뒤로 화마를 피한 정관현이 보인다.



그림 18. 화재 후 중건된 네 번째 정전중화전과 중화문

1904년 2월 23일 서울을 점령한 일본의 강요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어 민심이 흉흉하던 시기에 1904년 4월 14일 대화재가 발생하여 경운궁의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 여세를 몰아 한국정부를 압박하던 상황에서 발생한 경운궁 화재는 일본에 의한 고의적 방화라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기도 하였다. 1904년의 경운궁 대화재로 양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각이 화재로 소실되자 고종황제는 수옥헌(현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기고 국정과 경운궁 중건을 진두지휘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절에 당한 미증유의 대 참사로 인해 주변에서 경복궁으로 이어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고종은 경운궁 중건을 밀어붙였고, 1906년에 네 번째 정전이 완공되었다. 현재의 정전이다. 화재로 소실되기 전의 기반위에 세워졌지만 건물의 규모는 중층전각에서 단층 전각으로 축소되었다.

서양의 식민지건축양식, 베란다 건축의 등장

경운궁에는 현존하는 석조전, 중명전, 정관현 외에 구성현과 돈덕전 그리고 망대 등 많은 양관들이 있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석조전, 중명전, 정관현, 돈덕전, 구성현 등이 모두 다른 모습과 용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건물들이 예외 없이 전면과 양측면에 베란다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초의 정전으로 건축된 석조전도 1층과 2층의 전면과 양측면에 베란다가 설치되었으며, 세관의 업무시설로 건축된 돈덕전 역시 베란다가 둘러쳐져 있었고, 휴게시설로 지어진 정관현 역시 중앙의 홀을 중심으로 전면과 양측면에 베란다가 설치되었다. 황태자가 거처했던 구성현 역시 예외 없이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한편, 현재의 덕수궁역 밖에 위치한 중명전 역시 고증을 통해 1층과 2층에 걸쳐 전면과 양측면에 베란다가 위치했음이 밝혀졌고, 현재는 베란다가 있는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이와 같이 용도와 건축물의 재료 그리고 건축양식과 무관하게 모든 건물에 베란다가 적극 사용된 것일까? 이 땅에 들어온 서양 건축의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의문점이 풀린다.

서양에서 식민지 개척을 주도했던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 고온 다습한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식민지를 경영하였는데, 자신들의 건축양식으로 고온 다습한 기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늘을 만들고 바람 길을 만들 수 있는 베란다가 덧 붙여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시아와는 기후 조건이 달라 기후조건만으로 보면 베란다가 설치될 이유가 없었지만, 동남아시아의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베란다가 서울의 양관에 나타난 것은 서울의 양관이 오랫동안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동하던 건축사에 의해 설계되거나, 동남아시아의 건축을 모델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이와 같이 베란다가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형

3) 고종황제 즉위 40년 주년 관련 공사로 추정됨

성되었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는 건축을 식민지건축(Colonial Architecture)이라 부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 건축이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하의 건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까닭에 혼란을 피하게 위해 베란다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존하는 덕수궁 내 양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석조전

석조전은 서양의 근대국가를 지향하는 의지를 담아 의욕적으로 시작된 대한제국 황궁의 첫 번째 전각이었지만, 석조전이 완공되었던 시점에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새로운 국가의 이상을 담았지만 뜻을 펼치지 못한 비운의 건물이다. 석조전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건축물이다. 외관상 3층 건축물로 보이지만, 중앙의 계단이 외부에 직접 1개 층을 올라가면 환관이 위치하는데, 2층 높이에 있는 중앙 계단이 끝나는 곳이 1층이다. 이러한 층 구분은 지면에 면한 층은 창고나 하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었던 유럽건축의 공간사용 패턴에 따라 석조전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도면과 그림은 건축사 528호 참조)

석조전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서양식 건축물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건축물이다. 르네상스의 러스테인스(Rustication)⁴⁾을 연상시키는 기단 위에, 중앙의 삼각형 페디먼트(pediment)를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적으로 기둥을 줄지어 세운 것은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의 특징이다. 특히 석조전은 고전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특징인 페디먼트를 정면 전체에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측면보다는 전면이 넓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를 돌출시키고 원형 기둥으로 받쳐지는 페디먼트를 설치함으로써 양식적 완성도와 고전주의 건축의 형식미를 완성할 수 있었다. 페디먼트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오얏꽃 무늬가 새겨져 있다. 돌출된 정면의 환관부에는 둥근 기둥을 사용하여 위계를 높이고, 좌우 회랑 부분에는 사각 기둥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었으며, 기둥의 상부에는 그리스의 이오니아식 기둥에서 사용되는 회오리 모양의 장식이 사용되었다.

환관을 들어서면 2개 층 높이 위에 천장이 설치된 로비가 나온다. 지금은 준공 당시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원형 복원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 원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중앙 홀이 2층으로 구성된 것은 인공조명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큰 규모의 로비를 채광하기 위함이다. 1층과 2층을 통합하는 큰 홀은 채광에도 유리하지만 건물에서 여유로움과 화려함을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석조전의 내부 공간구성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역사주의⁵⁾ 건축의 장식으로 채워진 각 방들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황궁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있다. 실내는 영국인 로벨(Lovell)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건축 당시 1층에는 접견실과 홀이 위치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고종 황제와 황족들의 사진은 1층 접견실 앞에서 촬영된 것이다. 2층에는 황제, 황후의 침실과 거실 및 욕실 등이 위치했다. 지금은 복원 공사 중이지만 복원 완료 후 이곳을 찾는 이들은 정원을 향해 열려 있는 베란다를 둘러볼 필요가 있다. 베란다의 열주 사이로 펼쳐지는 덕수궁의 풍경은 궁궐 내 어느 곳에서도 만끽할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를 넘어 석조전 서관과 함께 잘 정돈된 정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기하학적이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정원은 석조전 서관의 준공과 동시에 만들어졌는데, 창경궁 온실 앞의 정원과 함께 이 땅에서는 드물게 서양식 조경 기법에 의해 만들어졌다.

■ 정관헌

정관헌은 고종의 연회와 휴식 장소로 쓰였다고 하며, 한때 태조와 고종 및 순종 황제의 영정이 모셔지기도 했다. 정관헌은 이국적인 풍취와 함께 우리의 건축의 맛이 동시에 느껴지는 건축이다. 이는 서양식 기둥을 가진 베란다로 둘러싸인 벽돌건축이라는 점과 베란다의 난간에 사용된 박쥐와 십장생을 비롯해서 단청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채와 팔작지붕의 존재 때문이다. 소나무와 사슴은 십장생을, 박쥐는 복을 상징하며 잡귀를 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문양이다. 비록 서양식 정자를 만들었지만 우리의 문화와 정서가 녹아들어 있는 것이다. 한편 정관헌의 베란다에 사용된 기둥의 비례는 그리스의 도리아, 이오니아, 코린트 기둥의 안정감 있는 비례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이는 정관헌의 기둥이 서양의 석조기둥을 모델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서양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철재기둥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출입구 바닥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타일이 깔려 있다.



그림 19. 정관헌

■ 중명전

중명전(重明殿)의 원래 이름은 수옥헌(修玉軒)이었다. 옥을 닦는다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다. 수옥헌의 기능이 왕실 도서관이

4) 서양의 석조건축에서 외벽 화장법의 일종으로 돌에 요철을 만들고 견고함과 위엄으로 표현하는 기법.

5) 19세기 중반 이후 지난 시대의 건축의 양식적 특징을 적절히 차용하는 절충주의적 건축양식을 일컫는다.



그림 20. 복원후 중명전 전경

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판단된다. 수옥헌이 중명전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1904년에 일어난 경운궁 대화재 때문이었다. 화재로 몇몇 양관을 제외한 경운궁의 전각 대부분이 소실된 이후 경복궁으로 환어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고종은 경운궁의 중건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경운궁 중건을 지켜보며 진두지휘할 수 있는 수옥헌에 거주하였다. 고종은 경운궁이 중건되는 2년 동안 수옥헌에 거주하였는데, 이로 인해 수옥헌의 이름이 중명전으로 바뀌었다.

중명전이 위치한 곳은 미국공사관 서쪽으로 선교사들의 주택이 위치했던 곳이었다. 미국 공사관이 정동에 입지한 이후 북미 선교사들이 정동에 자리 잡았고, 그 터의 일부에서 정동여학교가 선교사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 이후 교세가 커지면서 종로구 연지동으로 이전하게 된 선교사 주택부지와 정동여학교 부지를 대한제국 정부가 매입하여 궁역에 포함시켰다. 1899년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미국 공사관 왼편에 단층의 서양식 건축물이 보이는데 이 건물이 정동여학교로 사용되었던 시절의 수옥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건물이 1901년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다시 2층으로 증축되었고, 1925년의 화재 후에 다시 개·보수되었다. 해방 후 이방자 여사가 잠시 사용하였으나, 곧 일반에게 매각된 후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예전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중명전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로 정관헌과 마찬가지로 정면과 측면에 베란다가 설치되었다. 벽돌로 지어진 중명전의 외관은 1층과 2층을 감싸 안고 있는 아치(Arch)의 모습인데, 붉은 벽돌을 주로 사용하면서 아치와 기둥 일부에서 형태를 강조하기 위해 검은 벽돌이 사용되었다. 특히 중명전의 외관은 동 시기에 정동에 존재했던 벽돌조 양관인 돈덕전, 영국공사관과 많이 닮아 있다. 현관으로 올라서면 바닥에 정관헌에 사용되었던 타일과 같은 패턴의 타일이 사용되었고, 실내로 들어서면 화려한 장식을 가진 타일이 중앙 복도에 깔려 있다. 현재 1층에는 대한제국과 중명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 사라진 양관들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궁이었던 덕수궁에는 현존하는 석조전, 정관헌, 중명전 외에 순종의 즉위식이 있었던 돈덕전(惇德殿), 순

종이 태자시절에 거처했던 구성헌(九成軒)을 비롯하여 환벽당(環碧堂), 원수부(元帥府), 망대 등 다수의 양관이 존재했었다. 이 중에서 환벽당은 현판만 전해질 뿐 그 모습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돈덕전, 구성헌, 원수부와 망대 그리고 대관정(大觀亭)은 사진을 통해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21. 돈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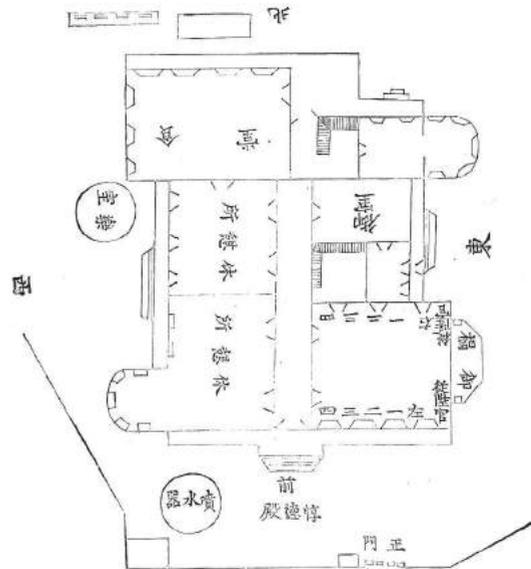


그림 22. 돈덕전 평면도, 출처: 『법규유편(法規類編)』

돈덕전은 1907년 고종황제에 이어 두 번째 황제에 오른 순종의 즉위식이 있었던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경운궁 내 양관 중에서 석조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이었지만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돈덕전은 다른 양관과 달리 궁궐의 전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세관 건물로 지어졌다. 정확한 건축 연대와 궁역에 포함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덕수궁사에 따르면 돈덕전은 알현소 또는 연회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1907년 8월 27일에는 순종의 즉위식이 거행되기도 하였다.

돈덕전과 함께 주목할 만한 양관으로 구성헌이 있었으나 구성헌에 대해서는 흐릿한 사진과 함께 황태자가 거처했었다는 단편적인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1907년에 태자가 구성헌에서 외출하는 기록이 남아있으나, 석조전이 준공되면서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㉔

건축과 함께하는 시의 세계 ①

詩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 개재순서

총론

집터

고향집(生家)

집짓기

집과 가정

일상과 회상

빈집

동물의 집, 식물의 집

상상의 집, 영혼의 집

아파트와 빌라

각론

지붕

기둥

벽

문

창

방

마루

처마

굴뚝

계단

담장

들어가는 글

미국의 건축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위대한 건축사는 반드시 위대한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건축과 시의 상관가치를 동일 선상에 두었다. 호주의 건축사 자이들러는 이외른 우촌의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대하여 “건축은 하나의 언어이고,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은 건축사들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절묘하게 절제된 몇 마디 단어로써 표현된 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의 기원 전 사람 시모니데스(Simonides)의 “시는 말하는 그림이며, 그림은 말 없는 시”란 말이나, 소동파(蘇東坡)의 시중화(詩中畫), 화중시(畫中詩)로 표현되는 시서화일률론(詩書畫一律論)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림도(圖)와 그림화(畫)는 같이 쓰이기 때문이다.

건축과 시는 예술이라는 범주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한국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물을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관광’이란 단어가 나와야만 겨우 예술을 입에 담는다. 이에 반하여 시는 예술로 생각하지만, 학교를 떠나면 특정한 애호가들의 사치품쯤으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건축과 음악, 건축과 미술을 연관시킨 저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과 달리 건축과 시 분야에서는 전무하다.

필자는 신시가 발표된 1910년 최남선의 ‘해에서 소년에게’로부터 근작 까지 필자가 접할 수 있는 수만 편을 섭렵하고, 그 중 집에 관한 시를 취합하였다. 이를 씨줄 삼고 건축을 날줄 삼아 집이란 총론과 지붕, 기둥, 문, 창 등 가론으로 나누어 옷감을 짜려고 한다. 이 글이 건축에 대한 상식을 높임으로써 부동산으로만 편향되어 있는 건축에 대한 인식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관광지에서 흔히 접하는 건축에 대한 감상의 안목을 높여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 열매와, 시의 세계가 친근하게 다가와 보편화, 대중화되는 일거양득을 기대한다. 또한 건축가는 시에 대하여, 시인은 건축에 대하여 서로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이로 인하여 양쪽 모두 시너지 효과를 거두리라는 확신도 있다.

직조공의 솜씨가 서둘러 무늬가 더러 정교하지 못하고 올에 상처 내는 일이 있을 터이나, 뛰어난 후학들이 보다 아름다운 천을 만드는데 바탕 노릇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용기를 내었다.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는 시집명

총론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의(衣), 식(食), 주(住)는 삶의 필수사항이다. 2000여 년 전의 시경(詩經)에도 **오막사리 집일망정 / 다리 뻗고 살리로다 / 샘물 넘쳐 흐르니 / 주림도 즐길 수 있겠네.**¹⁾라 하여 먹는 것은 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오막살이일망정 집은 있어야 살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삶에 필수적인 집에 대하여 건축사들은 대체로 “건축은 항상 국민적이며 또한, 개인적이다. 그러나 개인-민족-인류라는 세 개의 동심원 중에서 최후의 그리고 최대의 원이 다른 두개를 동시에 포괄하며”(Walter Gropius) “건축을 생각이 있는 것으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생명이 있는 것으로서 복잡성과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Victor Horta)는 명제 아래, “자연은 신이 만든 건축이며, 인간의 건축은 그 것을 배워야 한다”(Gaudi)는 자세로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집에 대하여 시인 함민복²⁾은 집에 대한 패설에서 다음과 같이 읊조린다.

‘집’이라는 글자를 읽어보면 발음 속에 공간이 완성되고 그 공간엔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 집이 없이 ‘떠난다’는 말이 가능할까. //

집 속에 살던 내가 집을 떠나면 집이 내 속에 들어와 산다.///

- 함민복 ‘집에 대한 패설’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집이 없으면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우리들. 그 곳이 대도시이든 농어촌이든, 그 형태가 단독주택이든 아파트이든 또한 그 재료가 나무나 철근콘크리트 또는 벽돌이든 간에, 내가 자고, 먹고, 쉬는 곳이 집이다. “사람은 집을 만들고 그 집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Winston Churchill)는 집, 생각 없이 살아오던 집에 대하여 시와 함께 관찰과 사색의 나들이를 떠나보자.

집터

우리네는 예로부터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음택인 묘자리와 함께 양택인 주택에 대한 입지선정에 정성을 들였다. 그래서 집터 자리가 있는 곳이나 묘터가 있는 곳은 땅 값이 그 가치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배산임수(背山臨水)에 좌청룡 우백호로 낮은 산들이 둘러싸고 뒷산은 조산까지 높게 이어지며 앞쪽에는 안산이 적절히 시야에 앉아 있는 남향받이 집터를 이상향으로 여겼다. 이

러한 집터는 모양새(形局)에 따라 금계포란형이나 연화부수형 등 여러 가지 동식물 형태로 분류하여 길흉을 따졌다³⁾. 길지(吉地)가 있다. 그렇다면 시인들은 어떤 집터를 이상향으로 생각했을까?

김소월⁴⁾은 들가에 떨어져 나가 앉은 메기습의 / 넓은 바다의 물가 뒤에⁵⁾나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⁶⁾가 들리는 곳을 원했고, 김동환⁷⁾은 흰 모래 앞 강변에 우리 집을 지을까 /// 뒷 강터 버들밭에 우리 집 지을까⁸⁾ 고민하고, 김광섭⁹⁾은 저 멀리 보이는 산기슭을 탐하여/상록수 가운데 나의 집을 짓고 싶어한다. 도시화가 될될 일제시대인데도 시인들은 강변이나 푸른 산 속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살았던 집에 대한 시심은 어떤 것일까. 평안도 구성이 고향인 김소월은 ‘풀따기’에서 **우리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래바닥은 / 파아란 풀 그림자로** 자신의 집을 그리고, 김동명¹⁰⁾은 연작 시 ‘나의 집’에서, **내 뜰은 요행 술밭에 연(連) 했고 / 나의 손끝은 동해의 푸른 물결에 닿으며, 풍선(風船)이 한 채 / 나의 쌍창(雙窓)을 향하여** 돛을 나린다. 고 묘사하고 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를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정지용¹¹⁾은 ‘향수’를 통하여 충북 옥천 자신의 집 앞 정경을 그리고 있다.

20세기 최고의 건축사 르 코르뷔지에는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하였다. 집의 역사는 자연동굴 등 수혈주거로부터



사신사(四神砂) 개념도

1) 국풍(國風), 제12 진풍(第十二 陳風)138, 衡門(衡門)衡門之下 可以棲遲 泌之洋洋 可以樂飢

2) 함민복 62년 충주생. *말랑말랑한 힘. 미안한 마음.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외

3) 사신사(四神砂) 개념도 :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4) 1902. 평북 구성. 본명 정식 *진달래꽃.

5) ‘나의 집’ 부분

6) ‘엄마야 누나야’ 부분

7) 1901. 함북 경성. 호 파인 *국경의 밤. 승천하는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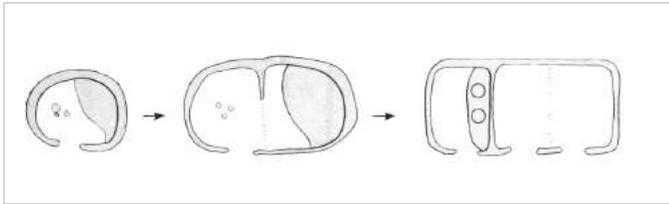
8) ‘즐거운 우리집’ 부분

9) 1906. 함북 경성 *성북동 비둘기

10) 1900. 강원 강릉 *내 마음. 진주만 외

11) 1902. 충북 옥천 *정지용 시선

터 시작되었으며, 한 가족이 자고, 먹고, 쉬는 삶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위엄 있는 관공서나 장엄한 종교건축이나 최고층을 자랑하는 현대의 업무 상업 공간 이전에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주택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것이 차츰 기능별로 분화되었으니, 부엌, 방, 대청의 삼간이 가장 원초적인 기능분화라 할 수 있다.¹²⁾



주택발전 계통도. 한국건축양식론. 정인국

이러한 집의 형태는 이후 ㄱ자나 ㄴ자형태의 곱패집으로, 다시 ㄷ자나 ㄹ자형태로 발전하여 왔으며, 지배계층인 반상가에서는 별당, 정자, 사당 등 부대건물을 더하게 되었다.¹³⁾ 또한 형태도 지역이나 지세, 필요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건축되었다.



담양의 곡전재

누구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집은 크든 작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평생 그리며 살게 된다.

고향집(生家)

집으로 가는 길은 / 언제나 / 설렘이다. 집으로 / 가는 길은 / 부푼 풍선 하나 / 들고 가는 길이다.¹⁴⁾ 집으로 가는 길을 걷다 보면 어린 시절의 모든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늙어가는 오늘에야 깨닫는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 생일, 명

절, 결혼 등 가족 인척의 통과의례, 그래서 학교 길의 동네 아이들에게서 어린 날의 싱그러움을 보기도 한다.

휘어진 시골길 따라가다가 보니
길이 왜 곡선으로 나 있는지 알겠네 //
아쉬워라, 논길에서 뱀을 만난 듯
진흙탕을 직선으로 달려가다 넘어진 친구들//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가면서
사선으로 어깨가 기운 사람들을 만나보니
늙어가는 나의 등이
왜 비탈로 저물어 가는지 알겠네 //
노을을 날개에 묻히고 온 새가
추녀 끝에 흐린 전구불로 매달리는 흙집
입매가 감나무 잎처럼 둥근 영정사진을 꺼내
해와 달이 둥근 비밀을 물어야겠네.

- 공광규¹⁵⁾ '시골집에 가면서'

바람과 놀고 있는 / 시골 아이들
머리카락 살랑일 때 마다 / 부서지는 오후의 햇살 //
진홍빛 분꽃을 따 / 꽃술 당겨 씨방으로
귀걸이 하고 / 부모님 계신 / 집으로 가는 길, //
공기마저 살찌 있구나! / 가슴 가득
맛있어라 / 맛있어라 //
전나무 사이 길 / 아직도 풍성한 / 남은 여름의 노래 //
눈을 뜨고 / 걸어 가다가
눈을 감고 / 걸어 가다가 ///

- 강방영¹⁶⁾ '집으로 가는 길'

어린시절 천방지축으로 동무들과 어울리며 치기 어린 짓을 하던 고향집엔 친구들과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있다.

뒤울안 보루쇠 열매가 붉어오면
앞산에서 뽕꾸기 울었다. ///
아랫말 옷 동리가 넓어 뵈던 촌에선
단오의 명절이 한껏 즐겁고
모닥불에 강냉이 구워먹던 아이들
곧장 하늘의 별세기를 내기했다.

- 노천명¹⁷⁾ '생가'

우리 집 동편 담 밑에는 돌창을 파고
서편 담은 걸집 담벼락으로 대신하였소

12) 주거형태의 진화 정인국 교수 한국건축양식론

13) 담양의 곡전재

14) 이문조 / 집으로 가는 길

15) 1960. 충남 청양 / 말뚝 한덩이, 대학일기, 소주병 외

16) 1956. 제주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 인생학습, 은빛 목소리 외

17) 1912. 황해 장연 *노천명 시집, 대표시 사슴

그 담에 붙어 있는 닭이 화를 가리운듯이
비스듬히 뺨어난 살구나무, 첫 여름에
막대기로 떨어는 선 살구의 신맛이
나의 좋아하는 것의 하나이었소 ///
해마다 추석이면 으레히 햇 기장쌀에
밀길구미 길구어 노트를 지지더니
늙으신 할머니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주요한¹⁸⁾ '우리집'

나무 끝에 빗소리/ 오나 안오나
걸어둔 귀두 쪽을/ 매미가 물어뜯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오는 소나기
땀돌 위에 /신발짝 뒤집어 놓고
들창문 달고 나서/ 혼자 생각하느니
남의 빵 발에 들어가 / 오디 훑쳐 먹은 일

-안도현¹⁹⁾ '산가'

꿈에도 생시에도 눈에 선한 우리집²⁰⁾은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살아 있는 한 그리워하고 돌아서지 못하는 곳이
기도 하다.

떠남도 허락하고 / 돌아감도 허락 한다
떠나는 길과 끝나는 길이 / 만나서
모든 도중의 하늘에 / 별을 빛나게 하고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 한 번의 폭포로 노래하게 한다.

-정현종²¹⁾ '집'

살아있는 한 돌아서지 못한다
꼬집으면 / 확, 하고 꽃 터질듯한 자리
누구나 / 모래바람 일으키며 떠났다
허기진 애증으로 군데군데 살이 떨어진 채 돌아와
그 원형에 영혼을 다시 대 보지만
닿기만 하고 / 명이 지워지지 않는 자리."

-최문자²²⁾ '생각'

이런 고향마을에는 중심에는 종가가 자리하고, 그곳엔 아버 죽
어 할아버지에게 격대교육을 받고 있는 손자의 모습도 보인다.

내 집이 아니라 / 너집이라
나르다 열른 도라오라 / 처마 난간(欄干)이
너들 가여운 소색임을 지음(知音)터라. //

내 집이 아니라 / 너 집이라
아배 간 뒤 머난 날 / 아들 손자 잠도 깨우리
문틈 사이 너는 몇 대째 서워 우느뇨

-김영랑²³⁾ '집'

고향은 시골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도시의 현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아 옛날의 추억을 보듬어보기는커녕 찾아가기
도 어려울 정도로 변모하고 있다. 권대웅²⁴⁾은 '휘어진 길 저쪽'에
서, 변모해 버린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까지 그
려보고 있다.

/// 어디론가 세월도 이사를 하는가 보다 /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 / 기억 속에는 아직도 솜틀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 이빨을
뽑아 지붕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뒷
마루로 걸어오던 /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 정작 보이는 것은 다
른 시간의 사람들뿐 / 저기 부엌이 있던 자리 / 지금은 빌라가 들
어선 자리 / 그 이층 베란다쯤 다락방 있던 자리 / 엄마가 저녁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 가슴에 초승달처럼 걸려있다 / 몇 년
만에 아기를 업고 돌아온 고모와 / 고모를 향해 소리 지르던 아
버지는 / 말 없이 펄프질 하던 할머니는 / 그 마당 식솔과 음식들
그대로 끌고 / 모두 어디로 갔을까///

집짓기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지목이 대지인 땅이 있어야 하며, 건축
사사무소에서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 설계도서가 완료되면 해
당관청에 설계도서를 접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회사에게
견적을 의뢰한 후 적절한 회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
작한다. 공사 중에는 건축사가 감리를 하게 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허가관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사용승인 후 등기절차를 마칩으
로써 재산권을 행사하게 된다. 문장으로는 쉽지만 건축설계과정
과 공사과정은 복잡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복잡한 절차와 달리 시
인들은 집도 쉽게 잘 짓는다.

비바람 막아주는 지붕 / 지붕을 받쳐주는 네 벽
네 벽을 잡아주는 땅 / 그렇게 모여서 집이 됩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고, / 서로 마주보고 감싸 안아
한집이 됩니다 / 아늑한 집이 됩니다

-강지인²⁵⁾ '집'

건축은 유기적이지 않으면 부실건물이 된다. 시인은 집도 가족

18) 1900. 평남 평양 *불놀이

19) 1961. 경북 예천 *간절하게 참 철 없이, 그리운 여우

20) 김소월 - 우리집

21) 1939. 서울 *섬, 풀잎은 공중에 글을 쓴다

22) 1943. 서울 *사과 사이사이 새, 달고 싶은 곳, 울음소리 작아지다

23) 1903. 전남 진도 *본명 윤식, 김영랑 시선집

24) 1962. 서울 *당나귀의 꿈, 떨림, 살아가는 동안 깨달은 한마디

25) *할머니 무릎 퍼지는 날

도 마주보고 감싸 안아야 된다는 튼튼해진다는 공통점을 집짓기로 표현하였다. 건축의 진행과정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이 시와는 달리, 노인은 자신이 그리던 이상향의 집을 마음속에 짓는다. 젊은이도 달빛과 풀벌레소리를 엮어 벽과 천장을 만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인가.

그는 언제나 황량했던 마음을 다져 그 속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먼저 집 크기에 맞춰 단단한 바탕의 주춧돌 심고
세월에 알맞은 나이테의 소나무로 기둥을 세웠다
기둥과 기둥 사이엔 휘파람으로 울던 가지들 엮어 채우고
붉게 잘 익은 황토와 잘게 썬 벚짚을 섞어 벽을 발랐다
벽이 마르면서 갈라진 틈새마다 스스, 풀벌레 소리
곱게 대패질한 참나무로 마루를 깔고도 그 소리 그치지 않아
잠시 앉아서 쉴 때 바람은 나무의 곁을 따라 불어 가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제 그는 지붕으로 올라갔다
비 올 때마다 빗소리 듣고자 양철지붕 떠올렸다가
늪으면 찾아갈 길 꿈길뿐인데 밤마다 그 길 젖을 것 같아
새가 뜨지 않도록 촘촘히 기왓장을 올렸다
그렇게 지붕이 완성되자 그 집, 집다운 모습 드러나고
그는 이제 사람과 바람의 출입구마다 준비해 둔 문을 달았다
가로 세로의 문살이 슬픔과 기쁨의 지점에서 만나 틀을 이루고
하얀 창호지가 팽팽하게 서로를 당기고 있는,
불 켜질 때마다 다시 피어나라고 봉숭아 바른 꽃잎도 넣어둔
문까지 달고 그는 집 한 바퀴를 둘러보았다
못 없이 흙과 나무, 세월이 맞물려 지어진 집이었기에
망치를 들고 구석구석 아귀를 맞춰 나갔다
토닥토닥 망치소리가 맥박처럼 온 집에 박혀 들었다
소리가 닿는 곳마다 숨소리로 그 집 다시 살아나
하얗게 바랜 노인, 그 안으로 편안히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길상호²⁶⁾ '그 노인이 지은 집'

집 한 채를 짓는다, 한밤 내 / 밀려오는 잠을 천장으로 떠밀며
마음의 야트막한 언덕, 고즈넉한 숲 속에
나지막한 토담집 하나 빚어 앉힌다.//
이따금 무거운 마음 풀어 내리던 / 청솔 푸른 그늘,
언제나 그늘 드리워 주던 그 나무들로
기둥도 서까래도 만들어 둥근 지붕의
집을 세운다. 달빛과 별빛,
서늘한 바람 몇 가닥 엮어
새소리 풀벌레 소리도 섞어 / 벽과 천장과 방바닥을 만든다//
마음의 야트막한 언덕, 고즈넉한 숲속에

나지막이 앉아있는 토담집 하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깨어있을
마음의 집한 채 가만가만 끌어 앉는다.

-이태수²⁷⁾ '마음의 집한채'

노인은 세월이 맞물려 지은 마음 속의 집, 자신의 숨소리로 살아난 집에 편안히 들어서고 젊은이도 마음의 집 한 채를 끌어안는데, 어린이들은 마음속이 아니라 도화지를 펼쳐놓고 수 십 가지 색깔의 크레파스를 이용해 내가 살고픈 집을 그린다.



2011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16기 시민건축대학 수상작



2012 어린이와 함께하는 제17기 시민건축대학 수상작

하얀 도화지에 내 집을 지어볼까
빨간 지붕과 둥근 창문
축구도 하는 넓고 푸른 마당
창가엔 마음에 드는 별 하나 걸고
뒤뜰에는 사과나무도 있어야겠지
늘 원해도 반대만 하는
강아지도 세 마리쯤 키우고//
나지막에 커다랗게 나를 그려야지
바로 내가 이집 주인이니까.

-신복순²⁸⁾ '내 그림'

가난한 젊은 시인은 내 집이 없기에 인터넷에서 마우스로 딸깍 딸깍 두드리면 대문이 열리고 꽃밭이 가득한 번지 없는 '즐거운 나의 집'을 컴퓨터 화면에 짓고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는데
세상에 나서 어디 제 집 한 칸 갖기가 쉬운 일인가
인터넷 무료계정으로 세운 나의 HOME

26) 1973. 충남 논산 *오동나무 안에 잠들다, 모르는 척

27) 1947. 경북 의성 *침묵의 푸른 이랑, 그집은 동글다, 회화나무 그늘 외

28) 아동문학가

마우스로 딸각 딸각 한 두 번만 두드리면 대문이 열리고
 바탕화면엔 꽃밭이 가득!
 즐거운 곳에선 날 오라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 반경 10km 정도 밖에 더 움직이겠는가
 그 안에서 살다가 영업마감하는 것인데
 두세평 남짓한 월 셋방 원룸에 눕는 밤이면
 호적에도 주민등록증에도 없는
 위성 GPS도 찾지 못하는 나의 HOME,
 나 같은 백수가 귀가해야 할 집은 세상에 없으므로
 새벽까지 하는 게임은 맛있고
 생각하면 군침이 나온다
 의자에 몸이 깊이 박힌 사람들끼리
 밤새 포커나 고 스톱을 칠 때
 우리는 이미 한 군락을 이루고 수많은 개체수를 확보한 새로운
 종이다.(마우스를 클릭하면)
 캄캄한 밤 너머 침침한 안을 쓰고 앉아 킬킬거리는 혼령 같은,
 해골 같은
 (당신이 보인다)//
 나이 서른여섯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방 한 칸//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캄캄한 인터넷 밤하늘의 공기가 참 맑다
 -최금진²⁹⁾ '즐거운 나의 집'

전반적으로 예술가들은 경제능력이 약한데 그 중에도 시인들이
 유독 심한 것 같다. 시 한편의 값이 적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겠
 지만, 그래서 그런지 집 집을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를 부
 러워한다.

달팽이는 날 때부터/집 한 채씩 지고 왔으니
 월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전세 살 일 없어 좋겠습니다.
 몸집이 커지면 / 집 평수도 절로 커지니
 이사갈 일 없어 좋겠습니다!
 사고 팔 일 없어 좋겠습니다!
 뺏속까지 얼어드는 / 엄동설한에
 쫓겨 날 일 없어 좋겠습니다!
 불 지를 놔 없어 좋겠습니다!
 -김환영³⁰⁾ '달팽이집'

///나의 마땅한 거처는 없었다
 저 달팽이 같이

무겁게 짊어지고 가야 할
 없어서 더욱 무거운 나의 집
 -성선경³¹⁾ '달팽이 집'
 집을 등에 이고 사는 것들은
 모두 달로 가야한다
 나뭇잎 위에 앉아있는 달팽이를 본적이 있는가
 배경으로 언제나 달이 뜬다
 집이 아니야 집이야
 그 집 속에는 아버지가 주무시고
 어머니가 손톱 깎으신다
 동생은 수학문제 풀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외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은영³²⁾ '달팽이집'

얼마나 비좁고 고달픈 셋방살이기에 부모가 죽거나 외출했으면
 좋겠다고 할까? 하지만 전세 값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는 곳도 있
 다.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세계에도 존재하기를 시인은 꿈꾸
 었을 것이다.

풀잎이 / 전세를 놓았다
 풀벌레가 / 전세를 들었다
 풀잎은 / 전세값으로 노래를 받아
 풀벌레는 / 전세값으로 노래를 주어
 날마다 즐거웠다.
 -정갑숙³³⁾ '셋방살이'

그러나 지금 나에게 집이 있든 없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보
 면, 우리는 참 많은 집들을 지니고 살았다.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 꽃밭이 내집이었지.//
 내가 강아지처럼 가양가양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
 마당이 내집이었지 //
 내가 송아지처럼 경중경중 뛰어 다녔을 때
 푸른 들판이 내집이었지 //
 내가 내가 / 아주 어렸을 때
 내 집은 많았지 / 나를 키워 준 집은 차암 많았지.
 -이준권³⁴⁾ '내가 채송화처럼 조그마했을 때'

다음호에 계속 ㉮

29) 1970. 충북 제천 *새들의 역사, 황금을 찾아서 외
 30) 1959. 충남 예산 *동시집 감장꽃
 31) 1960. 경남 창원 *날 뛰는 직녀에게, 몽유도원을 사다 외

32) 1970. 대전 *일곱 개의 단어로된 사진
 33) *말하는 돌
 34) 1949. 전북 정읍 *쑥쑥, 황야, 열 손가락에 달을 달고 외

협회소식

- 제47회 정기총회 개최('13.2.27)시점까지의 회비는 납부
- 추대 의결 후 차기 정기총회(제48회)에 보고
- 제5호의안 : 경남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2인, 결손액 : 2,610,000원)

▲기타사항

- 감사실은 감사기간 외에 '회원의 방'으로 개방하되, 감사실 내에 있는 감사 관련자료 등은 시건장치를 마련
- 이사회 회의록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토록 개선하되, 세부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13.4월부터 세 번째 수요일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함.

제3회 이사회

2013년도 제3회 이사회가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에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이 논의됐으며, 부의안건으로 2013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자문위원 위촉의 건, 추대회원 추대의 건, 경남건축사회 제명회원 미납회비 결손 처분의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홍보사업비 집행의 건
 - 원안대로 집행하기로 함.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2013년도 위원회 설치 및 담당임원·위원장 선임의 건
 - 2013년도 위원회의 조직 및 담당업무를 확정하고, 담당임원 및 위원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위임함.
- 제2호의안 : 비상근 부회장 선임의 건
 - 김의중, 심재호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 서울건축사회 회장을 선임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자문위원 위촉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자문위원(유임) : 김주덕(변호사), 황용현(회계사), 신항철(노무사)
 - ▷ 자문위원(신임) : 이종욱(변호사)
- 제4호의안 : 추대회원 추대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추대회원 대상자 : 본협회 제29대 회장(강성익)
 - ▷ 추대회원 적용시기 : 임기만료일부터 추대

2013년도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16개 시·도건축사회의 정기총회가 지난 3월 7일 충청북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개최돼 2013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승인, 신임임원 선출 등 주요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각 건축사회별 총회 부의안건 등 주요 처리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7(수) 14:00
- ▷ 개최장소 :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334명 중 814명(권리정지 회원 16명 포함)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회계년도 감리업무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2회계별 결산서(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3회계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26대 회장 : 조충기(건축사사무소 간향) 당선
 - 2013년 감사 : 최완호(건축사사무소 예소) 당선
 - 제6호의안 : 대의원 개선의 건
 -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키로 승인함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19(화) 15:00
- ▷ 개최장소 : 농심호텔 별관 2층 대청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31명 중 538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FY-2012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FY-2012 결산잉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FY-201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부산건축사회관 건립 추진의 건
 - 찬반 거수 표결 결과 대다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건축사회 발전기금 사용 승인의 건
 - 고문, 협회회장, 이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기금 집행하는 조건으로 원안을 승인함
 - 제6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이성우 회장(연임)
 - 감사(1인) : 박찬일 회원
 - 이사(7인) : 회장단에게 위임함
 - 제7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단에게 위임함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1(목) 16:00
- ▷ 개최장소 : 대구 가창 스페셜리(1층) 애지앙(대회의장)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68명 중 613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회계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회계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2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3회계년도 특별적립금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대구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임원·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1인) : 유홍재 회원
 - 감사(1인) : 박병희 회원
 - 이사(1인) : 회장에게 위임
 - 대의원(19인) : 회장에게 위임

■ 인천광역시건축사회<미도착>

- ▷ 개최일시 : 3. 26(화) 10:00
- ▷ 개최장소 : 인천 하버파크 호텔 2층 그랜드볼룸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66명 중 261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경조비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2 회계연도 수지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 : 조동욱 회원
 - 감사 : 김현미 회원
 - 이사(4인) : 회장에게 조건부 위임(학연, 지연, 나이 등 적절안배 조건)
 - 대의원(8인) : ① 총회선출(4인) : 박순중, 유복성, 이재식, 서해동 회원, ② 회장에게 위임(4인))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8(금) 10:00
- ▷ 개최장소 : 신양파크호텔(1층)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88명 중 250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이사(7인) : 김곤, 박재홍, 박형갑, 장동원, 정명철, 정명환, 정상채 회원
 - 감사(1인) : 윤양현 회원
 - 대의원(7인) : 심상봉, 김희현, 박신남, 신정철, 신찬균, 정인채, 조휴환 회원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1(목) 10:00
- ▷ 개최장소 : 대전 서구 탄방동 오페라웨딩 4층 컨벤션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47명 중 233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대전건축사연금관리규정 폐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송영규 회원 ((주)쿠파이엔지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사(5인) : 강병진, 권명원, 김용각, 박순란, 정연기 회원
 - 감사(1인) : 박성수 회원
- 제6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15인) : 권명원, 권이원, 김공열, 김용각, 박순란, 박재일, 석종구, 손근익, 송회정, 오상희, 이광수, 이성희, 이철호, 임성국, 임재현 회원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5(월) 16:10
- ▷ 개최장소 : 울산MBC 컨벤션 2층 아모레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24명 중 207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문화발전기금 운용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정태석 회원
 - 감사(1인) : 박성현 회원
 - 이사(4인) : 회장에 위임
 - 대의원(2인) : 회장에 위임

■ 경기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14(목) 13:00
- ▷ 개최장소 :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098명 중 694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사업 및 일반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사교육특별회계 신설 승인의 건
 - 대여금 상환기간을 2015년부터 5년으로 추가하여 승인
 - 제4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협회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에게 위임함
 - 제6호의안 : 임원 개선의 건
 - 감사(2명) : 지현춘 회원(연임), 정종식 회원(잔여임기 1년)
 - 이사(14명) : 회장에게 위임함

■ 강원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8(목) 11:00
- ▷ 개최장소 : 대명리조트 설악 그랜드볼룸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33명 중 171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회장(1인) : 김종오 회원
 - 감사(1인) : 이강섭 회원
 - 대의원(8인) : 이병수, 환광호, 허민구, 김광수, 한진석, 이경규, 김경환, 김재연 회원

■ 충청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7(금) 10:15
- ▷ 개최장소 : 선프라자 컨벤션센터 신관 2층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98명 중 198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한재희 회원(신임)
 - 감사(1인) : 김영각 회원(신임)
 - 이사(5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
 - 대의원(7인) : 신임회장에게 위임

■ 충청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 21(목) 16:00
- ▷ 개최장소 : 온양그랜드호텔 2층 갤러리 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61명 중 223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충남건축사회 회칙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25대 회장 : 최종욱 회원(연임)
 - 감사 : 김동욱 회원
 - 이사 및 대의원 : 회장에게 위임

■ 전라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18(월) 16:00
- ▷ 개최장소 : 전주 코아리베라호텔 백제홀
- ▷ 참석인원 : 유효재적인원 299명 중 119명 참석(재적회원 308명 중 권리정지 9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전라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15(금) 11:30
- ▷ 개최장소 : 전남 목포시 상동 샹그리아 비치 관광호텔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45명 중 129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국원식 회원
 - 이사(5인) : 박용목, 김맹수, 이경일, 김선중, 장춘기
 - 감사(1인) : 배중수 회원
 - 제4호의안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 선출 : 윤문곤, 윤순하, 서계원, 김선중, 장춘기, 이철

■ 경상북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14(목) 10:00
- ▷ 개최장소 :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 ▷ 참석인원 : 재적회원 454명 중 419명
-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경북회칙(안)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임송용 회원
 - 감사(1인) : 김용택 회원
 - 이사(23인) : 지역건축사회에서 선출
 - 대의원 : 회원 수 증가에 따라 기존 대의원 수에 1명을 더 추가하여 회장에게 위임 결정

■ 경상남도건축사회

- ▷ 개최일시 : 3.21(수) 14:00

▷ 개최장소 : 경상남도청 도민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14명 중 464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회칙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2년도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2012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4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2013년도 경남건축사회 상조회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6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박무귀 회원 (신임)
 - 이사(5인) 및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10인)은 회장에게 위임

■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 개최일시 : 3.22(목) 15:00

▷ 개최장소 : 제주KAL호텔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57명 중 136명

▷ 의결내용

- 제1호의안 : 2012년도 결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건축사회 적립금 회원상조회 이관의 건
 - 건축사회 적립금 1억원을 회원상조회로 이관 승인함
- 제4호의안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1인) : 고봉규 회원
 - 감사(1인) : 장언식 회원
 - 이사 및 대의원 : 회장에게 위임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 각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직원 의견 수렴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각 부서별로 업무내용을 보고 받았다. 총 9일에 걸쳐 진행된 보고는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는데, 기획실(4월/1일), 운영실(4월/2일), 친환경건축연구원(4월/3일), 교육관리실(4월/4일), 회원지원실(4월/5일), 등록관리실(4월/8일), 문화홍보실(4월/10일), 정책연구실(4월/11일), 건축사공제조합(4월/12일)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수 회장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부서별 업무를 일일이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실장과 담당자들에게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우리협회, 한국건설VE연구원과 업무협력 합의서 체결



우리협회는 지난 4월 8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한국건설VE연구원에서 업무협력 합의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 우리협회는 김영수 회장과 권병조 상근부회장, 김의중 부회장, 김득수 감사, 이남식 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연구원에서는 전재열 원장, 손명섭 부회장, 이인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양 단체는 '건축분야 및 건설VE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건축사에 대한 VE자격을 취득을 위한 교육사업' 외에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단체,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조찬간담회 가져



대한건축사협회 및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건축단체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리츠칼튼 설악룸에서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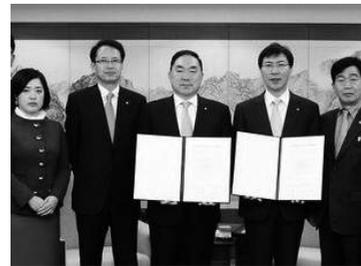
이 자리에는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서치호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광만 한국건축가협회 회장과 국건위 분과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단체 간의 업

무협조 등을 보다 더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제2기 국건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건축정책 마련을 위해 애써온 이들을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위원장은 "궁극적인 건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그 성과가 미흡했으며, 염원하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아쉽다."고 밝히고, 존재의 위기에 있던 위원회가 건축단체들의 노력과 협조로 존속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조찬간담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단체는 합동명의로 이상정 위원장, 김창수, 강준모, 제해성 국건위원과 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을 위해 노력한 강부성, 권병조, 김의중, 김태우, 박순천, 박인수, 전영철 위원에게 각각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충청남도건축사회, 충청남도 '소규모 건축물 기술 지원 협약' 체결



충남건축사회와 충청남도가 '소규모 건축물 기술 지원 사업'을 위해 지난 4월 8일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소규모 건축물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충남건축사회는 그동안 건축사의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충청남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충남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으로 놓여준 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디자인 및 품질 향상과 올해 1,500건 이상 기술지원을 실시했을 경우 최대 12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시공을 예방해 철거 및 재시공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양지역건축사회, 안양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후원



경기도건축사회 안양지역건축사회는 지난 4월 11일(목) 안양청소년 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안양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3,000,000원에 상당하는 '안양 FC 축구경기 연간 관람권'을 기증했다.

이희수 안양지역건축사회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자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증을 하게 되었다. 안양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안양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지역봉사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협회 각 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합동회의 개최



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합동회의가 지난 4월 24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회장은 협회발전을 위해 위원장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회원 권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향후 2년간 가동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 17개, 비상설위원회 2개이다. 먼저 상설위원회로는 중앙윤리위원회,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 국제위원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녹색건축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사업위원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조직위원회이며, 비상설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이다.

2013 제9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2013 제9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4월 26일, 27일 양일간 전남 순천 팔마경기장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건축사축구동호회



22개 팀, 5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했다.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대회에 앞서 “앞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기반으로 건축사를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충훈 순천시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건축사축구대회를 축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틀간 순천팔마경기장과 광양공설운동장 두 곳에서 예선을 치른 결과 경기청, 경남, 송파, 충북이 4강에 올랐다. 4강 결과 경기청은 충북을, 경남은 송파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시종일관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준 양 팀은 경기청의 우승으로 끝났다. 경기청은 작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8회 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3, 4위전에선 송파의 양보로 충북이 3위를 차지했다. 송파는 대회 우승상을 받았다. 한편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경기청의 정규동 건축사가 수상했다.

건축계소식

2013 바바라 카포친 국제건축대상 공모

이탈리아 소재 바바라 카포친 재단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3 바바라 카포친 국제건축대상’ 후보작을 공모한다.

올해 6회를 맞이한 바바라 카포친 국제건축대상은 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UNESCO의 국제 공모전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국제건축사연맹(UIA), CNAPPC(National Council of Architects, Planners, Landscapers and Conservationists)에 의해 승인됐다.

바바라 카포친 건축대상은 건축적 실현의 높은 질을 장려하고, 이를 구현해낸 프로젝트들을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접수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미학적 측면, 기능성 및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성, 인본주의적 측면, 자재와 구조의 적절한 활용 등을 CNAPPC 회장인 이탈리아 건축사 Leopoldo Freyrie와 다른 이탈리아 건축사 Alberto Cecchetto, 일본 건축사 Abe Ryo, 그리스 건축사 Nikos Fintikakis 등 총 7명의 건축사가 심사를 할 예정이다.

카테고리는 <주거용, 공공 및 민간부문>, <상업용, 공공건물(교육, 문화, 종교, 스포츠, 레저, 보건)>, <조경술>이며, 접수 및 공모작 등록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공모작 제출언어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30일(일), 온라인 접수·심사위원단 회의는 7월 18일(목)~ 20일(토)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만 유로(한화 4,300만원 상당) 이외에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원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작품에 기간까를로 이우스 금메달(Giancarlo Ius Gold Medal)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와 등록은 이메일(info@barbaracappochinfoundation.net)과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uia-architectes.org/en/s-informer/concours/7428#.uvrta1pasgm) 및 바바라 카포친 재단 홈페이지(http://www.barbaracappochinfoundation.net)를 참고하면 된다.

2013 신진건축사 설계·아이디어 공모 시범사업 실시

신진건축사 육성과 공공건축물의 창의성 증대를 위해 ‘2013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및 아이디어공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설계공모부분의 경우 참가자격은 만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로 공공건축물 5~6개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경상북도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LH공사이며, 공고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부분 시범사업은 발주기관이 연중계획을 수립해 직접 시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추진과정에서의 협의 및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디어공모 부문 역시 참가자격은 동일하고, 공공사업에 관한 기획 아이디어, Design Concept 및 창의성이 발휘된 개념도 또는 설명서

우리협회 각 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합동회의 개최



위원회 위원장 위촉 및 합동회의가 지난 4월 24일 건축사회관 8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수 회장은 협회발전을 위해 위원장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으며, 회원 권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부탁했다.

향후 2년간 가동될 위원회는 상설위원회 17개, 비상설위원회 2개이다. 먼저 상설위원회로는 중앙윤리위원회, 정책위원회,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 국제위원회, 문화홍보위원회, 회원권익보호위원회, 녹색건축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사업위원회, 미래인재육성위원회, 건축사등록원운영위원회, 건축사교육원운영위원회,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건축사대회조직위원회이며, 비상설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건축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이다.

2013 제9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2013 제9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가 지난 4월 26일, 27일 양일간 전남 순천 팔마경기장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건축사축구동호회



22개 팀, 500여명의 건축사가 참석했다.

우리협회 김영수 회장은 대회에 앞서 “앞으로 협회는 회원들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드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기반으로 건축사를 위한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조충훈 순천시장이 개막식에 참석해 건축사축구대회를 축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틀간 순천팔마경기장과 광양공설운동장 두 곳에서 예선을 치른 결과 경기청, 경남, 송파, 충북이 4강에 올랐다. 4강 결과 경기청은 충북을, 경남은 송파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시종일관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준 양 팀은 경기청의 우승으로 끝났다. 경기청은 작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8회 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3, 4위전에선 송파의 양보로 충북이 3위를 차지했다. 송파는 대회 우승상을 받았다. 한편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경기청의 정규동 건축사가 수상했다.

건축계소식

2013 바바라 카포친 국제건축대상 공모

이탈리아 소재 바바라 카포친 재단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2013 바바라 카포친 국제건축대상’ 후보작을 공모한다.

올해 6회를 맞이한 바바라 카포친 국제건축대상은 매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UNESCO의 국제 공모전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 국제건축사연맹(UIA), CNAPPC(National Council of Architects, Planners, Landscapers and Conservationists)에 의해 승인됐다.

바바라 카포친 건축대상은 건축적 실현의 높은 질을 장려하고, 이를 구현해낸 프로젝트들을 알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접수된 공모작을 대상으로 미학적 측면, 기능성 및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성, 인본주의적 측면, 자재와 구조의 적절한 활용 등을 CNAPPC 회장인 이탈리아 건축사 Leopoldo Freyrie와 다른 이탈리아 건축사 Alberto Cecchetto, 일본 건축사 Abe Ryo, 그리스 건축사 Nikos Fintikakis 등 총 7명의 건축사가 심사를 할 예정이다.

카테고리는 <주거용, 공공 및 민간부문>, <상업용, 공공건물(교육, 문화, 종교, 스포츠, 레저, 보건)>, <조경술>이며, 접수 및 공모작 등록은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공모작 제출언어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30일(일), 온라인 접수·심사위원단 회의는 7월 18일(목)~ 20일(토)이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만 유로(한화 4,300만원 상당) 이외에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 에너지원 분야의 가장 혁신적인 작품에 기안카를로 이우스 금메달(Giancarlo Ius Gold Medal)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의와 등록은 이메일(info@barbaracapochinfoundation.net)과 공모전 홈페이지(http://www.uia-architectes.org/en/s-informer/concours/7428#.uvrta1pasgm) 및 바바라 카포친 재단 홈페이지(http://www.barbaracapochinfoundation.net)를 참고하면 된다.

2013 신진건축사 설계·아이디어 공모 시범사업 실시

신진건축사 육성과 공공건축물의 창의성 증대를 위해 ‘2013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및 아이디어공모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설계공모부분의 경우 참가자격은 만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로 공공건축물 5~6개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발주기관은 경상북도 영주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LH공사이며, 공고는 지난 3월을 시작으로 오는 6월까지 될 예정이다.

이번 설계공모부분 시범사업은 발주기관이 연중계획을 수립해 직접 시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추진과정에서의 협의 및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디어공모 부문 역시 참가자격은 동일하고, 공공사업에 관한 기획 아이디어, Design Concept 및 창의성이 발휘된 개념도 또는 설명서

등의 제출하면 된다.

해당 부문은 심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5~6월 국토부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공모사업 당 15백~20백만 원 내의 상금지원 및 관련 홍보책자를 발행·배포할 예정이다.

2013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대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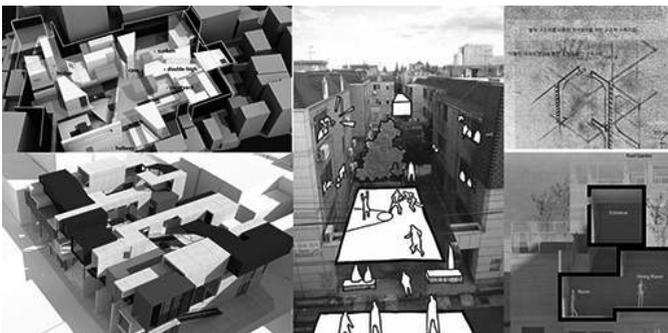
발주기관명	사업명	사업면적 (㎡)	추정설계비 (백만원)	예산공사비 (백만원)	공고예정 시기
경북 영주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체육관	3,000	240	6,000	2013.4
	노인 종합복지관	2,500	114	4,000	2013.6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관리단 사옥	2,150	243	5,375	2013.3
부산	청사포 마을회관	500	59	1,000	2013.6
내공사	대상사업(2개 내외) 검토 중				

국방시설본부, '국방시설 소식지' 원고 모집

국방시설본부는 계간지로 발간하는 '국방시설 소식지'의 원고를 모집한다.

주제는 감리, 시공, CM, 시설물 안전점검 등과 관련된 기술 제언 및 군·민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언 등이며, 원고 제출 전 국방시설본부 기획총괄과(02-748-4228)로 문의하면 된다.

2013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개최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가 후원하는 '2013 제32회 대한민국건축대전'이 '건축, 사회적 공간만들기'란 주제로 개최된다.

응모 자격은 1인 1작품에 한해 건축과 도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1차 등록은 5월 24일 오후 6시까지고, 1차 작품 접수는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6월말에 1차 결과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그 후 2차 등록과 심사, 3차 공개심사를 통해 '2013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기간 중 시상식 및 전시를 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작품 중 대상 1점에게는 상장, 상패 및 상금 500만 원이, 우수상 3점에게는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200만 원이, 특선에게는 상장, 상패 및 각 100만 원이 시상된다.

이번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www.k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 제4회 국토사랑 건설경제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건설경제신문사는 침체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산업의 대국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토교

통부와 함께 오는 6월 2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 광장에서 2013 제4회 국토사랑 건설경제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당일 오전 9시에 출발하는 마라톤 대회는 하프, 10km, 5km, 4.5km걷기 종목이며, 코스는 평화의 공원, 한강시민공원, 평화의 공원이다.

참가신청은 오는 5월 10일(금)까지 대회 홈페이지(www.cnewsmarathon.com)에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국토사랑 건설경제 하프마라톤 대회 사무국 02-785-0582~3

제6회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주관, 대한건축사협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G-SEED를 적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노인복지관'이다.

이번 주제는 모든 건축 관련 학생들에게 주변환경과 잘 융화되면서도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노인 복지관 설계에 대

한 창의적인 설계 접근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함에 그 의의가 있다. 금번 공모전은 도시민과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제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유도하고, 미래 건축학도들이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의 구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풀어 봄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친환경 건축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디자인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응모자격은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교의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이며, 개인출품 또는 3인 이하 공동출품도 가능하다. 응모신청 기간은 6월 28일(금)까지이며, 접수는 제6회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공식 홈페이지(http://www.ecodesign.re.kr)로 하면 된다.

1차 예비심사는 2013년 8월 22일(목)에, 2차 본심사는 2013년 8월 23일(금)에 치러지며, 결과발표는 8월 27일(화) 17시 이후에 발표된다.

· 문의 : (사)한국태양에너지학회, 02-562-1557



40년 전에도 계약서와 설계보수대가는 “뜨거운 감자”

올 해로 창간 47주년을 맞은 월간 '건축사'는 2013년 4월 현재 통권 528호를 발행했다. 건축사는 40여 년간 건축계의 다양한 이슈를 비롯해 수많은 건축 작품과 소식들을 전해왔다.

그간 발행된 간행물을 보면, 40여 년간 건축계가 안고 있던 고민과 연구 등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위상 찾기'는 과거와 현재를 비롯해 미래에서도 건축계가 풀어야 할 영원한 과제인 듯하다.

본지는 지난 47년간 게재되었던 내용을 통해 당시에는 건축계에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떠한 작품들이 있었으며, 선배건축사들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했는지 '건축사 Time machine'을 신설, 연재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1966년 창간호와 1967년 발행된 4권(4월, 7월, 9월 11월호)의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부

도 21명, 전라남도 37명, 경상북도 69명, 경상남도 18명, 제주도 5명의 회원이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지부 중요시책(重要施策)에 눈길이 가는데, ▲ 날로 증가하는 무면허업자의 단속 ▲ 덤핑 방지책 수립에 있어 계약서 존속과 설계보수액 100% 받을 수 있는 대책 ▲ 설계도서작성의 기술적인 상향검토 ▲ 건축사의 해외진출 방책 모색이다. 어찌 보면 40년 전 건축계의 고민은 현재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데, 당시에 설계비에 대한 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알 수 있다.

'3.15 의거 기념탑' 등 3작품 게재

창간호에는 3.15의거 기념탑, 국립과학관, 다락방(종교건축물) 3작품이 게재됐다. 3.15의거 기념탑은 박성규 건축사(삼화건축연구소)가 설계했는데, 높이는 12m, 둘레 10.8m, 삼각석탑으로 지어졌다. 이 탑은 경남 마산시에 현재에도 위치하고 있다.

차경순 건축사(차경순건축연구소)가 설계한 '국립과학관'은 건평 8,778평(당시 표기방식)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어졌다. 창경궁이 복원되기 이전 이곳은 '창경원'이었던 터라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릉동 2번지 창경원 내'로 되어 있다. 일제에 의해 조성된 창경원은 창경궁에 각종 놀이시설과 동물원을 설치, 위락시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국립과학관은 그중 하나였다. 컴퓨터 없던 당시 수작업으로 작성한 투시도와 평면도가 낯설게만 느껴진다. 이밖에 김경환 건축사(김경환건축연구소)의 종교건축물인 '다락방'이 게재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회장 김순하

1966년 7월에 발행된 창간호를 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설교통부(이하 건설부)의 인가를 받아 1965년 10월 23일에 건축사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한다. 창립회장은 발기인인 김순하 건축사가 맡게 된다. 김 회장은 광주근무시절에 설계한 전라남도 청사(1932)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정부 여러 부처의 기술자문을 맡아 건축을 알리기도 했다.

당시 건축사 창간호에는 김 회장을 비롯한 당시 건설부 전예용 장관, 대한건설협회 조정구 회장, 한국건축가협회 송민구 회장의 축사가 게재됐다.

창간호 제호는 '신건축사'로 발행되었으나, 이후 1호부터는 '건축사'로 제호를 바꿔 발행됐다.

창립초기 11개 지부 활동

협회 창립 초기에는 전국에 11개 지부(현 시도건축사회)가 있었다. 당시에는 건축사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지부별 회원 수도 적었다. 지부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267명, 부산직할시 53명, 경기도 28명, 강원도 14명, 충청북도 12명, 충청남도 26명, 전라북

1966년 9월 24일, 제1회 정기총회 열려

협회는 1965년 10월 23일 창립이후 1년 뒤인 1966년 9월 24일 건설회관에서 10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회 정기총회



고려대학교 정문



김만성 건축사



한씨 주택



강진상 건축사

총회에선 '전국회원 우수작품'과 '전국우수건축자재'에 대한 표창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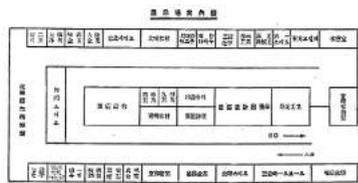
우수작품은 '고려대학교 정문'을 설계한 김만성 건축사(연합건축)와 '한 씨 주택'을 설계한 강진상 건축사(태양건축연구소)가 수상했다. 우수건축자재 우수상은 구천공업사의 '청기와'가, 우량상은 금강공업주식회사의 '금강스레트'가 각각 받았다.

또한 이날 총회에선 회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회원 회비는 600원(본부 400원, 지부 200원)으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세입을 결정했다. 참고로 당시 80kg 쌀 한 가마니 가격은 3천2백 원이었다.

1967년 4월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개최



제1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전국우수건설자재전시회 부스배치도

1967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민회관 옆 광장에서 '제1회 전국우수 건설자재전시회'가 열렸다. 이 전시회는 건축사 2호에 게재됐다.

이 전시회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했으며 당시 경제기획원, 건설부, 상공부, 공보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

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토목학회가 후원했다.

전시회는 160평 규모의 전시장에 32개 업체의 자재와 협회 회원작품이 동시에 전시됐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일반인들의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인지 관람객들에게 미리 용지를 나눠 인기자재를 적게 하고, 그 중 6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관람객들이 선정한 인기 자재 1위는 2천4백76표

를 얻은 한국스레트주식회사의 스레트가 차지했으며, 2위는 대륙기업사의 '온돌 취사대'와 삼영공업주식회사의 '하드-보-드'가 차지했다. 현재 협회가 주관하고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과 같은 성격의 전시회지만 당시 '건설자재전시회'라고 칭한 행사명이 다소 이습기만 하다.

왜색시비 논란... '부여박물관' 그리고 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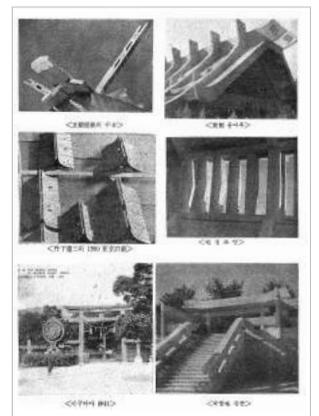
죄담회 모습

1967년 9월에 발행된 건축사 3호에는 당시 왜색시비 논란이 된 '부여박물관'에 대한 죄담회가 게재됐다.

김수근 건축사(김수근건축연구소)가 설계한 부여박물관은 거의 완공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공사 현장을 본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 동아일보에 제보를 하게 되는데, 제보했던 내용은 "박물관 진입로의 대문이 일본의 신사에 들어가는 입구 '도리이'와 그 모습이 같다"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기사를 통해 여론을 몰기 시작, 곧바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 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김중업 건축사(김중업건축연구소)도 동아일보 기고에 "부여 박물관의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이 건물은 일본 신사의 디포르메라는 인상이 확연하다."고 밝힌다. 김중업은 서울공대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김수근에게 서양건축을 가르쳤던 스승이기도 했다.

부여박물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급격하게 일자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전문단체로서 당시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과 교수, 사찰스님 등을 초빙해 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김중업이 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여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기도 했다. 이날 모인 건축인들은 부여박물관 논란에 대해 이는 건축계의 문제이므로, 협회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당국에 건의하자는데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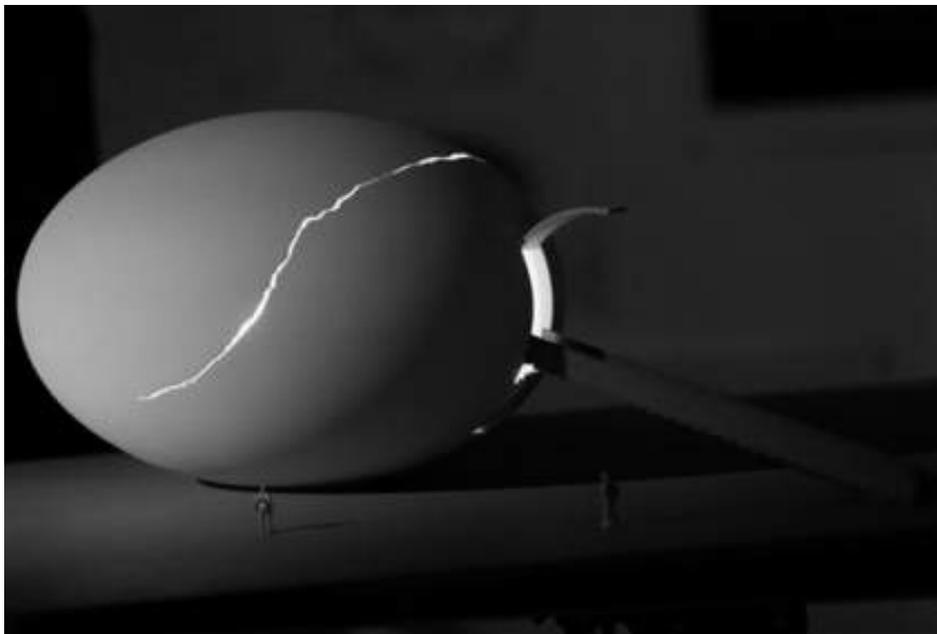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부여박물관은 당시 여론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젊은 건축사 김수근이 개작에 동의, 6년이 지난 1971년 개관하게 된다. ㉮



일본 건축 비교 사례

건축과 패션, 그리고 이노베이션 -밀란 디자인쇼

Milan, Italy, design show mixes innovation, fashion, architecture



'Broken Egg'라 불리는 탁상용 램프.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 Ingo Mauer 제작

지난 4월 12일 부터 6일동안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가구/디자인 쇼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열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갈수록 허물어져 가는 서로 다른 영역간의 경계, 공해와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시대적 고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명품 디자인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시장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었다.

해가 갈수록 규모를 더하고 있는 이 행사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탈리아의 가구 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처음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그 영역을 점차 넓혀 패션과 건축에까지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가 처음에는 한낱 시도에 불과하다고 인식 되었지만 이제는 점차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늘날 가구는 이제 그것들이 놓여질 위치와 장

소가 예측되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

Altgamma Association에 제출된 Bain&Co.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난해 전세계 명품가구의 매출은 약 3% 증가하여 185억 유로(약 24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체 명품시장의 성장세와 비교할 때 약 10%정도 뒤져 있는 수치로 아직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서 가구나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Phillipe Starck, Ingo Mauer 등 많은 유명 디자이너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 디자이너들이 저마다 열심히 준비한 쇼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Lighting

암실을 들어서면 입자 크기의 LED 조명들이 마치 손으로 잡힐듯 굴절되어 버리는 신비한 광선을 만들어내고 있다. 레인보우, 이것은 Tokyo/Milan 디자인 스튜디오 IXI 에서 Toshiba의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조명이다. 여기서 빛의 굴절을 만드는 물 입자의 역할은 크리스탈이, 태양광의 역할은 LED 전구가 담당한다. 이탈리아 말로 숨결이라는 뜻인 "Soffio"라고 명명된 이 설치물은 이번 전시회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것이다.

프랑스의 유명한 크리스탈 제조사인 Baccarat은 이번쇼에서 자신들이 직접 생산한 크리스탈을 적용하여 램프와 상들리에, 불박이 등기구의 디자인에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또한 브라질 출신의 형제 디자이너 Fernando와 Humberto는 등나무, 대나무 그리고 실크를 이용한 이국적인 형태의 램프를 선보였다. 또한 Phillipe Starck는 24개의 전구가 장식된 상들리에 시리즈를, Arik Levy는 4단의 결정체 패턴의 현대적 감각의 상들리에를 각각 준비하고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Bath

욕실을 더이상 실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 앞으로의 욕실은 우리의 감성을 더욱 자극하는 쪽으로 진화할 것이다. 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혹은 저녁 외출을 나가기 전에 들러 매무새를 다듬는 욕실보다 지친 마음의 치유를 위한,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욕실관련 부분을 명품시장의 새로운 시장으로 평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분야 시장규모는 28억 유로에 달했다.

이탈리아 회사인 Kartell은 이번 쇼에서 스위스 제조사인 Laufen, 그리고 디자이너 Ludovica, Loberto Palomba와 공동으로 욕실용품 컬렉션을 런칭했다. "욕실부분의 성장 가능성은 이미 몇년 전부터 관측 되었습니다." Kartell의 회장인 Claudio Luti의 말이다. "이제, 사람들은 완벽한 휴식조차 가정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토탈리빙의 시대가 온거죠"

Palomba의 디자인 팀은 Laufen이 개발한 새로운 세라믹 소재, SaphirKeramic을 적용한 욕조, 세면도기, 욕실금구를 디자인 하였다. 욕조와 세면도기는 바닥에 고정되는 방식으로 깔끔한 외관을 보이며, 물넘침 방지구가 보이지 않게 디자인 되었다. 투명한 소재의 캐비닛과 짝을 맞춘 욕실 장식 등은 Kartell 특유의 느낌으로 선반, 스톨, 수전대 등에 적용되어 투명함과 다양한 인테리어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Sustainable Living

모든것은 자연을 닮아간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공해를 유



'Broken Egg'라 불리는 탁상용 램프. 독일 출신의 디자이너 Ingo Mauer 제작

발하는 것이 자동차라는 상식은 이미 옛날 이야기다. 건축물은 인간이 생산하는 전체 에너지의 40%를 소비하며, 탄소가스 방출량의 25%를 차지한다. 공해를 유발하는 정도에서 이미 자동차를 앞질렀다.

Mario Cucinella는 친환경 건축을 중요함을 오래전부터 역설해 왔으며 이번에 타일 제조사인 Marazzi와 공동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한 컨셉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Pure Air'라는 이름이 붙여진 6미터 크기의 입방체는 외관을 덮은 옥각형 검은색 타일 만으로 소음을 차단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Cucinella는 공기정화와 습기조절 등의 효과를 지닌 이러한 재료의 사용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마디로 '자연정화'의 원리라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는, 자신의 건축철학이 거대하고 복잡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Bologna 출신의 Alessadro Israelachvili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여러 가구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색다른 취향을 쫓는 관객이라면 한번 눈여겨 볼 만 하다

Crossover design

디자인, 패션 그리고 건축의 경계는 갈수록 모호해 간다.

이탈리아의 안경 제조사인 Safilo와 건축 디자이너 Michele De Lucci는 소나무 문양과 고대신화의 인물조각이 어우러진 eyewear를 만들었다. Safilo의 CEO인 Roberto Vedovotto는 자신들의 분야가 결코 디자인의 영역을 떠나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 쇼에 참가하였다는 점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

본 내용은 Rapidcity Journal에 게재된 'Milan, Italy, design show mixes innovation, fashion, architecture' 의 일부를 발췌, 인용 하였습니다.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3년 3월말

구분 건축 사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합 계			
	1인		2인		3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985	5,985	91	182	7	21	6,083	6,188	1,728	1,728	228	456	62	186	25	100	17	112	2,060	2,582	8,143	8,770
서울	946	946	22	44	0	0	968	990	879	879	121	242	45	135	10	40	12	70	1,067	1,366	2,035	2,356
부산	519	519	11	22	2	6	532	547	119	119	24	48	1	3	2	8	2	14	148	192	680	739
대구	503	503	21	42	4	12	528	557	70	70	15	30	4	12	2	8	0	0	91	120	619	677
인천	289	289	3	6	0	0	292	295	67	67	6	12	1	3	0	0	0	0	74	82	366	377
광주	218	218	0	0	0	0	218	218	44	44	6	12	3	9	2	8	0	0	55	73	273	291
대전	267	267	6	12	0	0	273	279	31	31	7	14	4	12	1	4	1	13	44	74	317	353
울산	189	189	5	10	0	0	194	199	19	19	3	6	0	0	0	0	0	0	22	25	216	224
경기	824	824	2	4	0	0	826	828	245	245	18	36	3	9	3	12	0	0	269	302	1,095	1,130
강원	200	200	2	4	0	0	202	204	23	23	2	4	0	0	1	4	0	0	26	31	228	235
충북	229	229	2	4	0	0	231	233	38	38	4	8	1	3	2	8	1	9	46	66	277	299
충남	290	290	1	2	0	0	291	292	55	55	7	14	0	0	1	4	0	0	63	73	354	365
전북	269	269	4	8	0	0	273	277	24	24	4	8	0	0	1	4	0	0	29	36	302	313
전남	215	215	0	0	0	0	215	215	21	21	2	4	0	0	0	0	1	6	24	31	239	246
경북	404	404	4	8	1	3	409	415	40	40	4	8	0	0	0	0	0	0	44	48	453	463
경남	485	485	7	14	0	0	492	499	36	36	4	8	0	0	0	0	0	0	40	44	532	543
제주	138	138	1	2	0	0	139	140	17	17	1	2	0	0	0	0	0	0	18	19	157	159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비율	
합 계	8,770	100%	17
서울	2,356	27%	2
부산	739	8.4%	10
대구	677	7.7%	0
인천	377	4.3%	0
광주	291	3.3%	0
대전	353	4.0%	0
울산	224	2.6%	0
경기	1,130	12.9%	3
강원	235	2.7%	0
충북	299	3.4%	0
충남	365	4.1%	0
전북	313	3.6%	0
전남	246	2.8%	0
경북	463	5.2%	0
경남	543	6.2%	2
제주	159	1.8%	0

건축사등록원 통계현황

구분	자격등록	실무수련
계	8,093	1,453
서울	2,035	1,020
부산	554	49
대구	573	23
인천	319	4
광주	212	27
대전	262	27
울산	207	16
경기	1,113	51
강원	231	7
충북	212	45
충남	309	32
전북	244	11
전남	210	38
경북	452	12
경남	549	18
제주	157	14
기타	452	59
비고	회원: 6,856 / 비회원: 1,237	대학: 1,329 / 대학원: 124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6,188	2,582	8,770	
비율	70.56%	29.44%	100%	
사무소수	6,083	2,060	8,143	
비율	74.70%	25.30%	100%	